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전형 개선 연구

2025. 12.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전형 개선 연구

연구책임자 : 박주형(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공동연구자 : 최용걸(입학본부 입학관리과)
문지현(입학본부 입학관리과)

연구결과 요약

요약

이 연구는 2028학년도 대학입학제도의 개편 취지와 내용을 고려하여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대학입학전형의 구체적인 설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의 대입전형 설계에 관여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2028 대입제도 개편 확정안은 고교 내신 체제의 절대평가 비중 확대 및 상대평가 비중 약화를 통한 학생의 과목 선택권 강화, 통합형·융합형 수능 체계를 핵심으로 하며 이로 인해 대입전형 설계에서 학생부 정량 지표 및 계열별 전공 적합성 중심의 변별력이 약화되어 이를 보완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 되었다. 최근 인천대학교의 대입전형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학생의 과목 이수 정도에 따른 가산점 부여,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 탐구 영역 성적 반영 유연화 등을 전형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나 경쟁 대상인 수도권 주요 대학의 다양한 전형 변화 예고와 2028 대입제도하에서 새롭게 마련해야 할 평가 요소로 인해 전형 개선의 방향과 변화폭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 요인을 고려할 때,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의 대입전형 설계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은 정량 지표 정교화, 정성평가 부분 도입, 정량 평가 대상 과목, 수능최저학력기준 설정 등이 전형의 주요 설계 요인이 되고,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 정성평가의 요소와 내용 선정, 학생 지원을 확보를 위한 전형 이원화 등이 전형의 주요 설계 요인이 된다. 수능 전형은 전형 비율 조정, 계열별 수능 과목 반영 비율, 학생부교과 성적 혼합 여부, 정성평가 요소 도입 등이 주요 설계 요인이 되며, 기타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전형 설계 요인으로는 논술전형의 신설이 있다.

이상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현장 교사와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자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도출된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대입전형 설계의 세부 방향은 다음과 같다.

학생부교과전형은 공통적으로 계열별로 반영 교과와 반영 비율을 다르게 평가하는 방식과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식, 반영교과별 이수과목 이수단위와 성취등급에 따른 가산점을 일반 계열과 자유전공학부를 다르게 설정하는 방식을 전형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반영 교과목 측면에서는 계열별 반영 교과의 진로 및 융합선택과목을 반영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진로 및 융합선택과목 중 상위 N개 과목을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활용 정량 지표 측면에서는 석차등급 환산점수, 석차등급 병기 과목 이수 단위, 계열별 반영 교과 이수 단위를 고려한 가산점을 활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융합선택과목의 성취도 환산 점수와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추가 정량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추가 평가 요소 측면에서는 수능최저학력기준만을 활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출결 지표를 추가로 활용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공통적으로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 비율을 70:30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전형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평가 요소 및 평가 내용 측면에서는 발전 역량을 포함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발전 역량을 삭제하고 해당 내용을 다른 역량에 통합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전형 구성 측면에서는 면접형만 모집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서

류형과 면접형을 이원화하여 모집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수능위주전형은 공통적으로 계열에 상관없이 공통사회와 공통과학을 모두 반영하는 방안, 계열별 교과 반영 비율을 다르게 설정하는 방안을 전형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전형 평가 요소 측면에서는 수능 성적만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을 추가로 활용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기타 전형 설계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논술전형 신설이 있다. 논술전형은 학생부 중심 전형에 지원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규 지원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학생부 중심 평가 강화 및 대학별 고사 지양이라는 최근의 대입 기조에 부합하지 않으며 전형 관리 부담과 비용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전형 설계 여부를 정무적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목적 및 배경	1
2. 연구 방법	3
II.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대입전형 설계의 기본 방향	5
1.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대입전형 설계의 배경 요인	5
가. 2028 대입제도 개편 확정안의 내용과 대입에의 영향	5
(1) 2028 대입제도 개편 확정안의 내용	5
(2) 2028 대입제도 개편 확정안이 대입에 미칠 영향	7
나. 2026~2027 인천대 대입전형의 기초	11
(1) 학생부교과전형의 변화	11
(2) 학생부종합전형의 변화	12
(3) 수능위주전형의 변화	13
다. 2026~2027 수도권 주요 대학의 대입전형 변화 동향	14
2.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대입전형 설계의 구성 요인	18
가. 학생부교과전형 설계의 구성 요인	18
나. 학생부종합전형 설계의 구성 요인	21
다. 수능위주전형 설계의 구성 요인	24
라. 기타 전형 설계의 구성 요인	25
III.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대입전형 개선을 위한 자료 조사	29
1. 2028학년도 대입전형 설계의 구성 요인에 대한 설문 및 1차 자문 결과	29
가. 2028 대입전형 변화에 대한 예측	30
나. 학생부교과전형에 대한 설문 및 1차 자문 결과	31
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설문 및 1차 자문 결과	39
라. 수능위주전형에 대한 설문 및 1차 자문 결과	46
마. 기타 전형에 대한 설문 및 1차 자문 결과	48
2.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대입전형 개선안에 대한 2차 자문 결과	52
가. 학생부교과전형 개선안에 대한 2차 자문 결과	53
나.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안에 대한 2차 자문 결과	62
다. 수능위주전형 개선안에 대한 2차 자문 결과	65
라. 기타 전형 개선안에 대한 2차 자문 결과	67
IV. 결론 및 제언	70
1. 결론	70
2. 제언	74

표 목 차

<표 I-1> 인천대학교 대입전형 개선 관련 선행 연구의 시사점	1
<표 I-2> 연구 방법 및 절차	4
<표 II-1>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의 과목별 성적 산출 및 대학 제공 방식(교육부, 2023)	5
<표 II-2> 2008학년도 수능 개편 확정안(교육부, 2023)	6
<표 II-3> 9등급제와 5등급제에서 석차 분포 차이	7
<표 II-4> 2025대비 2028학년도 교과성적우수자전형 시뮬레이션 결과	8
<표 II-5> 교과성적우수자 전형 합격선 예측 자료(총 합계기준)	10
<표 II-6> 인천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 평가 요소 및 평가 내용	12
<표 II-7> 수도권 주요 대학의 대입전형 변화 동향	14
<표 II-8> 5등급제에서의 학생부교과 석차등급별 환산점수 예시	19
<표 II-9> 성균관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평가 영역 및 평가 요소	22
<표 II-10> 한성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의 학업역량 평가 요소	22
<표 II-11> 타대학 학생부종합전형 면접형, 서류형 이원화 개설 이후 학생 경쟁률 비교	23
<표 II-12> 2028 대입전형기본사항에서 제시한 표준 대입전형 체계	25
<표 II-13> 타대학 중단 연구에서 확인된 전형 유형별 학생 GPA	26
<표 II-14> 타대학 중단 연구에서 확인된 전형 유형별 학생 부적응 지표	26
<표 II-15> 2028 대입전형 설계의 구성 요인	28
<표 III-1> 설문조사 응답자 및 1차 자문 대상자의 특성	29
<표 III-2> 2028 대입개편에 따른 전형 변화 방향에 관한 설문 결과	30
<표 III-3> 2028학년도 5등급 체제하 변별력 확보 방안에 관한 설문 결과	31
<표 III-4> 학생부교과전형의 중요 평가 요소에 대한 입학사정관 의견	31
<표 III-5> 학생부교과전형 반영 교과에 관한 설문 결과	32
<표 III-6> 학생부교과전형의 변별력 확보를 위한 평가 요소에 관한 설문 결과	33
<표 III-7>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외에 활용 가능한 평가 요소에 대한 입학 사정관 의견	33
<표 III-8> 학생부교과전형 교과 반영 방법과 산출 방법의 적절성에 관한 설문 결과	34
<표 III-9> 학생부교과전형 교과 반영 방법과 산출 방법의 개선에 관한 설문 의견	34
<표 III-10> 학생부교과전형 교과 성적 산출 방법에 대한 입학사정관 의견	35
<표 III-11> 인천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설정에 관한 설문 결과	35
<표 III-12>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반영 방식에 관한 설문 의견	35
<표 III-13> 학생부교과전형 평가 방법 개선 방향에 관한 설문 결과	36
<표 III-14> 학생부교과전형 정량평가 요소별 우선순위에 관한 설문 결과	36

<표 III-15> 학생부교과전형의 보완적 평가 지표에 관한 설문 결과	37
<표 III-16> 학생부교과전형의 보완적 평가 지표에 대한 입학사정관 의견	38
<표 III-17>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성취평가 과목 활용 방안에 관한 설문 의견	38
<표 III-18>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요소에 관한 설문 결과	39
<표 III-19>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방향에 관한 설문 결과	39
<표 III-20>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방향에 관한 입학사정관 의견	40
<표 III-21> 학생부종합전형 정성평가 요소 및 평가 내용(학업역량, 진로역량, 발전역량, 공동체역량) 개선 방향에 관한 설문 결과	40
<표 III-22> 학생부종합전형 현행 유지에 대한 설문 의견	40
<표 III-23>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내용 상세화에 대한 설문 의견	41
<표 III-24>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내용 간소화 및 제외에 대한 설문 의견	41
<표 III-25>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개선 방향에 대한 입학사정관 의견	42
<표 III-26> 학생부종합전형 전공(계열)별 평가 시 중점 사항에 관한 설문 결과	42
<표 III-27> 학생부종합전형 정성평가 요소 및 평가 내용의 개선 방향에 대한 설문 의견	42
<표 III-28>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시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과영역 주요 평가 항목에 관한 설문 결과	43
<표 III-29> 지원 계열/전공 관련 권장 이수교과 지정 및 공개에 대한 설문 의견	43
<표 III-30> 학생부종합전형 이원화 선발에 대한 설문 의견	44
<표 III-31> 학생부종합전형 이원화 선발에 대한 입학사정관 의견	45
<표 III-32> 자유전공대학(자유전공학부)의 학생부종합전형 선발에 대한 설문 의견	45
<표 III-33> 수능위주전형 적정 비율에 관한 설문 결과	46
<표 III-34> 수능위주전형 수능 성적 반영 방식에 관한 설문 결과	46
<표 III-35> 수능위주전형 수능 성적 반영 방식에 관한 입학사정관 의견	47
<표 III-36> 수능위주전형 개선 방향에 대한 설문 결과	47
<표 III-37> 인천대학교 수능위주전형 수능 반영 방식 적절성에 대한 설문 결과	48
<표 III-38> 인천대학교 수능위주전형 수능 반영 방식 개선 방향에 관한 설문 의견	48
<표 III-39> 인천대학교 논술전형 도입에 대한 설문 결과	48
<표 III-40> 인천대학교 논술전형 도입에 대한 설문 의견	49
<표 III-41> 논술전형 도입 시, 출제 방식에 대한 설문 결과	49
<표 III-42> 논술전형 도입 시, 최저학력기준 설정에 대한 설문 결과	49
<표 III-43> 논술전형 도입 시, 전형 요소 및 전형 비율에 대한 설문 결과	50
<표 III-44> 인천대학교 논술전형 도입에 관한 입학사정관 의견	50
<표 IV-1> 2차 자문 대상자 특성	52
<표 IV-2>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 과목별 반영 비율(안)	53
<표 IV-3>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 과목별 반영 비율(안)에 대한 자문 결과 요약	53

<표 IV-4>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 교과목 반영(안)	54
<표 IV-5>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 교과목 반영(안)에 대한 자문 결과 요약	54
<표 IV-6>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 정량지표 반영(안)	55
<표 IV-7>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 정량지표 반영(안)에 대한 자문 결과 요약	55
<표 IV-8>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안)	56
<표 IV-9>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안)에 대한 자문 결과	56
<표 IV-10>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 추가 고려 평가요소(안)	57
<표 IV-11>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 추가 고려 평가요소(안)에 대한 자문 결과	58
<표 IV-12>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 출결점수표(안)	59
<표 IV-13>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 교과 성적 산출(안)	59
<표 IV-14>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 교과 성적 산출(안)에 대한 자문 결과	59
<표 IV-15>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 석차등급별 환산표(안)	60
<표 IV-16>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 석차등급별 환산표(안)에 대한 자문 결과	60
<표 IV-17>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변경(안)	62
<표 IV-18>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변경(안)에 대한 자문 결과	62
<표 IV-19>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및 평가내용 개선(안)	63
<표 IV-20>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 평가 비율 개선(안)	63
<표 IV-21>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 평가 비율 개선(안)에 대한 자문 결과	63
<표 IV-22>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방식 개선(안)	64
<표 IV-23>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방식 개선(안)에 대한 자문 결과	64
<표 IV-24>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수능위주전형 전형 평가 방식 개선(안)	65
<표 IV-25>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수능위주전형 전형 평가 방식 개선(안)에 대한 자문 결과	65
<표 IV-26>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수능위주전형 전형 점수 반영 개선(안)	66
<표 IV-27>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수능위주전형 전형 점수 반영 개선(안)에 대한 자문 결과	66
<표 IV-28>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논술 전형 도입(안)	67

<표 IV-29>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논술 전형 도입(안)에 대한 자문 결과	67
<표 IV-30>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논술 전형 운영(안)	69
<표 IV-31>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논술 전형 운영(안)에 대한 자문 결과	69
<표 V-1>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 세부 설계 방안	70
<표 V-2>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세부 설계 방안	72
<표 V-3>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수능위주전형 세부 설계 방안	72
<표 V-4>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기타 전형 설계 방안	73

부 록

<부록 1 > [2028 대입제도 개편 확정안에 따른 대입전형 개선 방향에 관한 설문]설문지 ...	77
<부록 2 >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전형 개선 연구」 1차 자문지	85
<부록 3 >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전형 개선 연구」 2차 자문지	99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배경

이 연구는 2028학년도 대학입학제도(이하 2028 대입제도) 개편 취지와 내용을 고려하여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대학입학전형(이하 2028 인천대 대입전형)의 구체적인 설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교육부는 2023년 12월 27일,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대입제도에 반영한 것으로 고교 내신 체제와 수능 과목 체계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로 인해 인천대학교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한 2027학년도까지 대입전형을 변화시켜야 하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인천대학교의 학생 선발 기조에 부합하는 학생들을 원활하게 선발하기 위한 대입전형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배경으로 인천대학교는 우신영 외(2023), 박주형 외(2024)를 통해 대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전형 개선 방안을 탐색해 왔다. 이상의 연구에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표 1-1> 인천대학교 대입전형 개선 관련 선행 연구의 시사점

구분	우신영 외(2023)	박주형 외(2024)
학생부교과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대학교 수시모집 학생부교과(교과성적 우수자전형, 지역균형전형)에서 경쟁률과 입학생의 교과 성적의 상관성을 확인 학생부교과(교과성적우수자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변화가 필요하며,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교학점제 및 5등급제 시행으로 등급 간 성취 차이가 줄어들어 지원자 간 점수 격차가 미미해지고, 동점자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완 방안의 필요성 제시 교과 이수 정도나 계열 특성을 반영해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석차등급 환산점수 구간을 세분화하여 구간별 배점 차이를 확대함으로써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형 설계 필요성 제시 성취도를 가산점 방식으로 반영하는 안은 일부 선택 과목(사회·과학 융합 과목 등)의 석차등급이 존재하지 않아, 과목 선택에 따라 학생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전형을 설계할 필요성 제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조정에 대한 고려 필요성 제시

구분	우신영 외(2023)	박주형 외(2024)
학생부종합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종합전형(자기추천전형)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인천대학교의 대표 전형으로 확인됨 ▪ 경쟁률 상승은 있었지만, 입학생의 교과 성적은 소폭 하락하는 것이 나타남 ▪ 다단계 전형인 학생부종합전형(자기추천전형)의 경우 면접 응시자의 합격률이 65%이고,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하여 1단계 합격배수 상향 또는 면접이 없는 서류 일괄 전형의 도입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 평가를 강화하여 면접 평가의 체제나 평가 내용 내실화 필요성 제시 ▪ 평가 요소의 세부 내용을 변별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여 변별력을 확보할 필요성 제시
수능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별 선택적 가감점 방식을 도입하여 경쟁률 지원유도가 필요 ▪ 계열 적합성을 전형에 적용하여 부적응에 의한 중도 이탈을 감소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능의 출제 범위가 줄어든 사회·과학 탐구 영역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영역별 성적 반영 비율의 조정 필요성 제시
기타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지역의 경우 학생부종합전형 등록률이 높으며, 경기 지역은 학생부교과전형 등록률이 높음 ▪ 서울 지역은 수능 위주 전형에서 지원자가 증가하고 등록도 수시에 비해 증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술전형 도입으로 경쟁 대학 대비 모집단위 지원율이 증가할 수 있으나 교육부의 축소 권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고려할 필요성 제시

이 연구는 위의 연구들에서 제시한 시사점을 고려하면서, 2028 대입전형에 관한 최근의 연구 결과, 인천대학교 및 주요 대학의 대입전형 변화 동향,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 후의 현장 교사 및 입학사정관의 대입전형에 관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8 인천대 대입전형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8학년도 대학입학제도에 따른 학교 내신 산정 방법 및 수학능력시험 체제의 변화가 대학입학전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둘째, 2028학년도 대학입학제도를 기반으로 할 때 인천대학교의 대학입학전형에서 학생 선발의 변별력과 학생 지원을 확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도출한다.

셋째, 2028학년도 대학입학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면서 인천대학교의 학생 선발 기조에 부합하는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위주전형, 기타 전형의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넷째,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대학입학전형 실시 이후 안정적인 전형 운영을 위해 해결해야 할 제도적 과제를 제시한다.

2. 연구 방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5년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으며, 대학별 세부 전형 계획은 2026년 4월 말까지 각 대학이 안내하는 것으로 방침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2028 대입전형을 설계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다.

첫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고, 정성평가가 강화되며, 상대적으로 정량 평가는 약화된다. 따라서 정량 지표 의존도가 높았던 2027 대입전형까지의 학생 선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나 전형 개선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는 부족한 상황이다.

둘째, 수능 과목 체계가 변화하면서 수능을 통한 학생의 학업 역량 변별력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는 수능위주전형 비율 조정이나 수능최저학력기준 설정과 같이 다른 대입전형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설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셋째, 대입전형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여러 대학에서 새로운 전형 설계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 현재도 정성적 평가 중심의 전형을 새롭게 도입하거나, 교과 성적에 대해 학생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원율을 높이려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2028 대입에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의 실질적 효용에 대해서는 검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제약 조건을 고려할 때 2028 인천대 대입전형을 설계하는 것은 안정적이면서도 새로워야 하는 일견 모순적인 과제의 성격을 갖는다. 여러 전형 개선 방향의 장단점을 견주어가며 인천대학교의 실상에 부합하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이 연구는 <표 1-2>의 방법과 절차로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인천대 대입전형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교육부에서 공표한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2028 대입전형 설계 관련 연구, 최근 2년간 인천대 대입전형 설계 기초, 최근 2년간 수도권 주요 대학 대입전형 변화 동향을 분석하여 2028 인천대 대입전형 설계를 위해 고려해야 할 핵심 요인들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현장 교사 및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 및 자문을 통해 해당 요인들을 고려한 대입전형 설계 방향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설문과 자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2028 인천대 대입전형 설계 방안 및 대입전형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표 1-2> 연구 방법 및 절차

방법	분석 내용
문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8학년도 대학입학제도 특징 ▪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중심 선행 연구 분석 ▪ 2026~2027년도 인천대학교 대학입학전형 변화 ▪ 2026~2027년도 수도권 주요 대학 대학입학전형 변화
↓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입 지도 경험 있는 현장 교사 대상 설문 조사 ▪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대학입학전형 설계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 및 전형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	
FG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 및 대입 지도 경험이 있는 교사 대상 자문 ▪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 타당화를 위한 1차 FGI, 설문 조사 결과에 바탕을 둔 대학입학전형 설계 방안에 관한 2차 FGI 수행하여 다각적 의견 수렴
↓	
자료 해석 및 결론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성적 순환을 통한 자료의 질적 특성 분석 ▪ 자료 분석에 기초한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대학입학전형 설계 방안 제시

II.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대입전형 설계의 기본 방향

1.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대입전형 설계의 배경 요인

가. 2028 대입제도 개편 확정안의 내용과 대입에의 영향

(1) 2028 대입제도 개편 확정안의 내용

2028 대입제도 개편 확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교 내신 체제 개편과 수능 과목 개편이다. 세부 내용은 <표 II-1>, <표 II-2>와 같다.

<표 II-1>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의 과목별 성적 산출 및 대학 제공 방식(교육부, 2023)

구 분	절대평가		상대평가		통계정보	
	원점수	성취도	석차등급	성취도별 분포 비율	과목평균	수강자수
보통교과	○	A·B·C·D·E	5등급	○	○	○
사회·과학 융합선택	○	A·B·C·D·E	-	○	○	○
체육·예술/ 과학탐구실험	-	A·B·C	-	-	-	-
교양	-	P	-	-	-	-
전문교과	○	A·B·C·D·E	5등급	○	○	○

*1등급(10%) - 2등급(24%, 누적34%) - 3등급(32%, 누적66%) - 4등급(24%, 누적90%) - 5등급(10%, 누적100%)

<표 11-2> 2008학년도 수능 개편 확정안(교육부, 2023)

영역	현행 (~2027 수능)	개편안 (2028 수능~)
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 + 2과목 중 택 1 공통 : 독서, 문학 선택 :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수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 + 3과목 중 택 1 공통 : 수학 I, 수학 II 선택 :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 (대수, 미적분 I, 확률과 통계)
영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 (영어 I, 영어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 (영어 I, 영어 II)
한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 (한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 (한국사)
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과목 중 최대 택 2 사회 : 9과목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과학 : 8과목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물리학 II, 화학 I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 : 공통 (통합사회) 과학 : 공통 (통합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과목 : 5과목 중 택 1 2과목 : 공통 + [1과목] 공통 : 성공적인 직업생활 선택 :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상업 경제, 수산·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 공통 (성공적인 직업생활)
제2외국어/한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9과목 중 택 1 제2외국어/한문 : 9과목 독일어 I, 프랑스어 I, 스페인어 I, 중국어 I, 일본어 I, 러시아어 I, 아랍어 I, 베트남어 I, 한문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9과목 중 택 1 제2외국어/한문 : 9과목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한문

* 음영 표기는 “절대평가” 적용 영역

2028 대입제도에서 고교 내신 체제는 절대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개편되었다. 2021년에 발표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 비해서는 석차 등급을 병기하는 과목의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석차 등급이 기존의 9등급 체제에서 5등급 체제로 간소화되었고, 학생부에 과목별 표준편차를 기재하지 않으며, 사회·과학 융합 선택과목에서는 석차 등급도 병기하지 않는다. 반면, 절대평가에 해당하는 성취도는 일부 과목을 제외하면 기존의 A~C 체제에서 A~E 체제로 세분화하였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제공한다.

수능 과목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통합형·융합형 체제로 변화되었다. 수능에서 선택 과목제 폐지를 통해 선택과목에 따른 대입 유틸리티 차이를 최소화하고, 공통과목 중심 및 교육과정 내 출제 기조를 확고히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2028 대입제도 개편 확정안이 대입에 미칠 영향

2028 대입제도 개편 확정안의 특성을 고려할 때 2027 대입전형 대비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과 같은 학생부 위주 전형은 기존의 9등급제 석차 등급이 5등급제 석차 등급으로 간소화됨에 따라 과목별 석차 등급을 활용한 학업 역량 변별력이 약화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체 이수자 수 300명 기준 석차 등급 9등급제와 5등급제의 누적 비율은 <표 II-3>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표 II-3> 9등급제와 5등급제에서 석차 분포 차이

9등급			5등급		
등급	등급 비율(%)	등급 석차	등급	등급 비율(%)	등급 석차
1	1~4	1~12	1	1~10	1~30
2	5~11	13~33			
3	12~23	34~69	2	11~34	31~102
4	24~40	70~120			
5	41~60	121~180	3	35~66	103~198
6	61~77	181~231			
7	78~89	232~267	4	67~90	199~270
8	90~96	268~288			
9	97~100	289~300	5	91~100	271~300

이 경우 5등급제에서 1등급은 기존의 1~2등급을, 2등급은 3~5등급을 포함하게 되어 최상위권과 상위권, 중상위권과 중위권 이하의 변별이 9등급제에 비해 어려워진다. 아울러 2028 대입에서는 학생부에 과목별 표준편차를 기재하지 않아 표준 점수를 활용한 학생의 실제 석차 추정이 어려운 점도 학생 변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물론 학과 규모나 선발 대상 학생의 학업 수준에 따라 그 영향의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조운형 외, 2025), 현재로서는 이를 세밀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석차 등급 평가의 변별력을 보완하는 방향에서 대입전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표 II-4>와 <표 II-5>는 인천대학교의 학생부교과 교과성적우수자전형에서 기존의 합격 학생들을 대상으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화되었을 때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II-4> 2025대비 2028학년도 교과성적우수자전형 시뮬레이션 결과

단과 대학	모집 단위	지원현황			2025성적				2028 시뮬레이션 성적				가산 점 평균
					지원 자	최초 합격 자	최종 등록 자	최종 등록 자	지원 자	최초 합격 자	최종 등록 자	최종 등록 자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경쟁 륜	평균	70% cut	평균	70% cut					
인문 대학	국어국문학과	4	45	11.25	3.74	2.84	2.94	3.13	2.30	1.76	1.77	1.83	5.03
	영어영문학과	9	87	9.67	3.58	2.41	2.68	2.90	2.12	1.56	1.60	1.60	4.94
	독어독문학과	5	66	13.20	4.01	3.11	3.21	3.23	2.39	1.85	1.84	1.91	4.89
	불어불문학과	5	66	13.20	3.66	2.95	3.10	3.24	2.18	1.70	1.74	-	4.66
	일본지역문화학과	4	58	14.50	3.90	2.66	2.99	3.24	2.47	1.57	-	-	4.00
	중어중국학과	9	111	12.33	3.61	2.79	3.08	3.25	2.16	1.75	1.86	1.89	4.61
자연 과학 대학	수학과	4	31	7.75	3.20	2.74	2.90	2.98	1.90	1.66	1.71	1.74	4.85
	물리학과	7	52	7.43	3.44	2.92	3.10	3.24	2.04	1.81	1.89	-	4.84
	화학과의	7	51	7.29	3.53	2.52	3.20	3.25	2.15	1.61	1.94	1.94	5.16
	패션산업학과	4	41	10.25	3.79	2.71	2.85	2.91	2.35	1.52	1.76	1.73	4.28
	해양학과	4	43	10.75	3.59	2.75	3.02	2.95	2.12	1.69	1.75	1.70	5.08
사회 과학 대학	사회복지학과	3	45	15.00	3.69	2.96	3.02	3.04	2.30	1.76	1.83	1.91	5.12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3	76	25.33	3.62	2.65	2.63	2.74	2.24	1.64	1.60	1.58	5.07
	문헌정보학과	3	31	10.33	3.73	2.73	3.27	3.17	2.31	1.67	1.93	1.88	4.83
	창의인재개발학과	3	47	15.67	4.16	3.05	3.05	3.03	2.47	1.75	1.75	1.71	4.55
글로벌 정경 대학	행정학과	4	72	18.00	3.77	2.78	2.95	2.96	2.30	1.67	1.82	1.71	5.05
	정치외교학과	3	26	8.67	4.07	2.77	3.33	3.42	2.44	1.52	2.04	2.04	4.55
	경제학과	13	115	8.85	3.61	2.50	2.91	2.99	2.14	1.54	1.78	1.88	4.90
	무역학부	20	211	10.55	3.65	2.72	2.81	2.96	2.19	1.63	1.72	1.85	4.64
	소비자학과	4	42	10.50	3.83	2.78	2.94	2.83	2.30	1.68	1.81	1.73	4.86

단과 대학	모집 단위		지원현황			2025성적				2028 시뮬레이션 성적				가산 점 평균
						지원 자	최초 합격 자	최종 등록 자	최종 등록 자	지원 자	최초 합격 자	최종 등록 자	최종 등록 자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경쟁 률	평균		70% cut	평균		70% cut			
공과 대학	기계공학과		20	283	14.15	3.37	2.73	2.95	3.05	1.98	1.68	1.76	1.93	4.98
	전기공학과		12	96	8.00	3.63	2.65	2.92	2.96	2.21	1.61	1.74	1.82	4.90
	전자공학부		19	167	8.79	3.21	2.45	2.64	2.80	1.94	1.55	1.65	1.49	4.79
	산업경영공학과		13	131	10.08	3.33	2.83	3.02	3.27	1.97	1.73	1.84	2.05	5.08
	신소재공학과		4	35	8.75	3.71	2.38	2.85	3.00	2.21	1.52	1.73	1.84	5.03
	안전공학과		4	45	11.25	3.55	2.87	3.10	3.12	2.11	1.72	1.84	1.93	5.28
	에너지화학공학과		5	54	10.80	3.09	2.30	2.66	2.74	1.85	1.48	1.58	-	4.82
정보 기술 대학	바이오-로봇시스템공학과		5	56	11.20	4.10	2.69	3.45	3.74	2.46	1.61	2.05	2.14	5.05
	컴퓨터공학부		18	118	6.56	3.66	2.41	2.69	2.82	2.19	1.54	1.67	1.58	4.93
	정보통신공학과		15	122	8.13	3.70	2.82	2.96	3.13	2.19	1.71	1.79	1.91	4.84
경영 대학	임베디드시스템 공학과		4	44	11.00	4.55	3.01	3.01	2.96	2.68	1.76	1.76	1.65	4.75
	경영학부		19	492	25.89	3.61	2.52	2.78	2.90	2.14	1.58	1.69	1.84	4.65
	데이터과학과		3	34	11.33	3.54	2.56	2.97	2.90	2.12	1.61	1.83	1.78	4.55
예술 체육 대학	세무회계학과		3	27	9.00	3.81	2.64	2.74	2.74	2.43	1.51	-	-	4.00
	디자인학부		10	87	8.70	3.50	2.45	2.70	2.74	2.15	1.61	1.67	-	4.52
사범 대학	국어교육과		3	29	9.67	3.46	2.29	2.87	2.85	2.11	1.59	1.61	1.53	4.92
	영어교육과		3	34	11.33	3.13	2.16	2.67	2.74	1.89	1.44	1.57	-	4.50
	일어교육과		3	28	9.33	3.95	2.73	4.04	4.24	2.40	1.75	2.29	-	4.57
	수학교육과		3	37	12.33	3.27	2.15	2.46	2.63	1.92	1.45	1.49	1.60	4.83
	유아교육과		4	207	51.75	4.54	2.84	3.04	3.24	2.72	1.81	1.94	-	4.20
	역사교육과		2	56	28.00	3.29	1.68	1.68	1.55	1.97	1.28	1.28	1.21	5.13
	윤리교육과		2	20	10.00	3.10	2.00	2.54	2.39	1.84	1.26	1.47	1.36	5.13
도시 과학 대학	도시행정학과		3	32	10.67	4.57	2.85	3.73	3.58	2.81	1.76	2.14	1.82	4.93
	도시 환경 공학 부	건설환경 공학전공	10	94	9.40	3.83	2.94	3.05	3.12	2.24	1.75	1.80	1.96	4.91
		환경공학 전공	5	50	10.00	3.44	2.68	2.87	3.00	2.06	1.69	1.79	1.81	5.10
	도시공학과		3	36	12.00	3.94	2.91	3.24	3.22	2.31	1.87	1.93	1.97	5.10
	도시건축학부 (도시건축학전공, 건축공학전공)		14	127	9.07	3.68	2.83	3.08	2.95	2.22	1.69	1.81	1.74	4.87
생명 과학 기술 대학	생명 과학 부	생명과학 전공	4	48	12.00	3.35	2.37	2.79	2.81	2.04	1.45	1.73	1.85	4.96
		분자의 생명전공	3	25	8.33	3.41	2.41	2.56	2.74	2.07	1.53	1.63	-	4.45

단과 대학	모집 단위		지원현황			2025성적				2028 시뮬레이션 성적				가산 점 평균
						지원 자	최초 합격 자	최종 등록 자	최종 등록 자	지원 자	최초 합격 자	최종 등록 자	최종 등록 자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경쟁 률	평균	70% cut	평균	70% cut		
생명 공학 부	생명공학 전공	6	158	26.33	3.57	2.43	2.52	2.60	2.09	1.53	1.50	1.49	5.08	
	나노바이오 공학전공	5	54	10.80	3.20	2.51	2.66	2.72	1.93	1.61	1.65	1.58	5.15	
융합 자유 전공 대학	자유전공학부(인문)		35	474	13.54	3.77	2.73	2.90	2.96	2.26	1.67	1.82	1.85	19.30
	자유전공학부(자연)		53	632	11.92	3.66	2.65	2.91	2.88	2.16	1.65	1.76	1.66	20.50
동북이국제통상물 류학부	동북이국제 통상전공	15	174	11.60	3.66	2.57	2.66	2.64	2.18	1.62	1.66	1.74	4.82	
법학부		11	113	10.27	3.35	2.67	2.77	2.73	2.03	1.62	1.72	1.73	4.74	
총합계		459	5,535	12.06	3.65	2.64	2.92	2.98	2.20	1.63	1.76	1.77		

<표 II-5> 교과성적우수자 전형 합격선 예측 자료(총 합계기준)

교과성적우수자 전형 (총 합계기준)		
학년도	최종등록자	70% cut
2024학년도	2.96	3.06
2023학년도	2.86	2.94
2025학년도	2.92	2.98
2028학년도 시뮬레이션 (평균)	1.71~1.77	1.75~1.82

시뮬레이션 결과 2028 인천대 교과성적우수자전형의 최종 합격선은 약 1.71~1.77등급으로 예상되며, 석차 등급 70% 구간은 1.75~1.82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까지 형성되던 합격선이 수치상 1등급 중후반으로 집중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정 학과에서는 학생의 학업 역량을 정교하게 변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천대 역사교육과의 경우 2025 교과성적우수자전형의 지원자 평균이 9등급제에서 3.29등급, 최종합격자 평균이 1.55등급인데, 이 경우 5등급제로 변환하면 지원자 평균이 1.97등급 최종합격자 평균이 1.21등급으로 편차가 확연히 줄어들게 된다. 이는 석차 등급을 활용한 선발권 학생 변별이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면 인천대학교의 선발 커트라인에 해당하는 5등급제에서의 1등급 중반부터 2등급 초반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부교과전형의 평가 타당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수능을 평가 지표로 활용하는 전형의 경우 현재로서는 그 실제적인 영향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수능에서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시험 범위가 줄어든 만큼 난이도가 낮아지고 변별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시험 과목 체계의 변화와 맞물려 새로운 유형의 문항이 출제되거나 모의고사 결과를 고려하여 특정 과목의 변별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출제가

되면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다른 맥락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능을 통한 대입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으므로 실제의 학교 현장에서는 수능에 출제되는 선택과목 중심으로만 교육과정이 운영되거나, 공통과목만 출제되는 사회나 과학의 경우 선택과목이 과행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수능위주전형은 학생부 중심 전형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다.

나. 2026~2027 인천대 대입전형의 기초

2026 인천대 대입전형의 경우 교육부에서 2023년 4월에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안)」에 따라 전체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는 변화가 있었고, 2019년 11월에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추진 로드맵에 따라 학생부를 활용한 전형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대폭 축소되는 변화가 있었다. 주요 전형별 변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학생부교과전형의 변화

인천대의 학생부교과전형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의 학교생활기록부 과목별 석차 등급 및 이수 단위를 정량적 활용 지표로 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수시 전형으로 ‘교과성적우수자전형’, ‘지역균형전형’, ‘사회통합전형’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사회통합전형’은 2024~2025학년도에는 학생부종합전형에 속해 있었으나 2026학년도부터는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유사한 환경의 학생 중에서 좀 더 학업 역량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부교과전형의 정원 내 전형별 모집 인원 및 모집 비율은 2026년에는 전체의 31.8%, 2027년에는 31.94%로 소폭 상승했다.

학생부교과전형은 계열별로 반영 교과와 반영 비율을 달리하고, 학업 역량을 교과별 석차 등급 환산 점수와 교과별 반영 비율, 반영 교과별 이수 과목 이수 단위를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계발하기 위해 지원한 계열 및 모집 단위에 적합한 선택 교과들을 충실히 이수하였는지, 보통 교과와 선택 교과에서 높은 석차 등급을 받았는지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평가 방식으로 볼 수 있다.

2026학년도에는 교과성적우수자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 중 사범대학의 ‘2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를 ‘2개 영역 등급 합 7 이내’로 낮추고, 계열별로 수능 반영 영역을 달리하던 것을 전 계열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탐구(상위 1과목)으로 통합하는 변화가 있었다. 2027학년도에는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수능 4개 영역에 모두 응시해야 했던 기존의 지원 조건을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최소 2개 이상의 영역에 응시해야 하는 조건으로 변경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능 점수의 전형 반영 비중을 완화하는 기초를 이어가고 있다.

(2) 학생부종합전형의 변화

인천대의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사항을 정성 지표로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수시 전형으로 ‘자기추천전형’, ‘기회균형전형’, ‘서해5도출신자전형’ (정원 외),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정원 외)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자기추천전형’과 ‘특수교육대상자전형’은 2단계에서 면접을 시행하고 있다. 2025학년도에는 학생부종합전형에 ‘사회통합전형’이 포함되었으나 2026학년도부터는 해당 전형을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변경하였고, 2027학년도에는 모집 인원이나 평가 방식에서 변경된 사항이 없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사항을 2명의 입학사정관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평가위원 간 점수 편차가 일정 점수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해당 모집 단위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평가위원이 재평가를 시행함으로써 평가의 타당도를 높이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2026~2027학년도 학생부 서류평가의 세부 평가 요소 및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6> 인천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 평가 요소 및 평가 내용

평가요소	배율	서류평가 평가내용
학업역량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기초학업역량 및 학업의 발전 정도 ▪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 ▪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진로역량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정도 ▪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 수준 ▪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경험 및 노력
발전역량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에 대한 대안적 해결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 ▪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과제나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고 해결하고자 한 노력 ▪ 자기주도적인 학업 노력
공동체역량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며 구성원들과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을 위해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 ▪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공동체의 기본 윤리와 원칙을 준수하는 태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을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천대학교의 서류평가 평가 요소 중 ‘학업역량’은 지식정보처리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을 포괄하며, ‘진로역량’은 자기관리 역량과, ‘발전역량’은 창의적 사고 역량과, ‘공동체 역량’은 의사소통 역량 및 공동체 역량과 연관성이 높아 전반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목표로 하는 역량을 평가 요소 및 평가 내용에 두루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천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면접고사는 ‘자기추천전형’과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전형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면접 위원 2인이 지원자 1인을 대상으로 10분 내외의 시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한편, 교육부에서 2019년 11월에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는 대입전형 자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정규 교육 과정 외의 활동 대입 반영 폐지, 자기소개서 단계적 폐지, 교사 추천서 폐지 등을 기조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을 축소하도록 하고 있다. 2024학년도부터는 기존의 고교 정보 블라인드 처리 조치에 더해 자기소개서 제출이 전면 폐지되고 학생부 비교과 영역에서 기재 가능한 요소들이 대폭 축소되며, 이는 2028 인천대 학생부종합전형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3) 수능위주전형의 변화

인천대의 수능위주전형은 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정량 지표로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수시전형으로 ‘일반학생전형’, ‘기회균형전형(정원 외)’, ‘농어촌학생전형(정원 외)’, ‘특성화고출신자 전형’ (정원 외)으로 나뉜다.

일반학생전형 중 ‘인문계열, 자연계열, 디자인학부’는 수능 점수만을 100% 반영하며, 체육교육과와 운동건강학부는 실기고사 점수를 일부 반영한다. 스포츠과학부의 경우 2024~2025학년도에는 수능전형 중 ‘일반학생전형’에 포함되었으나 2026학년도부터는 실기/실적위주 전형 중 ‘일반학생전형’으로 변경되었고, 2027학년도 전형에서는 다시 수능위주전형 중 ‘일반학생전형’으로 변경되었다.

인천대의 수능위주전형에서 수능 성적은 상대평가로 시행되는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의 백분위 점수와 절대평가로 시행되는 영어 영역의 등급을 활용하여 반영한다. 2024~2025년의 경우 자연계열은 탐구 영역 중 과학 선택과목만을 반영하였으나 2026학년도부터는 현행 문·이과 통합형 수능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연계열도 사회 및 과학탐구 영역 중 2개 과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다. 2026~2027 수도권 주요 대학의 대입전형 변화 동향

2028학년도 대입제도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인천대학교와 경쟁 관계에 있는 수도권 주요 대학도 2026~2027 대입전형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대학별 전형에서 특기할 만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7> 수도권 주요 대학의 대입전형 변화 동향

구분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위주전형	기타 전형	
가천대	2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50%, 면접 50% 최상위권 학과는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인성(40%), 진학의지 및 계열적합성(40%), 학업역량(20%)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전형 1은 (인문계열, 자연계열) 국어, 수학, 영어 중 우수한 영역 순으로 35%, 25%, 20% + 탐구(1과목) 20% 반영 일반전형 2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1과목) 중 우수한 영역 순으로 50%, 30%, 20%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술 100%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EBS 연계교재 활용 국어, 수학 과목 논술 	
	20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상위권 학과 제외 2가지 유형 중 유리한 방법 적용 ① 진로선택과목을 제외한 계열별 반영 교과 내 과목의 등급별 변환 등급 적용 ② 진로선택과목을 제외한 계열별 반영 교과내 우수한 10과목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전형 1, 일반전형 2는 국어, 수학 중 우수한 영역 순 40%, 30% + 영어, 탐구(1과목) 중 우수한 영역 순으로 20%, 10%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술전형 모집 단위 신설 (한 의 예 과, 약학과) 	
상명대	2026 ~ 20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학년 과목별 등급 및 이수 단위를 반영한 성적 산출 가) 과목별 석차등급 및 성취등급에 따른 환산점수 반영 나) 출결, 봉사 등 비교과 성적은 반영하지 않고, 학년별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음 다) 교과목 및 진로선택과목 성적 반영: 석차등급(9등급제)으로 평가된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체능 제외 서류 평가 100% 반영 학업역량(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35%, 진로역량(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자기주도성 및 실천 능력) 45%, 공동체 역량(성실성 및 협업태도) 20%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능 100% 인문, 자연계열별 영역별 반영 비율 다름 탐구 영역은 계열 상관없이 사회, 과학 중 1개 과목 20%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술 90%, 학생부 교과 10% 반영 국어, 수학 과목 약술형 논술

구분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위주전형	기타 전형
상명대	2026 ~ 2027	교과목 성적 반영, 성취등급(3등급제)으로 평가된 진로선택 과목 중 우수 최대 3과목 성적 반영			
세종대	2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교과 100% ▪ 공통·일반선택과목 80% + 진로선택과목 20% 반영 ▪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형과 면접형을 구분 ▪ 서류형은 서류 100%, 면접형은 1단계 서류 100%(4배수), 2단계 서류 60% + 면접 40% ▪ 학업역량, 진로역량, 창의융합역량, 공동체역량 평가 ▪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기 및 특수 학과 제외 수능 100% ▪ 계열별, 전형별 반영 비율 다름. 탐구 영역은 사회, 과학 모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전공학부, 인문계열, 자연계열 선발 ▪ 논술 70%, 학생부교과 30% ▪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 자유전공학부는 통합교과형 논술, 인문계열은 인문논술, 자연계열은 수리논술
	20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형 1단계 선발 인원 3배수로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술 80%, 학생부교과 20% ▪ 인문계열은 언어논술, 자연계열은 수리논술
인하대	2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교과 100% ▪ 반영방법: 석차등급의 환산점수, 반영과목 이수 단위를 고려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구분 ▪ 서류형은 서류 100%, 면접형은 1단계 서류 100%(3.5배수), 2단계 서류 70%, 면접 30% ▪ 공동체역량, 진로탐구역량(탐구역량), 진로탐구역량(진로관심) 평가 ▪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능 100% ▪ 계열, 모집 단위별로 반영 영역 및 비율 다름 ▪ 대부분의 모집단위에서 사회, 과학 탐구를 모두 반영하지만 계열에 따라 변환표준점수 기준으로 특정 탐구 과목에 가산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술 70%, 학생부교과 30% ▪ 의예과만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20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일반 선택, 진로선택과목 반영 ▪ 계열별로 반영 교과 다름 ▪ 인문계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 자연계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 자유전공융합학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 예체능: 학과에 따라 국어, 영어, 사회만 반영 또는 국어, 수학, 영어만 반영 ▪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술 80%, 교과 20%

구분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위주전형	기타 전형
서울 과학 기술대	2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교과 100% ▪ 석차등급, 성취도(진로선택과목), 이수 단위 활용 ▪ 계열별로 반영 교과 다름 ▪ 인문계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 / 자연계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서류 100%(3배수), 2단계 서류 70%, 면접 30% ▪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 평가 ▪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능 100% ▪ 모집 단위별 영역별 반영 비율 다름. 탐구 영역은 사회, 과학, 직업탐구 구분 없이 2과목 반영하되 계열별로 특정 탐구 영역에 가산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술 70%, 서류 70% ▪ 제시문과 함께 주어지는 문항에 답하는 형식 ▪ ST자유전공학부 중 자연계열만 선발
	20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술전형 모집 인원 소폭 축소

수도권 소재 주요 대학의 최근 대입전형 변화 동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진로 선택과목에 대해 원점수만 반영하거나, 성취도를 정량 점수로 환산해서 반영하거나, 상위 N개 과목만 선택하여 반영하거나, 성적에 반영하지 않는 등 다양한 접근법이 시도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학생부교과전형은 상대평가를 통해 산출된 정량 지표를 중시하지만, 절대평가를 통해 산출된 지표를 일부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부종합전형은 서류형과 면접형을 나누어 운영하거나, 면접형만 운영하는 양상을 살필 수 있었다. 면접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그 비율은 20%에서 50%까지 다양했다. 추후 인천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정성평가 요소가 강화된다면 학생부교과전형을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누는 방안,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합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수능위주전형은 현재로서는 평가 항목 면에서 두드러지는 변화는 없었다. 다만 일부 대학에서 성적 우수 과목을 선택하게 하는 방식을 도입하거나 수능 성적과 학생부 평가를 혼합하는 경우, 2단계 면접을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수능 변별력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계열별로 과목별 반영 비율을 달리하고 있었으며 탐구 영역은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모두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계열에 따라 특정 탐구 영역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도 찾을 수 있었다. 학생 선발의 중점을 계열별 전공 적합성에 둘 것인지, 통합적인 학업 역량에 둘 것인지에 따라 다양한 조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논술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에서는 논술 100%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논술 성적과 교과 성적을 혼합하여 평가하더라도 논술평가 비중을 소폭 높이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교과 성적을 혼합했다가 다시 논술 100% 평가로 전환한 학교도 있었다. 현재의 대입 기조에서 논술전형이 권장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학생 지원을 확보와 자유전공 학생 선발을 위한 현실적인 수요가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 경우 논술 성적 평가와 교과 성적 평가를 혼합하는 시도 보다는 논술 성적 평가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좀 더 전형 설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

지만, 학생부에서 성실도를 추가로 보는 학교도 있는 만큼 논술전형으로 선발한 학생들의 학교 적응도, 인천대학교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 전형 평가와 관리에서의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대입전형 설계의 구성 요인

가. 학생부교과전형 설계의 구성 요인

학생부교과전형은 진로나 수능에서의 강점보다는 내신에서의 학업 충실도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목적으로 설계된다. 아울러 정성평가가 더욱 강조되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비해서는 정량 지표 중심의 평가를 하는 까닭에 전형 효율성이 높고, 기존의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입장에서 어느 정도 선발 가능성이 예측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현장에서도 안정적으로 대입을 지도할 수 있게 하는 전형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2028 대입제도를 대비한 학생부교과전형 설계에서는 우선 5등급 석차 등급 체제에 맞는 정량 지표 산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인천대학교의 경우 기존의 9등급 체제에서는 2~3등급에 속하는 학생들이 주 선발 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 5등급 석차 등급 체제에서는 2등급부터 4등급 학생까지 같은 등급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수준차를 변별하기 위한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 요인들이 주로 고려되고 있다.

첫 번째 요인은 정량 지표의 정교화이다. 대표적으로 5등급 석차 등급을 좀 더 세분화할 수 있도록 등급 환산 점수 부여 방식을 조정하거나 정량 지표를 추가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 인천대학교에서 9등급제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교과 석차등급별 환산점수표는 9등급을 0.5 등급 구간으로 나누어서 구간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5등급제에서는 이러한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구간별 가산점 차이를 조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표 II-8>은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선발 대상 학생이 가장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1.6~2.0등급)을 세분화한 환산 점수표의 사례이다. 이와 더불어 대학 입장에서 정밀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량 지표가 줄어든 상황이므로 선발권 학생의 경우 동점자 발생 빈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 경우 동점자 순위를 정리하기 위한 기준을 상세화하는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표 II-8> 5등급제에서의 학생부교과 석차등급별 환산점수 예시

학생부교과 석차등급별 환산점수표			
23~25학년도 석차등급 구간	28학년도 석차등급 구간(가안)	28학년도 등급구간 별 편차	학생부교과 (교과성적우수자· 지역균형)
1.00 ~ 1.49	1.00 ~ 1.09	0.1	350.00
1.50 ~ 1.99	1.10 ~ 1.19	0.1	349.00
2.00 ~ 2.24	1.20 ~ 1.29	0.1	347.00
2.25 ~ 2.49	1.30 ~ 1.39	0.1	345.00
2.50 ~ 2.74	1.40 ~ 1.49	0.1	343.00
2.75 ~ 2.99	1.50 ~ 1.59	0.1	341.00
3.00 ~ 3.24	1.60 ~ 1.69	0.1	338.00
3.25 ~ 3.49	1.70 ~ 1.79	0.1	335.00
3.50 ~ 3.74	1.80 ~ 1.89	0.1	332.00
3.75 ~ 3.99	1.90 ~ 1.99	0.1	329.00
4.00 ~ 4.24	2.00 ~ 2.19	0.2	325.00
4.25 ~ 4.49	2.20 ~ 2.39	0.2	321.00
4.50 ~ 4.74	2.40 ~ 2.59	0.2	317.00
4.75 ~ 4.99	2.60 ~ 2.79	0.2	313.00
5.00 ~ 5.49	2.80 ~ 2.99	0.2	307.00
5.50 ~ 5.99	3.00 ~ 3.49	0.5	300.00
6.00 ~ 6.99	3.50 ~ 3.99	0.5	280.00
7.00 ~ 7.99	4.00 ~ 4.49	0.5	250.00
8.00 ~ 9.00	4.50 ~ 5.00	-	200.00

현재 인천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은 계열별 반영 교과 이수 학점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계열 적합성과 같은 정성적 평가 요소를 일부 정량화하여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가 석차 등급 중심의 정량 평가 약화 경향을 보완하기에 충분치 않다면 원점수, 석차 등급, 이수자 수 등을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 또한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정량 지표를 늘릴수록 지원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본인의 합격 가능성을 직관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게 되어 학생 지원을 하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두 번째 요인은 정성평가의 부분 도입이다. 정량 지표만으로 평가 타당도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정성 지표를 정량화하는 방식을 활용하거나 학생부종합전형과 유사한 방식의 정성평가를 부분 도입하는 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학년도 대입 제도는 전반적으로 학생의 학업 역량을 정성적인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목에 따라 성취도와 성취 등급이 병기되는 경우와 성취도만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성취 등급의 변별력 부족을 성취도나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점수로 환산하여 보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취도 분포 비율에 10%씩 급간을 설정하여 가점을 부여하되 하위 성취도(D, E)의 경우 가점 없이 기본 배점만을 부여하는 방식이나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5등급제의 정규분포로 변환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고주환 외, 2025)도 제안된 바 있다. 그밖에 학생의 학업 성실도나 진로 적합성을 볼 수 있는 출결 상태나 교과목 선택에 따른 가산점 부여도 고려할 수 있다.

정성평가를 부분 도입하는 방안으로는 기존 학생부교과전형의 정량 평가를 유지하되 비중을 80% 정도로 낮추고, 나머지 20%를 교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초점을 맞춘 서류 정성평가 또는 면접으로 보완하는 방안(이정림 외, 2025)이 논의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정성평가 비중을 높일수록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의 차이가 불분명해지는 만큼 두 전형의 선발 원칙을 명확히 구분하거나, 점진적으로 두 전형을 통합하는 방향에서의 전형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세 번째 요인은 정량 평가 대상 과목을 조정하는 것이다. 진로 선택과목과 융합 선택과목의 경우 공통과목과 같은 방식의 정량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데 이를 고려하여 평가 대상 과목을 제한하거나 지원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전체 교과 과목을 모두 반영하는 방안, 계열별 주요 과목만 반영하는 방안, 계열 상관없이 상위 N개 과목을 반영하는 방안, 선택과목 전체를 포괄하는 방안, 석차 등급이 표시되지 않는 융합 선택과목을 제외하는 방안, 진로 선택과목과 융합 선택과목은 전공 적합성이나 성취도가 우수하거나 교과 이수 단위의 합이 높은 N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

한편, 진로 선택과목의 상위 N개 과목만 반영하는 방안의 경우 학교별 성적 부풀리기에 따른 왜곡 정도를 줄일 수 있고 지원 학생의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학업 성실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진로 적합성을 형식적으로만 고려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반면, 진로 선택과목의 성취도를 전부 반영하게 되면 학교별 성적 부풀리기에 따른 왜곡 정도가 커질 수 있고, 일부 진로 선택과목에서 B나 C 등급을 받은 학생은 지원을 기피하게 되어 학생 지원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른 맥락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석차 등급 병기와 같은 정량 평가 표시 방식이 유지됨에 따라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에서 학생의 진로 적합성이 아니라 높은 등급을 얻기 유리한 과목 중심의 선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는 학생부교과전형 평가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 여부에 대한 계열별 전공 적합성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반영할 것인지 여부가 고교 교육의 정상화와 맞물려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관련하여 계열별 권장 이수 과목을 사전에 제시하고 그 이수 정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김영록 외, 2024)도 논의된 바 있다.

네 번째 요인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이다. 학생부 중심의 정량 평가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고 현행보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학업 역량을 변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체 과목의 수능최저학력기준 상향, 모집 단위별 주요 과목의 수능최저학력기준 상향, 학과별 수능최저학력기준 자율 조정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첫 수능이 2028학년도에 치러지게 되므로 수능의 변별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기존의 사례를 바탕으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나. 학생부종합전형 설계의 구성 요인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두는 전형으로 2028 대입제도에서 전반적으로 정량 평가가 약화되고, 고교학점제에 따라 학생의 주도적인 과목 선택 및 진로 개발 과정이 중시되면서 여러 대학에서 그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전형이다.

2028 대입제도 대비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과목 이수 상황에 대한 정성평가 비중이나 평가 요소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면접 평가의 비중 조정, 정성평가 요소의 상세화나 간소화, 정성평가 방식의 타당도 제고, 비교과 활동의 평가 방식 등이 주요 구성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적극 반영한다는 점에서 고교 현장의 정상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형이다. 그러나 그간의 전형 운영과 관련하여 합격과 불합격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교 현장에서의 대입 예측 가능성이 낮은 전형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물론 이 문제는 대학의 관점에서는 선발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시 선발 결과에 대한 시비에 휘말리거나 맞춤형 학생부 양산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장의 대입 지도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정성평가의 기준이나 요소가 지나치게 모호하거나 협소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다면 대입제도 변화를 계기로 그 이유에 대해 검토하고 기준 및 요소 조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활용하는 평가 요소들은 진로역량, 학업역량, 공동체역량을 기본으로 하여 각 대학의 인재 선발 원칙에 따라 조정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를테면, 인천대학교의 경우 학생의 창의성, 문제해결력, 자기주도성을 평가하는 영역으로 ‘발전역량’을 넣고, 평가 비율도 학업역량 30%, 진로역량 30%, 발전역량 20%, 공동체역량 20%를 활용하고 있다.

참고할 만한 사례로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전공적합성의 의미를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학문을 탐구해 나갈 수 있는 역량으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등 평가 요소와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표 II-9>와 같다. 한성대학교의 경우 <표 II-10>과 같이 각

역량별 평가 요소와 평가 내용을 더욱 세분화한 접근이 특징적이다.

<표 II-9> 성균관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평가 영역 및 평가 요소

평가영역	평가 요소	평가 내용
학업역량	학업수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과목 학업성취도 및 학업우수성 일반/진로선택과목 이수현황 및 성취 수준 학년/학기별 성적 안정성
	학업충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년/학기별 성적 추이 및 학업 의지 학년/학기별 학업 관련 활동 내용 학업활동의 적극적 참여 및 자세
탐구역량	탐구확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심 분야에 대한 집중력 및 탐구력 관심 분야에 대한 지적 호기심 활동 내용의 발전성 및 유의미성
	탐구주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전적인 선택과목 이수 현황 선택 교과목의 강점 및 우수성
잠재역량	성장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도적 학교 활동 참여 진취적 리더십 발휘 경험 창의적 문제해결 및 역경 극복 의지
	공동체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시민의식 및 이타성 협업 및 소통 능력 성실성 및 규칙준수

<표 II-10> 한성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의 학업역량 평가 요소

평가영역	평가 요소	평가 내용
학업역량	학업성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취 수준이나 학업 발전의 정도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교과목(예: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등)의 교과 성적은 적절한가? 그 외 교과목(예: 예술·체육, 기술·가정/정보, 제2외국어/한문, 교양 등)의 교과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가? 학기별/학년별 성적의 추이는 어떠한가?
	학업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 성취동기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학습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수업 내용을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정이 있는가?
	탐구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교과와 각종 탐구활동 등을 통해 지식을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교과와 각종 탐구활동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가? 교내 활동에서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이 드러나고 있는가?

물론 평가 영역과 요소를 세분화하는 것이 곧바로 평가의 타당도를 높여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나치게 많은 평가 요소들이 실제의 정성평가 과정이나 학생의 대입 준비 과정에서 혼란을 키울 수 있고, 학생의 지원 과정에서의 심리적 진입 장벽 또한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발전 가능성’ 과 같은 평가 요소가 그 세분화 과정에서 다른 평가 요소와 명확하게 변별되지 않아 통합되거나 삭제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 또한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과 함께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면서 전공 적합성에 대한 세밀한 판단이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교과 이수 내역에 초점을 맞추거나 계열별 또는 모집 단위별 권장 이수 과목을 제시하는 방안(이규민 외, 2025)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고등학교의 교육 환경 차이를 고려해야 하며 자칫하면 권장 이수 과목 개설이 용이한 자사고나 특목고에만 유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과목 이수 여부 평가보다는 과목 이수의 충실성과 학생의 진로 계발과의 연관성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방안이 권장된다.

다른 맥락에서 자유전공학부와 같은 무전공 입학이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너무 일관되고 체계적인 진로 탐색만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지 않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관성 있는 전공 탐색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 또한 각각의 활동이 내실 있게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에 맞게 계열별, 전공별 진로 계발에 좀 더 초점을 두고 학생을 선발할 것인지에 따라 전형 설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요인에 면접 평가까지 모두 고려할 때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 쓰여야 할 시간과 비용이 상승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대학의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평가 기간, 인력,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형 효율성을 높이는 시도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을 면접형, 서류형 평가로 이원화하는 방식이 있다. 아울러 학생부종합전형의 이원화는 면접 평가를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의 지원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상승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표 II-11>는 학생부종합전형을 면접형과 이원화로 개설한 대학들이 대체로 개설 이후 학생 지원율이 상승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II-11> 타대학 학생부종합전형 면접형, 서류형 이원화 개설 이후 학생 경쟁률 비교

개설 년도	대학교명	개설전 학년도 경쟁률 (Y-1)	개설학 년도 경 쟁률(Y)	Y+1	Y+2	Y+3	Y+4	Y+5	Y+6	경쟁률 비교
2022	명지대학교	9.4:1	11.9:1	9.1:1	15.5:1	15.1:1	17.0:1			Y+1이후 상승 유지
2020	숙명여자 대학교	9.9:1	13.9:1	13.0:1	15.1:1	15.9:1	15.1:1	13.9:1	13.4:1	Y+1이후 상승 유지, 2025학년도 다시 일원화
2021	한국의국어 대학교	8.1:1	7.7:1	9.1:1	11.2:1	10.1:1	10.3:1			Y+2이후 상승 및 유지
2023	서울시립 대학교	15.1:1	17.7:1	23.4:1	20.8:1	20.3:1				Y+1이후 상승 유지
2023	서울여자 대학교	11.4:1	20.0:1	17.3:1	16.3:1	15.5:1				Y+1 상승, Y+2->Y+3 하락 중

개설 년도	대학교명	개설전 학년도 경쟁률 (Y-1)	개설학 년도 경쟁률(Y)	Y+1	Y+2	Y+3	Y+4	Y+5	Y+6	경쟁률 비교
2024	가톨릭대학교	13.7:1	20.7:1	24.0:1	18.1:1					Y+2 까지 상승, Y+3 하락
2024	단국대학교	12.2:1	13.2:1	12.9:1	12.9:1					변화 없음
2024	세종대학교	8.8:1	13.4:1	12.2:1	13.2:1					Y+1이후 상승 유지
2025	한양대학교 (서울)	15.6:1	19.0:1	19.9:1						Y+1이후 상승 유지
2025	한양대학교 (ERICA)	20.8:1	22.0:1	17.3:1						Y+1 상승, Y+2 하락
2026	이화여자 대학교	8.1:1	10.1:1							Y+1 상승

그러나 이 경우 학생부교과전형과의 전형 차별화 문제, 성적 부풀리기나 과대 포장된 학생부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서류만으로 변별할 것인지 그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다. 수능위주전형 설계의 구성 요인

정시로 운영되는 수능위주전형은 인천대학교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능 점수 100%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능 출제 난이도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쉬운 수능 기조가 공론화되면서 수능 점수를 학생부교과 성적이나 면접 등으로 보완하여 평가하는 경향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2028 수능의 학업 역량 변별력이 어느 정도일지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출제 범위가 줄어들었고, 자연계열의 경우 상위권 변별의 지표가 되는 심화 수학 범위가 빠졌으며 과학탐구 또한 공통과목에서 출제된다는 점을 전형 설계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수능위주전형 설계의 주요 구성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수능위주전형의 비율 조정에 관한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30% 내외의 학생들을 수능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고 인천대학교 또한 30% 선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강조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통과목 범위에서 출제되는 수능의 교육적 위상은 약화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부 중심 전형의 불투명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능과 같은 국가표준형 지필고사가 더욱 공정한 대입전형이라는 인식이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팽배한 상황이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당장 수능위주전형의 선발 비율을 크게 바꿀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대입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담론의 추이를 고려하여 그 비중에 대한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전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계열별, 전공별 수능 과목 반영 비율에 관한 것이다. 2028 수능은 선택 과목제를 폐지하고,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1학년 필수 과목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출제한다. 이는 계열별 전공적합성보다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기초를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인문계열은 국어나 사회탐구, 자연계열은 수학이나 과학탐구의 반영 비율을 높이거나 가산점을 주는 기존의 평가 방식이 실효성이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생 지원의 편의만을 고려한다면 계열과 전공 무관하게 전체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이 용이할 것이고, 전체 영역의 점수 중 상위 N개만 반영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출제 범위가 대폭 축소된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의 변별력이 특히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요 과목 중 상대평가 과목인 국어와 수학의 평가 비중을 늘리는 접근도 가능할 것이다.

셋째, 수능 점수와 학생부교과 점수의 혼합 여부에 관한 것이다. 이는 두 번째 요인과 연동된 것으로 수능만으로 계열별 전공 적합성을 판별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학생부에 기재된 특정 과목 이수 여부나 정도, 석차 등급이나 성취도에 일정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활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수학 및 과학 역량이 중요한 자연계열 대학에서는 심화 수학 과목에 해당하는 미적분Ⅱ와 기하 과목 이수 여부 등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정성평가 요소의 도입 여부에 관한 것이다. 수능 점수와 학생부교과의 정량 지표를 혼합한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실제 석차나 융합 선택과목의 석차 등급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생의 학업 역량을 엄밀하게 변별하기는 어렵다. 이를 고려하여 수능 전형에서도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같은 항목에서의 성취를 정성적으로 평가하거나, 면접 평가를 통해 학생의 실제 학업 역량을 확인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실상 수시 전형에 가까운 형태가 되어 학생의 지원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라. 기타 전형 설계의 구성 요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는 “대입전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전형 요소 위주로 표준화된 대입전형 체계 내에서 대입전형 간소화를 추진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5: 4)이라고 하며, 표준 대입전형 체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11-12> 2028 대입전형기본사항에서 제시한 표준 대입전형 체계

전형유형	주요 전형요소
학생부위주	- (학생부교과) 교과 중심 - (학생부종합) 교과, 비교과
논술위주	- 논술 등
실기/실적위주	- 실기 등
수능위주	- 수능 등

아울러 “대학별고사(논술고사 등)는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대학별고사보다는 학교 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대다수의 학생이 준비하는 전형요소 중심으로 시행하도록 권장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5: 31)이라고 하여 논술전형 설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인천대학교와 같이 현재 논술전형을 운영하지 않는 국립대학교에서 2028 대입에 논술전형을 신설하거나 기타의 새로운 전형을 설계하는 데 제도적 부담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다. 논술전형의 경우 그 운영 과정에서 출제 및 평가를 위한 체제 구축, 부정행위나 출제 오류 방지를 위한 관리 노력 등 선발 효율성의 관점에서 재고할 여지가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논술전형으로 선발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지 여부 또한 숙고할 필요가 있다. 대학별로 수행된 전형 유형별 입학생 대상의 중단 연구 결과(박수미 외, 2024; 오은주 외, 2024; 임연규 외, 2024; 정낙원 외, 2024; 안양준 외, 2025; 염상길 외, 2025)를 비교하면 논술전형으로 선발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GPA)가 다른 전형보다 낮으며, 부적응 지표도 대체로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표 II-13> 타대학 중단 연구에서 확인된 전형 유형별 학생 GPA

대학명	학업성취도(GPA)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논술	수능위주
가톨릭대학교	3.65	3.63	3.19	3.30
건국대학교	3.63	3.53	3.15	3.52
광운대학교	86.01	84.34	83.03	82.75
단국대학교	3.6	3.66	3.35	3.57
서울여자대학교	3.95	3.97	3.87	3.79
성신여자대학교	3.61	3.56	3.29	3.30

<표 II-14> 타대학 중단 연구에서 확인된 전형 유형별 학생 부적응 지표

대학명	기준	부적응 지표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논술	수능 위주	기타
가톨릭대학교	2020~2024학년도 전형별 제적률 평균	5.49	8.77	6.15	16.56	
건국대학교	2024학년도 학사경고율	2.9	5.4	9.4	13.9	
광운대학교	자퇴생 수-비율 (18~23 1458명 중 비율(%))	11.4	7.3	4.7	62.8	
단국대학교	자퇴생 수 (21~24 517명 중 비율(%))	15.7	7.4	4.8	60.5	11.6
서울여자대학교	입학인원 대비 중도탈락비율	9.9	28.6	14.7	30.1	
성신여자대학교	입학인원 대비 중도탈락비율	7.37	8.49	6.44	14.37	

그러나 이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같이 수도권의 국립대학교를 포함하여 주요 대학들이 논술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점, 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충원 부담, 지원을 확보를 통해 학교 인지도 제고, 자유전공학부와 같이 창의적이거나 비판적인 학업 역량을 갖춘 학생 모집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할 때 논술전형을 신설할 현실적 필요성이나 또한 존재한다. 아울러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고등학교 현장에서 서·논술형 평가가 확대되고, 수능 또한 서·논술형 평가를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만큼 논술전형의 교육적 의의 또한 재평가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여 논술전형을 신설한다고 할 때 그 설계의 구성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논술전형의 평가 요소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논술 100%로 선발하는 방안, 학생부 교과 성적을 혼합하는 방안, 학생부비교과 지표를 혼합하는 방안, 면접을 추가하는 방안,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는 방안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논술전형 자체가 학생부 중심 평가보다 학생의 창의적 능력 평가에 좀 더 초점을 두고 다양한 학생에게 대학 입학의 기회를 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부를 혼합하거나 면접 평가로 추가하여 학생들의 지원이나 준비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다른 맥락에서 학교생활에 있어 최소한의 성실성이나 전공 적합성을 고려하지 않은 학생 선발이 교육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또한 검토가 필요한 과제이다. 장기적인 대학 발전 과정에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선발한 학생들이 전공 적응도나 학교생활 성실도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논술전형의 평가 방식에 관한 것이다.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는 “논술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하여 학생 스스로 논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5: 31)이라고 하여 학생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에서의 평가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논술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에서도 EBS 연계교재를 활용하여 국어, 수학 과목만 평가하는 방안(가천대), 본문 또는 지문에서 필요한 내용을 발췌해 단답형, 단문형 답안을 작성하는 약술형 논술을 치르는 방안(상명대) 등을 통해 학생 지원 접근성을 높이는 전형도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인문계열은 언어논술, 자연계열은 수리논술 중심의 통합적 사고를 묻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논술전형의 본질적 문제인 특목고나 자사고에 유리한 전형, 사교육을 조장하는 전형이라는 비판에서 온전히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셋째, 논술전형의 선발 비율 및 모집 단위에 관한 것이다. 현재 논술전형은 수시 전형에서 선발하는 만큼 해당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생부교과전형이나 학생부종합전형의 선발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 현재의 인천대학교 전형 체제(전형 내 전형은 학생부교과 3개 전형, 학생부종합 2개 전형)를 유지하는 선에서 논술전형에 인원을 할당하게 되면 각 전형별 선발 인원수가 축소되어 학생 지원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논술전형 신설 시 학생부교과와 학생부종합을 통합하거나 학생부교과전형 내에서 교과성적우수자전형과 지역균형전형을 통합하는 등의 인원 배분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논술전형 모집 단위를 전체 계열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과 특정 모집 단위로 한정하여 선발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논술전형 모집 비중이 높다면 모집 계열의 범위도 확대될 것이고, 논술전형 모집 비중이 높지 않다면 자유전공학부와 같은 특정 모집 단위에 국한하여 선발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단, 후자의 경우 선발 인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상황에서 논술전형 운영에 따른 출제, 채점, 운영 등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실리적으로 의의가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인천대학교 2028학년도 대입전형 설계의 구성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15> 2028 대입전형 설계의 구성 요인

전형	현행	학생 지원 접근성 중심	학생 변별력 강화 중심
학생부교과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열별 반영 교과, 반영 비율 다름 교과별 석차 등급 환산 점수, 교과별 반영 비율, 반영 교과별 이수 과목 이수 단위 활용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수능 응시 영역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 선택과목, 융합 선택과목은 제외하거나 이수 정도만 반영 석차 등급 환산 점수 부여 구간 유지 진로 선택과목, 융합 선택과목 중 우수 과목 N개만 반영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과목 성적 정량화하여 반영 계열별 전공 적합도가 높은 과목에 가산점 부여 석차 등급 환산 점수 부여 구간 정교화 정량 지표 추가(원점수,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 비율, 이수자 수 등) 정성평가 및 비교과 영역 평가 강화 2단계 면접 평가 추가 수능최저학력기준 강화
학생부종합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업역량, 진로역량 발전역량, 공동체역량 평가 2단계 면접 평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접 평가 비중 축소 서류형, 면접형 이원화 계열별 전공적합성 평가 요소 완화 평가 요소 간소화(발전 역량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접 평가 비중 확대 평가 요소 상세화 모집단위별 권장 이수 과목 제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도입
수능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 수능 점수 100% 반영 사회, 과학탐구 중 2개 과목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열별 중시 과목의 평가 비율이나 가산점 차이 축소 계열 상관없이 상위 N개 과목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열별 중시 과목의 평가 비율이나 가산점 차이 확대 주요 과목 평가 비율 확대 학생부교과 평가와 혼합(특정 과목 이수 여부나 성적 등) 2단계 서류 평가나 면접 평가 추가
기타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술 100% 평가 전체 모집 단위 대상 선발 단답형, 단문형 답안 작성 중심의 기본 사고력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술과 학생부교과, 면접, 수능최저학력기준 혼합 평가 제한된 모집 단위 대상 선발 제시문 해석과 논리적 서술 중심의 통합적 사고력 평가

Ⅲ.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대입전형 개선을 위한 자료 조사

1. 2028학년도 대입 전형 설계의 구성 요인에 대한 설문 및 1차 자문 결과

Ⅱ장에서 도출한 대입전형 설계의 구성 요인을 중심으로 하여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인천대학교 대입전형 설계를 위한 유의미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인천대학교에 지원율이 높은 수도권 및 지역 고교 교사들로 선정하였다. 응답자의 교육 경력, 대입 지도 경력, 고교 유형 등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표 Ⅲ-1> 설문조사 응답자 및 1차 자문 대상자의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교육경력	5년 이하	7	3.7
	6~15년	65	34.0
	16~25년	73	38.2
	26년 이상	46	24.1
	합계	191	100
대입 지도 경력	3년 이하	31	16.2
	4~6년	37	19.4
	7~9년	39	20.4
	10년 이상	84	44.0
	합계	191	100
소속 기관 소재지	서울	2	1.0
	경기	62	32.5
	인천	71	37.2
	기타	56	29.3
	합계	191	100
소속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178	93.2
	자율형 사립고	1	0.5
	특목고(과고/외고/국제고)	10	5.3
	특목고(마이스터고/예고/체고)	1	0.5
	특성화고	1	0.5
	합계	191	100

구분		빈도(명)	비율(%)
담당 교과	국어	36	18.8
	수학	42	22.0
	영어	24	12.6
	사회/역사	14	7.3
	과학	32	16.2
	기타	43	23.1
	합계	191	100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실시 및 연구자의 결과 분석 후에는 해당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대입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입학사정관 2인(수도권 소재 국립대 입학사정관 1인, 사립대 입학사정관 1인)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조회를 시행하였다. 이후 연구자의 설문조사 분석 결과와 입학사정관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비교하여 2028 인 천대 대입전형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사점을 구체화하였다.

가. 2028학년도 대입전형 변화에 대한 예측

<표 III-2> 2028 대입개편에 따른 전형 변화 방향에 관한 설문 결과

구분	내용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수능 위주	논술확대	실기/실적
2028 대입개편에 따라 대입전형 변화 방향	매우 확대	7	40	24	17	7
	확대	48	101	68	70	32
	현행 유지	64	42	55	85	143
	축소	65	7	42	16	9
	매우 축소	8	2	3	4	1
	합계	192	192	192	192	192

2028 대입 제도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대입전형의 개편 방향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교사들은 2028 대입 개편에 따라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는 상대적으로 정성평가가 강조되는 학생부종합전형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학생부 위주 전형 자체의 변별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기 때문에 수능 위주 전형의 확대나 논술전형의 확대 등에 대한 의견도 비중 있게 제시되었고, 실기 위주 전형의 경우 대체로 2028 대입 제도 개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나. 학생부교과전형에 대한 설문 및 1차 자문 결과

<표 III-3> 2028학년도 5등급 체제하 변별력 확보 방안에 관한 설문 결과

구분	내용	N	%
학생부교과전형의 공정성과 변별력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	석차등급의 환산점수 구간 세분화	63	33.0
	성취도(A~E)를 활용한 평가 보완	23	12.0
	과목 이수 세부 정보(원점수, 과목 평균, 이수자 수)를 활용한 평가 보완	66	34.6
	교과 이수 현황 및 과목 선택의 적절성을 활용한 평가 보완	34	17.8
	기타	5	2.6
	합계	191	100

학생부교과전형에서의 관건은 2028 대입에서 정량 지표를 통한 석차 변별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공정한 방법으로 실제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으면서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들을 추가로 보완하는 방식이 효율적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지표에 따라서는 학교별 성적 부풀리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등 실제 학생의 학업 역량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결과 현장 교사들은 2028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학생 선발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목 이수 세부 정보를 활용하거나 석차 등급의 환산 점수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보완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으로 보았다. 학생부교과전형의 관건은 학업 역량에 대한 양적 평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성취도나 과목 선택 여부와 같이 정성적 평가 결과를 정량화하는 것은 학교별로 다를 수 있는 교육 여건과 평가 철학 등을 면밀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적은 의견이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입학사정관들 또한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해 학생부교과전형의 목적을 고려한 지표 선정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III-4> 학생부교과전형의 중요 평가 요소에 대한 입학사정관 의견

구분	내용
입학사정관 A	(...) 변별력을 고려하여 세부 석차 등급 환산 구간을 세분화하는 것은 학생들의 상대적 위치를 보다 뚜렷한 구별을 위함으로서의 상대적 위치를 보다 강화한다는 기능적 측면의 효과가 있으나 이외에 <u>고려할 요소가 더 많아질수록 공정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교과 전형으로서의 전형 목적이 상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u> 많은 요소가 추가 되기보다는 석차 등급 환산 구간의 세분화 또는 과목 이수 세부 내용이 추가 요소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입학사정관 B	(...) 대학 입장에서 볼 때, 5등급 체제하에서 학생부교과전형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균형잡힌 평가 방법 마련'이라고 생각함. 하지만 <u>기존 예측 가능성이 높은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으로서의 교과전형을 유지하기 위해 정성평가 방법 및 비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u> 생각되며, 대학 입장에서 이를 운영하기 위한 추가 인력 투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낮은 경쟁률을 보일 교과전형에 과연 사정관을 투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다고 생각됨. (...)

<표 III-5> 학생부교과전형 반영 교과에 관한 설문 결과

구분	내용	N	%
진로선택과목 또는	상위 N개 과목 성적만 반영하여 학생 부담 완화	39	20.4
	모든 이수 과목의 성취도 및 석차등급을 통합하여 반영	62	32.5
융합선택과목	진로 연계성을 고려한 특정 과목 이수에 가산점 부여	46	24.1
반영 시 가장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을 바탕으로 한 정성평가 도입	44	23.0
효과적인 방법	기타	0	0
	합계	191	100

학생부교과전형에서의 진로 선택과목과 융합 선택과목은 학생들의 고교학점제 시행과 맞물려 학교별로 다양하게 교과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회와 과학 융합 선택과목은 5등급 석차 등급이 병기되지 않으므로 해당 과목을 평가 대상으로 포함하는 경우 과목별 이수 여부,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 비율,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같은 지표를 중심으로 한 보완적인 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정량 평가를 통한 성적 변별을 중시한다면 성취도로만 평가되는 사회와 과학 융합 선택과목을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제외하거나 그 영향을 줄일 필요가 있겠으나,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에 이수하는 공통과목의 중요도가 커져 학업 역량의 발달 과정을 반영하기 힘들고, 학업에서의 주도성이나 진로 적합성을 강조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 현장 교사들에게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석차 등급으로 인한 학생 변별이 어려운 진로 선택과목이나 융합 선택과목이 확대되더라도 모든 이수 과목의 성취도 및 석차 등급을 통합하여 반영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는 의견이 약간 우세했다. 이는 인천대학교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최대한 고려하는 방향에서 학생을 선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로 읽을 수 있지만 그 외에도 진로 연계성을 고려한 특정 과목 이수에 가산점 부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을 바탕으로 한 정성평가 도입, 상위 N개 과목 성적만 반영하여 학생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각각 20% 이상씩, 총 67.5%의 선호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는 기계적인 평가보다는 수용보다는 학업 역량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좀 더 우세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 III-6> 2학생부교과전형의 변별력 확보를 위한 평가 요소에 관한 설문 결과

구분	내용	N	%
학생부교과전형에서 공정성과 변별력 확보를 위해 수능최저학력기준 외에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평가 요소	출결 현황	51	26.7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성평가 활용	52	27.2
	지원 계열/전공 관련 교과 이수, 성취도, 석차등급, 원점수, 분포비율 등 가능한 지표 병합 활용	73	38.2
	상위 N개 과목의 성취도, 석차 등급, 원점수, 성취도 분포 비율 환산 점수	13	6.8
	기타	2	1.1
	합계	191	100

과거의 대입 제도에서 수능은 학생의 학업 역량을 변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었 고, 대입에서의 공정성이 문제가 될 때마다 수능 전형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28 대입제도에서 수능 과목 체제가 변화함에 따라 수능의 변별력이 어느 정도로 작용 할지는 불분명하게 된 상태이다.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지나치게 수능 변별력이 높으면 수능최 저학력기준을 채우지 못해 탈락하는 학생이 속출할 수 있고, 변별력이 낮으면 학업 역량이 충 분치 않은 학생들이 전형을 통과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 외의 평가 요소 또한 고민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 현장 교사들은 2028학년도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학생 선발의 공정성과 변별력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능최저학력기준 외에 정량화가 용이한 지표들을 혼합하는 방 안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출결과 같은 단순 비교과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경우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성평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경우도 비중 있게 제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가 요소를 너무 복잡하게 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선발 예측력을 낮추거나, 학교 현 장에서의 교육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데 따른 거부감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입학사정관의 경우 기본적으로 현장 교사와 마찬가지로 정량화가 용이한 지표들을 혼합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하였고 출결 현황을 평가 지표로 활용하는 것 또한 의미 있는 방 안으로 보았으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성 평가 요소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평가 목적에 대한 관점 차이에 따라 의견이 다르게 나타났다.

<표 III-7>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외에 활용 가능한 평가 요소에 대한 입학사정관 의견

구분	내용
입학사정관 A	지원 계열에 대한 특정 과목에 대한 지표를 과도하게 설정을 한다면, 본래 학생부 교과전형 선발의 취지를 지키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출결 현황을 반영하는 방법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학생부 정성평가는 이미 학생부종합전형이 있는 상황에서 중복적인 평가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
입학사정관 B	교사들 역시 교과전형이 단순 점수 중심의 정량평가로는 공정성과 변별력 확보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설문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설문 결과,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지원 계열/전공 관련 교과 이수, 성취도, 석차등급, 원점수, 분포비율 등 가능한 지표 병합 활용'

	은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5등급 체제에서는 고교간/교과간 수준차와 선택 다양성이 커진 상황에서 대학이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안이라고 생각됨. 또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성평가 활용’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됨. (...) 출결 항목은 최근 많은 고교 교사들의 반영 요구가 있는 항목이란 점에서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일정 비율 감점 요소로서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
--	---

<표 III-8> 학생부교과전형 교과 반영 방법과 산출 방법의 적절성에 관한 설문 결과

구분	내용	N	%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려 교과반영 방법과 산출 방법의 적절성	매우 적절하다	33	17.3
	적절하다	87	45.5
	보통이다	46	24.1
	적절하지 않다	24	12.6
	매우 적절하지 않다	1	0.5
	합계	191	100

<표 III-9> 학생부교과전형 교과 반영 방법과 산출 방법의 개선에 관한 설문 의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과학 교과목의 이수 과목 수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함. 좋은 내신 성적을 받기 위해 과학 과목 대신 사회 과목을 선택하고 자연계열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많아져 과학 위주로 공부한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음. ▪ 고교학점제에서 선택 과목의 수강 학생들의 인원 수와 어떤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수강했는지에 따라 등급이 많이 변화하기에 단순히 등급만으로 평가하는 방식에서 다양한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인문이나 자연계열 선택 과목에도 사회나 과학이 일부분은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는 본인의 진로와 무관한 과목에는 전혀 무관한 태도를 보이는데 그것은 균형적인 학업 발전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과학, 사회 과목 반영 시 몇 과목 이상은 반드시 이수 등의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다. ▪ 가중치를 두는 것도 좋지만 탐구 과목이 통합형으로 수능에서 개편되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 반영과목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인문, 자연 계열 과목 반영은 적당하나 비율은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열별로 주요 과목의 평가 비중을 달리하는 2026 인천대 학생부교과전형의 평가 방향은 2028 대입에도 적절할 것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62.8%에 달했다. 그러나 <표 III-9>와 같이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항목에서는 변화된 교육과정 및 대입제도에서 진로 선택이나 융합 선택과목에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도 다수 제시되었다.

특히, 현재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생부교과전형에 사회와 과학 과목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이 자연계열 학생들이 사회 선택과목을 이수하는 등 전공적합성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과목을 다수 이수하여 높은 성적을 받은 학생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견해, 반대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 수능의 통합형·융합형 교육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회와 과학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 모두 나름의 타당성이 있는 만큼 인재 선발의 기초를

계열별 전공적합성에 둘 것인지, 아니면 변화된 교육과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는 데 둘 것인지를 숙의하여 전형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입학사정관의 경우도 계열별 전공적합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가산점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교육과정 취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영어 과목 평가 비율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뉘는 양상이 나타났다.

<표 III-10> 학생부교과전형 교과 성적 산출 방법에 대한 입학사정관 의견

구분	내용
입학사정관 A	(...) 가산점에 있어서 특정 반영 과목에 대한 선택적 반영이나 차등적 비율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8학년도에는 많은 학생이 고교 과정에서 선택 과목을 다수 이수하거나, 일부는 전략적으로 일반과목 이수를 줄여서 전체 등급을 올리는 지원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형 목적을 지키면서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산점이라는 장치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입학사정관 B	‘적절하다 이상’이 62.8%로 대부분 교사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부정적 의견도 37.2%라고 생각됨. (...)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 이후 실제 고교에서 영어 교과 이수 단위는 매우 적은 상황에서 이수한 과목 대비 반영 비율이 30%인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됨. (...)

<표 III-11> 인천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설정에 관한 설문 결과

구분	내용	N	%
인천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절성	매우 적절하다	60	31.5
	적절하다	74	38.7
	보통이다	47	24.6
	적절하지 않다	9	4.7
	매우 적절하지 않다	1	0.5
	합계	191	100

<표 III-12>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반영 방식에 관한 설문 의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능에 포함되는 내용 자체가 쉬워서 학력 수준이 예전처럼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상대평가 등급제가 유지되는 한 상대적인 학생의 위치는 변하지 않으므로 최저 기준 반영에 대한 큰 변경이 필요하지는 않아 보인다. ▪ 현재는 적절한 편이며 2028 수능의 난이도에 따라 조절할 필요가 있다. ▪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화하는 만큼, 수능최저학력기준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여 학교 공부를 성실하게 이행한 학생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수학의 경우 문이과 통합의 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몰라 달리 적용하는 게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6 인천대 학생부교과전형은 전반적으로 수능최저학력기준 반영 정도를 완화하고 문이과 통합형 수능에 적합한 방향으로 전형을 설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설계 취지를 고려하여 현장 교사의 70% 이상은 이와 같은 기준이 2028학년도 대입에도 적절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보통’이라고 답변한 의견도 24.6% 있었다는 것은 2028 수능의 변별력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학생부 중심 평가에 대한 불신이 반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수능 최저학력기준에 대한 세부 의견도 <표 III-12>와 같이 ‘현행 유지’, ‘관망 후 조정’, ‘상향 필요’, ‘하향 필요’, ‘특정 과목 세부 조정’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 III-13> 학생부교과전형 평가 방법 개선 방향에 관한 설문 결과

구분	내용	N	%
인천대학교의 학생부교과전형은 변화 방향	변화없음(교과정량 100%)	28	14.7
	교과정량 + 정성(30% 미만)	113	59.2
	교과정량 + 정성(30% 초과)	36	18.8
	교과전형을 종합전형으로 통합	11	5.8
	기타	3	1.5
	합계	191	100

현장 교사들은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정성평가 요소를 추가 도입하는 방향에 대해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14.7%)보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83.8%)이 다수였다. 다만 정성평가 반영 비율에서는 30% 미만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60%에 가깝게 선호되었고, 학생부교과전형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통합하는 안을 선호하는 의견은 5.8%에 그쳐서, 전반적으로는 교사들에게는 학생부교과전형의 취지를 유지하는 선에서 정성 평가 요소를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안이 선호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14> 학생부교과전형 정량평가 요소별 우선순위에 관한 설문 결과

구분	내용	석차등급	성취도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별 분포비율
인천대학교 학생부교과 전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표 (우선순위순)	1순위	154	14	13	4	6
	2순위	16	90	44	15	26
	3순위	10	38	57	39	47
	4순위	4	25	38	82	42
	5순위	7	24	39	51	70
	합계	191	191	191	191	191

<표 III-15> 학생부교과전형의 보완적 평가 지표에 관한 설문 결과

구분	내용	출결 사항	교과목 선택 및 교과 이수 현황	교과 성적 추이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 활동	교내 봉사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생부교과 전형에서 정량평가보 완을 위해 고려할 지표	1순위	46	61	14	61	3	0	6
	2순위	17	62	33	54	10	3	12
	3순위	28	27	47	43	22	2	22
	4순위	32	24	39	18	38	8	32
	5순위	30	9	21	11	54	20	46
	합계	153	183	154	187	127	33	118

학생부교과전형의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정량 평가 반영 요소를 확대하거나 정성평가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중 정량 평가 반영 요소 중 현장 교사들에게 가장 선호된 것은 석차 등급(1, 2순위 비율 44.5%)과 성취도(1, 2순위 비율 27.2%)였고, 가장 선호도가 낮았던 것은 과목 평균(4, 5순위 비율 34.8%)과 성취도별 분포 비율(29.3%)이었다. 이는 교사들이 대학 전형에 직관적으로 학생의 상대적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선호하며, 수업 자체의 수준이나 다른 학생들의 수준과 같이 학습 여건에 관련된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은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성평가 반영 요소 중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것은 교과목 선택 및 교과 이수 현황과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었다. 반면 가장 선호도가 낮았던 것은 창의적 체험 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교내 봉사활동 순이었는데 창의적 체험 활동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학업 역량보다는 진로나 인성 등의 역량을 확인하는 데 더 적합한 영역이라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교내 봉사활동의 경우 현재는 학생의 자율적인 봉사활동 내용은 포함할 수 없는 등 학생의 품성에 대한 참고 자료 이상의 의미가 없어 5순위 안에 거의 들지 못하였다.

입학사정관의 경우 위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교과목 선택 및 교과 이수 현황, 출결과 같은 정성 지표를 추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그 외의 정성 지표는 학생 변별이나 경쟁률 증가 측면에서 효용이 적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표 III-16> 학생부교과전형의 보완적 평가 지표에 대한 입학사정관 의견

구분	내용
입학사정관 A	2028학년도 대입제도에서 최상위권 대학을 제외하고, 학생부교과전형에서 내신 5등급제로 변화되었다고 해서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하지만, 위에서의 설문 문항과 같이 정성적 요소를 추가한다면, 1순위 응답과 같이 교과목 선택 및 교과 이수 현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두 번째는 출결 사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입학사정관 B	(...) 1순위 응답으로 '세특'(61명)과 '교과 이수 현황'(61명)이 가장 많이 선택된 점은, 정량 위주 전형이더라도 학생의 과목 선택 이유, 학습 태도 및 지적 호기심 등을 드러내는 정성 평가 요소들이 변별력 확보의 핵심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반면 '출결'은 모든 순위에서 적지 않은 선택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인 교과전형에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됨. (...) 학생부교과전형 특성상 충원율이 200% 이상인 낮은 경쟁률을 보이는 전형 특성상, 기존 학종 방식의 종합 정성평가를 실시할 경우 대학의 평가 부담은 늘면서, 경쟁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됨.

<표 III-17>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성취평가 과목 활용 방안에 관한 설문 의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학생의 역량과 다양한 학습 경험을 반영하는 점에서, 성취평가 과목의 가산점 외에도 추가적인 역량 지표나 포트폴리오 평가 같은 다변화된 평가 요소를 교과전형 산출에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중장기적 방침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가산점 반영 방식처럼 모든 과목이 상대평가됨에 따라 과학이나 수학의 어려운 과목을 포기하고 비교적 공부하기 편한 교과를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 이수 단위를 가산점으로 반영하는 대학은 인천대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진로 희망 계열 관련한 과목의 이수 단위를 반영하는 평가방식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 석차등급 활용은 괜찮아 보이며, 진로선택과목의 경우 이수 단위보다는 성취도별 가중치는 어떻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진로 선택이나 융합 선택과목과 같이 성취도 중심 과목의 평가 방식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의견 중에는 성적 유불리에 따른 과목 선택보다는 진로 적합성이나 학업 수준의 심화에 초점을 맞춘 평가가 적합하다는 의견들이 눈에 띄었다. 다만 구체적인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평가 요소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 의견부터 현행의 이수 단위 가산점 부여 방식을 옹호하거나, 성취도별 가산점 부여 방식을 제안하는 등 해결 방향은 다양했다. 이 부분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 1세대인 현재 고등학교 1학년들이 2학년이 되어 진로 선택과목과 융합 선택과목을 실제로 이수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방향성이 좀 더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설문 및 1차 자문 결과

<표 III-18>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요소에 관한 설문 결과

구분	내용	N	%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려, 가장 적합한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요소 구성	서류 100%	9	4.7
	서류 + 면접(30% 미만)	54	28.3
	서류 + 면접(30%)	88	46.1
	서류 + 면접(30% 초과)	39	20.4
	기타	1	0.5
	합계	191	100

현장 교사들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서류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보다 면접과 같이 학생의 실태를 좀 더 면밀히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 방안을 대부분 선호하였다. 면접의 반영 비율은 현재 인천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활용하는 30%가 적절할 것으로 보았으나 30% 미만과 30% 초과 의견도 상당 부분 있어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현장 전문가들의 기대가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19>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방향에 관한 설문 결과

구분	내용	N	%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려,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방향은	정성평가 요소의 기술 상세화	79	41.4
	다른 대학 대비 정성평가 요소의 차별화	20	10.5
	정성평가 방식의 사례 공개	74	38.7
	교과와 비교과 평가의 평가 요소 이원화	18	9.4
	기타	0	0
	합계	191	100

현장 교사들은 고교 정상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정성평가 요소의 기술 상세화(41.4%)와 정성평가 방식의 사례 공개(38.7%)를 선호하였다. 두 방안 모두 학교 현장에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접근이 자칫 인천대학교 맞춤형 학생부를 양산하는 반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위의 방안이 고교 정상화에 갖는 의의는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입학사정관 또한 교사들이 선호하는 방안이 반드시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방안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동시에 현장과의 다각적인 연계를 통해 고교 현장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지도에 따른 부담을 줄여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표 III-20>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방향에 관한 입학사정관 의견

구분	내용
입학사정관 A	(...) 교사들의 답변은 마치 수능의 답안지를 분석하여 문제의 패턴화와 유형을 습득하듯이 학생부종합전형의 정성적 평가의 패턴화와 유형을 분석하려고 접근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총체적 평가로서의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는 정성적 평가 요소의 기술 상세화나 사례 공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앞서 설명했듯이 평가 결과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피드백이 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학사정관 B	(...) 학종 평가요소별 구체적 기준과 평가 사례를 모의평가나 가이드북을 통해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 교사-입학사정관 학습공동체 등을 통해 평가 요소별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정성 평가 기준을 공동으로 확립하고 이를 공개한다면 고교 현장에서 학생 지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됨.

<표 III-21> 학생부종합전형 정성평가 요소 및 평가 내용(학업역량, 진로역량, 발전역량, 공동체역량) 개선 방향에 관한 설문 결과

구분	내용	N	%
2028 학생부종합 정성평가 요소 및 평가 내용의 개선방향	현행 유지	99	51.8
	평가 내용 상세화	54	28.3
	평가 내용 간소화	20	10.5
	일부 평가요소 제외	17	8.9
	새로운 평가요소 추가	1	0.5
	역량 명칭 변경	0	0
	합계	191	100

<표 III-22> 학생부종합전형 현행 유지에 대한 설문 의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평가항목들이 정성평가의 방향성에 잘 부합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발전역량은 타 학교에는 없는 역량인데 차별화로 여겨질 수 있어 좋아 보였습니다. ▪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은 학생주도성입니다. 발전역량 평가 요소를 통해 학생의 주도성을 면밀히 평가할 수 있어서 현행 유지했으면 합니다. ▪ 딱히 명칭을 변경하거나 다른 방안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현행도 충분히 종합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판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지식 및 진로와 관련하여 역량 평가를 반영한 발전가능성을 통해 인천대에 맞는 학생 선발 가능. ▪ 변화가 너무 크면 혼란이 있을 테니, 첫 해는 현행 유지가 맞을 것 같다. ▪ 학생들이 이 평가 요소를 보고 준비를 해 오기 때문에 현행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교사들은 학업역량, 진로역량, 발전역량, 공동체역량으로 구성된 현행 인천대 학생부종합전형의 정성평가 요소 및 평가 내용을 적절하다고 보는 견해가 50% 이상이었다. 이 경우 <표 III-22>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발전역량’ 과 같이 인천대학교의 차별화된 인재 선발 철학이 반영된 부분이 좀 더 학생들의 종합적인 역량을 평가하기에 긍정적인 인상을 준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거나, 학생들의 준비를 원활히 하는 측면에서 현행 유지가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점 또한 유념할 필요가 있다.

<표 III-23>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내용 상세화에 대한 설문 의견

내용

- 아이들이 저런 평가 내용을 보더라도 정확히 와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시(물론 예시를 보여주면 거기에만 몰입되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지만) 나 조금 더 상세한 평가 내용을 제시한다면 학생들이 학종을 준비하기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모든 학교의 평가 기준이 기본적으로 추상적이라 평가 사례 등을 통해서라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의지와 노력 같은 부분을 무엇을 통해 확인하고 평가하는지 알 수 없다.
- 창의성을 요구한다면 구체적인 사례가 무엇인지 고지가 필요합니다.

<표 III-24>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내용 간소화 및 제외에 대한 설문 의견

내용

- 진로 역량이랑 발전 역량을 통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타 대학들도 합쳐서 평가 중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이 적어질 것 같습니다.
- 대부분 대학들이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그 내용과 방향이 달라 복잡해 보인다.
- 발전 역량이라는 것이 매우 모호한 기준이라 생각되어짐.
- 발전가능성의 경우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평가 점수에 영향을 받는 항목으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에 포함되는 항목이기에 제외시켜도 된다고 생각함.
- 발전역량을 빼서 진로역량이나 공동체 역량에 포함해도 될 것으로 생각함.

한편, <표 III-2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평가 내용 상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정성평가 요소의 기술을 상세화하거나 정성평가 방식의 사례를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궤를 같이하여 학생들의 대입 준비에서 용이성을 드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표 III-24>와 같이 평가 내용 간소화나 일부 평가 요소 제외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다른 대학의 평가 방식과의 일치도를 문제 삼는 경우가 많았는데 발전역량과 같이 인천대학교의 차별화된 평가 요소가 모호하다거나 진로역량과 변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로 제시되었다.

입학사정관의 경우 ‘현행 유지’ 외에 교사들이 두 번째로 선호한 평가 내용 세분화보다는 세 번째로 선호한 평가 내용 간소화 쪽을 좀 더 눈여겨보아야 할 의견으로 간주하였다. 이는 평가 내용 세분화를 통해 대입 준비에서 용이성을 높여 주는 것이 자칫 학생의 실질적 능력보다는 학생부 기술의 적합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평가가 이루어지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다른 맥락에서 평가 내용 세분화가 평가 기준 적용의 일관성이나 타당성을 높이는 데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표 III-25>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개선 방향에 대한 입학사정관 의견

구분	내용
입학사정관 A	(...) 평가 내용의 세분화는 교사들이 작성하는 학생부 내용을 단순화시키거나 균일화 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러한 학생부로 선발할 경우 결과적으로 지원자들이 대학 선발에 있어 각종 이의 제기와 부정적인 인식으로 여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교 생활에 충실하고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부종합전형 목적을 뒤로 하고 오직 대입에서 유리하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학생부 기록에만 초점이 모인다면, 고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평가 요소를 간소화하여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과 같이 3가지 요소로 여러 대학이 사용하고 있는 평가 요소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입학사정관 B	응답자의 절반 이상(51.8%)이 '현행 유지'를 선택하였고, 28.3%가 '평가 내용 상세화' 선택함. 이는 교사들이 현재 인천대 학생부종합전형 4개 평가 요소(학업역량, 진로역량, 발전역량, 공동체역량) 자체에는 큰 문제를 느끼지 않지만, 구체적 평가 기준 및 해석의 일관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됨. (...) 기타 의견에서 많은 교사들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학생부 기재 항목이 줄어든 상황에서 발전역량은 주관적인 평가요소로 학생부를 통해 확인이 어려운 항목이라고 생각됨. (...)

<표 III-26> 학생부종합전형 전공(계열)별 평가 시 중점 사항에 관한 설문 결과

구분	내용	N	%
2028 학생부종합 전공(계열) 중점 평가 요소	전공(계열)의 관심, 흥미 등 지적호기심	36	18.8
	전공(계열) 연계성 과목 선택 이수 및 성취 수준	100	52.4
	전공(계열)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 참여	24	12.6
	전공(계열)과 관련된 활동 참여나 심화 독서 등 차별화된 활동 내용	29	15.2
	기타	2	1.0
	합계	191	100

<표 III-27> 학생부종합전형 정성평가 요소 및 평가 내용의 개선 방향에 대한 설문 의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계열) 연계성 과목의 선택 이수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자연계열을 희망하는 학생 중 사회탐구가 공부하기 쉬워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해 내신 등급을 높이려는 사례가 많기 때문 ▪ 학종으로 뽑을거라면, 얼마나 적극적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서. 3번에 체크함. 하지만 학생의 활동에 비해 교사가 생기부를 너무 잘 써주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 활동의 진정성을 면접으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사들의 생기부 기록이 신뢰스러울 수 있도록 과대 포장 분위기를 없애야 함. 교사 스스로가 망치고 있음.

전공 적합성 평가와 관련하여 현장 교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전공이나 계열과 연계된 과목의 이수 및 성취 수준이었다. 여기에는 <표 III-27>의 견해와 같이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자연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취도를 얻기에 유리한 사회탐구 과목을 다수 선택하는 사례들을 변별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였다. 학생의 지적 호기심이나 관심도와 관련된 기술이나 차별화된 활동 내용에 대한 기술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대입을 목적으로 학생부 내용을 너무 긍정적으로만 기술해주는 현장의 평가 관행에 대한 불신도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III-28>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시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과영역 주요 평가 항목에 관한 설문 결과

구분	내용	N	%
2028 학생부종합 비교과영역 중점 평가 항목	동아리활동	51	26.7
	봉사활동	3	1.6
	진로활동	76	39.8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56	29.3
	기타	5	2.6
	합계	191	100

<표 III-29> 지원 계열/전공 관련 권장 이수교과 지정 및 공개에 대한 설문 의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는 이미 과목선택이 마무리 되고 반 편성을 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이제 이수교과를 공개하고 있는 것은 학교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수교과를 지정하는 것은 학생의 선택권을 중요시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학생들은 고1때부터 진로를 정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대입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권장 이수교과의 지정도 필요하지만 일부 소규모 학교는 권장 과목의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권장 과목이 권장한다는 의미를 갖고, 필수 의미는 아니지만 필요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듣지 못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 있는 학생이라면 큰 불이익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 과목 선택을 제한한다는 측면이 있으나, 이미 다른 학교들에서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대도 공개하는 것이 지원자들이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것으로 생각함. ▪ 동의한다.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편의를 위한 교과를 개설하는 것보다 대학에서 요구하며 실제 자신의 관심사나 역량과 관련된 교과를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2024학년도부터 학생부종합전형에 기존의 고교 정보 블라인드 처리 조치에 더해 자기소개서 제출이 전면 폐지되고 학생부 비교과 영역에서 기재 가능한 요소들이 대폭 축소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교육과정에서의 정성평가 강화 기조를 고려할 때 비교과 영역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중시될 필요가 있으며, 현장 교사들은 학생의 진로 적합성이나 학업 역량, 인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진로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동아리 활동을 비중 있게 살펴야 할 항목으로 언급하였다.

학생의 계열별 진로 적합성을 좀 더 면밀하게 평가하는 방안으로는 지원 계열이나 전공 모집 단위에 따라 권장 이수 교과를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현장 교사들은 그러한 접근이 학생의 과목 선택을 지나치게 대입 종속적으로 만들고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대한 심리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이러한 접근이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기 어려운 지방이나 소규모 학교에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이 방안에 찬성하는 교사들은 이미 다른 대학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혼란이 크지 않을 거라는 입장과 대학에서 권장 과목을 지정함으로써 현장에서의 대입 예측 가능성을 높여 줄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표 III-30> 학생부종합전형 이원화 선발에 대한 설문 의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하대 포함 타학교들이 이원화를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서류100보다는 면접을 통한 단계별 선발이 좀 더 학생 선발의 유의미성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서류100의 경우는 학생 입장에서 별다르게 준비할 게 없어서 보험용처럼 생각하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 인천대는 교과전형을 두 개로 운영하고 있음. 학종도 2개로 운영하면 전형이 너무 많아 전형별 모집인원이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음. 서류형의 경우 인원을 적게 하고 단과대학별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음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한 대리 탐구 보고서 작성, 활동 방향 설정 등) -> 해당 활동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기에 면접을 통해 선발하는 것이 실제 학생들의 역량을 확인하는 데 좋을 것이라 생각함. ▪ 학교 측에서 그렇게 하는 게 실효성 있다고 판단한다면 해도 좋을 듯. 요즘 상위권 학교들을 중심으로 이원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듯. ▪ 좋다고 생각함. 많은 학교에서 두 전형을 구분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 학생들도 선택의 폭이 넓어 긍정적으로 생각함.

최근 수도권 주요 대학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을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나누어서 학생들의 지원율을 높이는 접근을 택하고 있다. 현장 교사들은 이러한 접근이 대입에서 학생들의 심리적 진입 장벽을 낮추는 실리적인 장점이 있다고 보기도 하였지만, 대체로는 서류형보다는 면접을 시행하는 것이 전형의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보았다. 여기에는 현장의 학생부 작성 관행을 고려할 때 서류만으로 학생의 실질적인 역량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에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입학사정관 또한 학생부종합전형 이원화가 갖는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였으나, 면접형의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대입에서 우연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III-31> 학생부종합전형 이원화 선발에 대한 입학사정관 의견

구분	내용
입학사정관 A	<p>우선 설문에서 보여준 것처럼, 찬성 측면을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의 측면으로 본다면, 지원자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어 학생들의 본인의 성향에 유리한 전형에 대한 접근과 특성에 따른 지원 등이 가능해지며, 지원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다는 면과 두 번째, 대학의 운영적 면에서 본다면, 3년 후에 나타나게 될 인구 감소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대학에 지원하려는 전체 지원자 수가 감소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이원화로 인해 지원자 수의 증가를 예측해 볼 수 있고, 예비 합격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서류형의 경우는 면접 전형에 비해 합격 등록율을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대학의 운영적 측면에서는 입시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면접 전형의 경우 고교에서 면접과 관련된 평가 방식에 대해 대비하기 어렵고 면접평가 방식이 고교 교육과정에서 배우거나 익힐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무엇보다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면접 평가 방식의 신뢰성이 담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p>
입학사정관 B	<p>수도권 대부분 대학에서 이미 학종 대표 전형을 서류형/면접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서류형/면접형에 둘 다 중복 지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면접을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의 경우 본인의 강점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줄 수도 있음. 또, 수도권 이외 학생들의 경우 면접을 위해 귀경 등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상황에서 서류형을 선택할 수 있음. 결론적으로 서류형/면접형 분리 시 전형별 모집인원 축소로 면접 배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지원자 유도 가능함. 하지만, 학생부 기재 간소화 및 교사들의 학생부 기재 역량 상향평준화 및 AI 학생부 등장으로 인해 학생부 내용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비면접 전형 도입 시 많은 질의를 받게 될 수 있음. 또한, 두 전형으로 나눌 경우, 모집 단위별 모집인원 감소와 서류형/면접형 전형별 서류 평가요소의 차별화 등을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고교에 전달할 필요가 있음. (...)</p>

<표 III-32> 자유전공대학(자유전공학부)의 학생부종합전형 선발에 대한 설문 의견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한 진로는 없으나 다방면에서 호기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학생들에게 종합전형의 기회를 주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종합전형은 일찍부터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해온 학생들이 주로 목표로 하는 전형인 만큼 자유전공 선발이 많은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 고3 진학 지도 교사의 입장에서선 어차피 종합 전형으로 쓰는 아이들은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에, 현재 종합전형에서 학생들의 전공 적합성을 따지기보다는 계열 적합성 정도를 보기에 계열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하고 늘리는 것은, 대학 입장을 너무 생각하는 전형 방법이라 생각함... (결국 성적 높은 우수한 학생들만 뽑힐 것이고, 일부 성적은 낮지만 우수한 역량을 지닌 학생들은 각 학과별 줄어든 선발 정원으로 인해 피해를 볼 것임), 그리고 그렇게 뽑힌 아이들이 제대로 학교를 다닐지, 혹은 상위 대학 진학을 위해 중도 이탈할지는.. ▪ 학생들 중 희망하는 진로가 명확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고 희망 전공도 계속 바뀌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종합전형으로 자유전공학부로 선발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함. 다만 인문, 자연계열의 구분은 있어야 함. ▪ 동의함. 그러나 고교 현장에서는 우후죽순으로 생긴 자율/자유전공에 관한 진학지도를 어떻게 해야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자유전공학부를 선발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 교사들은 대체로 반대 또는 제한적 찬성의 입장을 택했다. 반대 측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중요한 평가 대상이 진로 적합성인 만큼 그 취지가 자유전공학과와 부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제한적 찬성 관점에서는 고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에게 명확한 진로 설정을 강제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보고,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자유전공학과를 선발하는 것이 진로에 대해 다양하게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긍정적 기회가 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경우 자유전공학과에도 일정한 계열 구분은 있어야 하며, 입학 후 진학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 등 수시모집에서 진로에 대해 완전히 개방적인 방식으로 선발하는 접근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라. 수능위주전형에 대한 설문 및 1차 자문 결과

<표 III-33> 수능위주전형 적정 비율에 관한 설문 결과

구분	내용	N	%
2028 수능위주전형의 적정 비율	30% 미만	78	40.8
	30%	29	15.2
	35%	3	1.6
	40% 이상	33	17.3
	기타	48	25.1
	합계	191	100

현장 교사들의 40.8%는 2028 대입에서 수능위주전형의 적정 비율로 30% 미만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30%(15.2%), 35~40 사이(26.6%), 40% 이상(17.3%) 등 수능의 난이도나 변별력에 대한 기대에 따라 적절성에 관한 판단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수능이 치러진 이후의 양상에 따라 적정 비율에 관한 판단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표 III-34> 수능위주전형 수능 성적 반영 방식에 관한 설문 결과

구분	내용	N	%
2028 수능 위주 전형의 성적 반영 방식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의 반영 비율 확대	55	28.8
	계열별 필수 반영 과목 지정	65	34.0
	전 과목 균등 반영	27	14.1
	선택 과목에 따른 가중치 부여	41	21.5
	기타	3	1.6
	합계	191	100

2028 대입에서 수능위주전형의 성적 반영 방식은 계열별 필수 반영과목을 지정하는 것(34%), 주요 과목의 반영 비율 확대(28.8%), 선택과목 가중치 부여(21.5) 순으로 선호되었으며 전 과목 균등 반영 비율(14.1%)은 가장 적게 선호되었다. 이는 아직은 현장 교사들에게 수능 전형에도 전공 적합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래 입학사정관의 의견에서 나타나듯이 이러한 결과가 2028 대입의 통합 수능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III-35> 수능위주전형 수능 성적 반영 방식에 관한 입학사정관 의견

구분	내용
입학사정관 A	1차 설문 결과에 대해서 계열별 필수 반영 과목을 지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에서 수능의 변화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편될 수능에 대한 목적과 과목의 특성을 고려하면 국어, 수학은 모두 공통 과목에서 출제되고 사회, 과학 역시 통합사회, 통합과목에서 출제가 됩니다. (...)
입학사정관 B	설문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은 비율(34.0%)이 계열별 필수 반영 과목 지정을 택했으며, 다음으로는 국수영 중심 반영 확대(28.8%)가 뒤를 잇고 있는데, 이는 교사들이 전형 설계 시 통합 수능 취지에도 여전히 '계열(문/이과 또는 전공군) 특성에 맞춘 수능 영역 반영'을 중시하고 있다고 해석됨. 또한 '선택 과목에 따른 가중치 부여'(21.5%)도 꽤 비중을 차지 하고 있어, 현재 사탐런/확통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다고 생각됨. 통합 수능 도입에도 불구하고 수시 선발 비율이 70%인 상황에서 모든 과목을 반영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됨. (...)

<표 III-36> 수능위주전형 개선 방향에 대한 설문 결과

구분	내용	N	%
2028 수능 위주 전형의 변별력 확보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의 부분적 반영	62	32.5
	학생부 정성평가 요소의 부분적 도입	66	34.6
	계열별 수능 영역에 대한 반영 비율 차별화	47	24.6
	계열별 상위 N개 수능 영역 반영	12	6.3
	기타	4	2.0
	합계	191	100

2028 대입에서 수능전형의 신뢰도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학생부 정성평가 요소의 부분적 도입(34.6%), 학생부 교과 성적을 부분 반영(32.5%), 계열별 수능 영역에 대한 반영 비율 차별화(24.6%) 순으로 선호되었다. 학생부 성적을 보완 요소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7.1%에 달하는 것은 수능만으로 학업 역량을 세밀하게 변별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라는 현장 교사들의 생각을 반영한다. 계열별 반영 영역 비율을 차별화하는 방안과 계열별 상위 N개 영역을 반영하는 안의 선호도 차이가 큰 것도 특징적인데, 후자의 경우 학생의 학업 역량을 변별하는 것보다는 지원율을 높이는 실용적인 목적이 더 크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I-37> 인천대학교 수능위주전형 수능 반영 방식 적절성에 대한 설문 결과

구분	내용	N	%
인천대학교 수능 반영 방식의 적절성	매우 적절하다	29	15.2
	적절하다	88	46.1
	보통이다	60	31.4
	적절하지 않다	10	5.2
	매우 적절하지 않다	4	2.1
	합계	191	100

<표 III-38> 인천대학교 수능위주전형 수능 반영 방식 개선 방안에 관한 설문 의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과학으로 어떻게 자연계열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수학의 반영비율과 과학의 반영비율 고민이 필요함. ▪ 과학 성취보다 국어 성적이 학생의 일반적인 역량을 잘 반영한다고 생각됨. 자연계열에서 국어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것이 나아 보임. ▪ 탐구비중이 너무 높음.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지만 각 사탐 과목이나 과탐과목 내용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함 ▪ 인문계열은 사회, 자연계열은 과학 과목을 각각 반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 교사들의 61.3%는 2026 인천대학교 정시 모집의 수능 반영 방식이 2028 대입에도 적절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개선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살필 때 탐구 영역 반영 비율에 대해서는 전공 적합성에 대한 기대에 따라 어느 정도의 이견은 확인된다.

마. 기타 전형에 대한 설문 및 1차 자문 결과

<표 III-39> 인천대학교 논술전형 도입에 대한 설문 결과

구분	내용	N	%
논술전형 도입의 필요성	매우 필요하다	18	9.4
	필요하다	49	25.7
	보통이다	65	34.0
	필요하지 않다	30	15.7
	전혀 필요하지 않다	29	15.2
	합계	191	100

논술전형은 학생부나 수능 중심의 평가보다는 계열이나 전공에 특화된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및 표현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다양한 역량의 학생들을 선발하는 취지로 운영되는 전형이다. 대학 입장에서는 학교생활의 충실성이나 학교 성적의 일관성이 부족한 학생의 지원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 지원율을 높이는 실용적인 의의가 있는 전형이기도 하다.

2028 대입에서 인천대의 논술전형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현장 교사들의 의견은 필요하다(35.1%)는 의견과 필요하지 않다(30.9%)는 의견이 비슷하였다. 찬반 의견이 팽팽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문 등을 통해 좀 더 세부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지만, 반대하는 측에서는 논술전형이 고교 정상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고 여기에는 국립대학교로서 인천대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III-40> 인천대학교 논술전형 도입에 대한 설문 의견

내용	
■	그리고 정시나 논술이 확대되면 고등학교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다. (특히나 수능에 반영되지 않는 교과목의 시간에 수업을 전혀 듣지 않고, 수능 과목이어도 자기 할일(인강, 유튜브, 잠, 게임)을 아주 많이 한다.)
■	논술전형은 대학에서 돈을 벌기 위한 전형이라고 생각한다. 국립대인 인천대에서 굳이...?
■	논술전형은 정말 사교육을 부추기는 전형입니다. 도입을 반대합니다.

<표 III-41> 논술전형 도입 시, 출제 방식에 대한 설문 결과

구분	내용	N	%
논술전형 출제 방식	교과서 수준의 제시문 종합형 논술	72	37.7
	시사 이슈와 교과 내용 결합형 논술	24	12.6
	전체 주요 교과(인문/사회/수리)의 통합형 논술	39	20.4
	약술형 논술	51	26.7
	기타	5	2.6
	합계	191	100

<표 III-42> 논술전형 도입 시, 최저학력기준 설정에 대한 설문 결과

구분	내용	N	%
논술전형 최저학력기준 설정	필요하지 않다(최저학력기준 X)	37	19.4
	필요하다(최저학력기준 O)	154	80.6
	합계	191	100

<표 III-43> 논술전형 도입 시, 전형 요소 및 전형 비율에 대한 설문 결과

구분	내용	N	%
논술 전형 전형 요소 및 비율	논술평가 100%	51	26.7
	논술평가 90% + 학생부교과 10%	23	12.0
	논술평가 80% + 학생부교과 20%	35	18.3
	논술평가 70% + 학생부교과 30%	78	40.8
	기타	4	2.2
	합계	191	100

한편, 논술전형을 도입한다는 전제에서 보았을 때 현장 교사들은 교과서 수준의 제시문 종합형 논술(37.7%)를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보았고, 대부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80.6%), 논술 100%(26.7%)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학생부 교과와 혼합하는 평가가 적절하되(71.3%) 가능한 한 학생부교과 비중을 높이는 안을 선호(40.8%)하였다. 이는 인천대에서 논술전형을 도입하더라도 그 대상은 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면서 충분한 학업 역량을 쌓은 학생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현장 전문가들의 관점을 반영한다.

입학사정관의 경우 논술전형 도입 필요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논술전형으로 선발한 학생들의 낮은 GPA 성취율, 논술전형 도입에 따른 각종 행정적 관리 비용 증가, 인천대학교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이미지 형성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44> 인천대학교 논술전형 도입에 관한 입학사정관 의견

구분	내용
입학사정관 A	<p>(...) 따라서 모든 것을 고려하면 대입에서 ‘논술전형 도입’에는 부정적입니다. (...) 매년 분석하고 있는 본교의 종단 분석 결과 논술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GPA 결과는 학기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다른 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성취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1학년부터 4학년에 이르기까지 8학기간의 GPA 성취율도 가장 낮은 성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전형 간의 차이가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전형 간의 차이가 뚜렷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졸업 때까지 가장 낮은 위치에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교는 논술 전형 선발인원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있으며, 현재는 인문계 논술전형을 폐지하고 수학 논술 시험으로만 운영되는 자연계 논술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논술 선발인원의 축소는 교육부의 정책기조와도 연관되어 있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선정 점수에도 사업선정 시 가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관리, 감독적 측면에서 논술 전형의 도입은 그동안 하지 않았던 대학별 고사를 추가하는 선택입니다. 대학별 고사는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주요 대상으로 매년 논술 문항 개발과 출제 관리 등 사전, 사후 관리와 선행학습 위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 선행학습 영향 평가 연구 등 관리 사항이 증가합니다. 이밖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등 시민단체 등의 모니터링의 대상이 됩니다. 매년 논술 문항에 대한 감독과 분석 결과를 시민단체들이 어떻게 분석하고 이의를 제기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해야 하며, 만약 문항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될 경우, 민원의 발생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논술 문항 지문 속에 고교 교과서에서 찾기 어려운 단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시민단체에 의해 선행 학습법 위반에 걸려 경고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p>
입학사정관 B	<p>인천대 논술 도입 찬성 35.1%, 반대 64.9%로 논술 도입을 반대한다는 비율이 생각보다 높게 나타남. 이는 학종이 우세 지역인 인천 지역에서 논술 도입 시 타 전형 선발 인원이 줄어들어 합격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포함된 결과로 보임. (...) 인천 지역 특성상,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대가 논술 도입 시 인천 이외 지역 학생들을 유도할 수 있는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인천대 논술 도입 시 학종/교과 선발 인원 축소로 인해 인천 지역 고교의 대학 합격률이 낮아질 수 있어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논술 전형을 도입한다면 논술유형은 약술형 논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현재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전체 수험생 규모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대를 포함한 중위권 대학들의 논술 유형은 약술형이 대세이어서 상위권 대학과 비슷한 ‘교과서 수준의 제시문 종합형 논술’ 문제를 출제한다면 인천대 논술 전형 도입의 의도와 맞지 않다고 생각됨. 인천대를 지</p>

원하려는 학생 중에 종합형 논술을 통해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이 전국에 많지 않아서 한 문제 정도 잘 풀어 합격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적대의 학생을 보게 될 수 있음. 약술형 논술을 도입한다면, 국민대, 가천대, 상명대와 같은 밴드를 형성하여 수시 6장 중 한 장의 카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됨. (...) 하지만 교사 자문 결과 논술 도입 반대가 높은 상황에서 전형을 도입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고 생각됨. 실제 약술형 논술 실시 대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교내 전공 교수들의 반대에 상당할 수 있으며, 또한 고교교육 기여대학사업에서 받게 될 패널티와 전형이 성공하지 못할 것에 대한 부담도 크다고 생각됨. 또한, 논술을 실시하게 될 경우, 문제 출제 과정 및 운영, 선행학습 영향평가 등 사후 처리 등 입학처 구성원의 증가된 업무로 인해 내부 고통도 상당할 수 있어 단순히 타 대학의 높은 경쟁률만 보고 시작하기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됨.

2.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대입전형 개선안에 대한 2차 자문 결과

II장과 III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대입전형 개선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해 수도권 주요 대학 소재 입학사정관 및 대입 지도 경력이 풍부한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한 자문을 시행하였다.

2028년도 인천대학교 대입전형 개선안에 대한 자문은 대체로 2027학년도까지의 인천대학교 대입전형 기초를 유지하는 선에서 2028 대입제도로 인해 변화가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 반영한 방안(현행 유지안), 2028 대입제도로 인해 부족해진 학생부교과 및 수능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평가 지표를 다양화하거나 정교화하는 방안(변별력 중시안), 2028 대입제도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과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고려하여 현장의 대입 지도 용이성과 학생 지원 편의를 고려한 방안(지원을 중시안)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현장 교사와 입학사정관들의 선호와 그 이유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응답자의 교육 경력, 대입 지도 경력, 고교 유형 등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표 IV-1> 2차 자문 대상자 특성

번호	신분 구분	경력	소속 기관 소재지	소속 기관 유형
A1	입학사정관	10년 이상	서울	사립대
A2	입학사정관	5~10년	서울	사립대
A3	입학사정관	5~10년	인천	사립대
A4	입학사정관	5~10년	서울	사립대
B1	교사	10년 이상	서울	사립일반고
B2	교사	10년 이상	인천	자사고
B3	교사	10년 이상	인천	사립일반고
B4	교사	10년 이상	충남	사립일반고

가. 학생부교과전형 개선안에 대한 2차 자문 결과

<표 IV-2>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 과목별 반영 비율(안)

1안	2안	3안
계열 상관없이 전체 교과를 동일 비율로 평가하는 방안	계열별로 반영 교과와 반영 비율을 다르게 평가하는 방안	계열별 전공 적합도가 높은 과목의 평가 비중을 확연히 높이는 방안
예) 인문계열, 자연계열 : 국어 25%, 수학 25%, 영어 25%, 사회 15%, 과학 15%	예) 인문계열 : 국어 30%, 수학 20%, 영어 30%, 사회 20% 자연계열 : 국어 20%, 수학 30%, 영어 30%, 과학 20%	예) 인문계열 : 국어 30%, 수학 15%, 영어 30%, 사회 25% 자연계열 : 국어 20%, 수학 35%, 영어 25%, 과학 25%

<표 IV-3>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 과목별 반영 비율(안)에 대한 자문 결과 요약

구분	선택(안)	공통의견
A1	2안	인문/자연 계열 특성에 맞춰 교과 비중을 일부 차등화하는 절충형 방안으로 전공 적합성과 고교 교육과정의 흐름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음
A3	2안	무전공, 자유전공 등은 1안도 좋으나 일반적으로 계열에 따라 다르게 반영하는 것이 우수 인재 유치에 효과적임. 3안처럼 극단적인 비율 차이는 학생 부담 가중 우려
A4	2안	문·이과 통합 기초에서 특정 교과 비중을 지나치게 높이면(3안) 학생 선택권 위축 우려, 모든 과목 동일 반영(1안)은 기초 학업 역량 확인 어려움. 유연하게 차등 적용하는 2안이 합리적
B1	2안	계열별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전 교과 학업 성실성을 균형 있게 평가해야 함. 3안은 특정 과목 편중 유도, 1안은 계열 특성 희석 우려
B4	2안	고교학점제로 인한 성적 비교 어려움을 고려해 계열별로 유불리를 따져 지원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되 과도하지 않은 수준인 2안이 적절
B2	1안	교과전형은 성실성 평가 전형이며, 계열 경계가 낮아지는 현실 고려 시 1안이 적절. 국수영 비율이 높아 대학 적응력 높이는 효과 있음.
B3	1안	다양한 선택과목을 학습한 학생들을 고려하여 모든 교과목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공감을 얻을 수 있음.
A2	3안	교과전형에서 전공 적합도를 따로 평가하지 않으므로, 관련 과목 비중을 높여 대학 입학 후 학업역량을 제고하고 이탈률을 줄여야 함. 특히 자연계열의 위계성 문제 해결에 도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다양한 과목 선택 및 진로 설계 가능성이 확대된 만큼, 2028 대입에서 학생부교과전형 설계의 쟁점 중 하나는 학생의 전공별, 계열별 전공 적합성을 중시하여 학생부교과 성적을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학생의 다양한 과목 선택 정도를 폭넓게 수용하는 방향에서 학생부교과 성적을 평가할 것인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인천대에서는 2027

학년도까지 계열별로 반영 교과와 반영 비율을 다르게 평가하는 방안(2안)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전공 적합도 중심의 변별력을 높이는 안(3안)과 전공 적합도 중심의 변별력을 낮추는 안(1안)에 대해 자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자문 결과 현장 교사와 입학사정관들은 대체로 현행 유지안인 2안이 계열별 전공 적합도를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고려할 수 있게 하며 학교 현장의 교육 실태에 부합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선호하는 양상을 보였다. 1안이 적절하다고 본 경우는 다양한 선택과목을 학습한 학생들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3안이 적절하다고 본 경우는 대학 후 학업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각각 장점으로 진단하였다.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교과 성적 산출 방식에 대해 적절하다 이상으로 평가한 비율이 62.8%에 달했던 만큼,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계열별로 반영 교과와 반영 비율을 다르게 평가하는 현재의 평가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4>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 교과목 반영(안)

1안	2안	3안
공통과목 + 진로·융합선택과목 중 상위 N개	공통과목 + 계열별 반영 교과의 진로·융합선택과목	공통과목 + 진로·융합선택과목 (전체)

<표 IV-5>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 교과목 반영(안)에 대한 자문 결과 요약

구분	선택(안)	공통의견
A2	2안	전공 연계성 및 심화 학습 평가 필요. 계열별 필수 심화 과목 이수를 유도하여 전공 적합성을 높이고 학생과 대학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A4	2안	과목 선택이 다양해질수록 소인수 과목(성적 불리)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전체를 훑어보아야 (계열별 반영) 변별력 확보 및 유리한 과목만 골라 듣는 현상 방지 가능.
B1	2안	상위 N개만 반영 시 점수 잘 나오는 과목만 선택할 우려. 전공 연관성 높은 과목을 함께 반영하는 것이 교육과정 취지에 부합.
B2	2안	문·이과 교차지원 보완책으로 계열별 진로·융합선택과목 반영 필요. 심화 과목 선택 학생이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함.
A1	1안	학생별 강점 반영이 가능하고 평가 변별력 확보 용이하며, 학교 간 개설 과목 차이로 인한 불이익 완화 효과.
A3	1안	고교 현장 요청에 따라 대학들이 진로선택과목을 반영하는 추세이므로 선제적으로 상위 N개를 반영하는 것이 좋음.
B4	1안	지원자 특성을 고려해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하여 지원하게 하는 점이 고교학점제 취지에 부합하고 지원자 증가에 유리함.
B3	3안	선택하여 공부한 모든 교과목을 반영하는 것이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부합하며, 5등급제 하에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많은 교과목 반영 필요.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로 운영되고 융합 선택과목의 경우 석차 등급이 병기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2028 대입에서 학생부교과전형 설계의 쟁점 중 하나는 진로 선택과목과 융

합 선택과목을 어떠한 방식으로 학생부교과 성적에 반영할 것인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인천대에서는 2027학년도까지 계열별 반영 교과목의 선택과목 이수 학점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2안)을 택하고 있다. 이를 중심으로 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과목 이수 정도를 선택적으로 평가하는 방안(1안)과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방안(3안)에 대해 자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문 결과 현장 교사와 입학사정관들은 현행 유지안인 2안과 지원을 중시안에 해당하는 1안을 선호하는 양상을 보였다. 2안을 선호하는 경우 계열별 전공 적합성을 변별하는 데 유용하며, 선택과목 특성에 따른 성적 유불리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1안의 경우 학생별 강점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할 수 있고 학생에게 선택권을 존중함으로써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부합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3안의 경우 5등급제하에서 가능한 많은 교과목을 반영하는 방안이 변별력 확보에 유리할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는 선택과목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교과를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32.5%였고, 진로 연계성을 고려한 특정 과목 이수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은 24.1%, 상위 N개 과목 성적만 반영하는 방안은 20.4%였다. 설문 조사 결과에서 방안별 선호도 편차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공통과목에 더해 계열별 반영 교과목의 진로·융합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놓고, 지원을 확보 차원에서 진로·융합 선택과목 중 상위 N개를 선택할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최적의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6>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 정량지표 반영(안)

1안	2안	3안
교과별 석차등급 환산점수, 석차등급 병기 과목 이수 단위	교과별 석차등급 환산점수, 석차등급 병기 과목 이수 단위, 계열별 반영 교과 이수 단위를 고려한 가산점	교과별 석차등급 환산점수, 석차등급 병기 과목 이수 단위, 계열별 반영 교과 이수단위를 고려한 가산점, 융합선택과목 성취도 환산 점수, 융합선택과목 성취도별 분포 비율

<표 IV-7>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 정량지표 반영(안)에 대한 자문 결과 요약

구분	선택(안)	공통의견
A2	2안	석차등급 환산점수를 중심으로 객관성을 유지하되, 이수 단위 가산점을 통해 심화 과목 이수 노력을 평가 가능함. 3안은 너무 복잡함.
A4	2안	5등급제로 인한 상위권 밀집(변별력 약화) 보완책으로 계열별 가점 제도 적극 활용 필요.
B1	2안	전공 기초 과목 이수를 유도하면서도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임. 3안은 산출 구조가 과도하게 복잡함.
B4	2안	모집 단위별 핵심 과목 수강 유인책으로 작용하며, 3안의 융합선택과목 정보는 학교별 개설 편차로 인해 정량 지표 역할에 한계가 있음.
A1	3안	이수단위 반영은 학습의 깊이를 보여줌. 진로·융합 선택과목 성취도 반영은 고교학점제 흐름상 점진적으로 비중이 커질 지표임.

구분	선택(안)	공통의견
B2	3안	학생마다 과목 구성이 다르므로 진로 관련 선택과목 이수 유도 및 교차지원 억제를 위해 3안 적용. 절대평가 과목은 환산점수 적용.
B3	3안	모든 교과목의 반영과 그에 따른 반영 형태도 가능한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A3	1안	2, 3안은 복잡도 증가로 수험생 부담 가중 및 대학 산출 어려움 예상. 장기적으로는 2안 고려 가능하나 현재는 1안이 적절.

2028 대입제도에서는 석차 등급을 5등급으로, 성취도를 A~E로 표시하며 사회 및 과학 과목의 융합 선택과목은 석차 등급을 표시하지 않는다. 이를 고려하여 2027학년도까지의 인천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활용한 정량 지표들 수정하면 ‘교과별 석차 등급(5등급) 환산 점수, 석차 등급 병기 과목 이수 단위, 계열별 반영 교과 이수 단위를 고려한 가산점’ (2안)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학생 변별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융합 선택과목의 성취도 환산 점수와 융합 선택과목의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추가한 안(3안), 학교별 편차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취도로만 평가하는 융합 선택과목을 배제하는 안(1안)을 제시하여 자문을 시행하였다.

자문 결과 현장 교사와 입학사정관들은 현행 유지안인 2안과 변별력 중시안인 3안을 선호하는 양상을 보였다. 2안의 경우 적정 수준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다는 점이 장점으로 평가되었다. 3안의 경우 선택과목의 이수 단위를 폭넓게 고려함으로써 학생의 전공 적합성을 충실하게 반영하면서 고교학점제의 특성에 적합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평가받았다. 1안의 경우 2안과 3안보다 수험생 부담이 적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학생부교과전형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로 가장 선호된 것은 석차 등급(1, 2순위 45%)이었고, 그다음은 성취도(1, 2순위 27.2%)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현재와 같은 정량 지표를 활용하는 안을 기준으로 하여 변별력 확보 차원에서 융합 선택과목의 성취도와 관련된 정량 지표를 추가하는 안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가운데 최적의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8>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안)

1안	2안	3안
수능최저학력기준(평준화) 전체 2개 영역 등급합 7이내	수능최저학력기준(현행유지) · 기본: 2개 영역 등급합 7이내 · 성적 상위 모집 단위 : 2개 영역 등급합 6이내	수능최저학력기준(강화) 전체 2개 영역 등급합 6이내

<표 IV-9>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안)에 대한 자문 결과

구분	선택(안)	공통의견
A1	2안	전체 구조 유지로 예측 가능성 확보, 전공 적합성 확보 가능하며 수험생 부담이 과도하지 않음. 학령인구 감소로 강화는 부적절.

구분	선택(안)	공통의견
A2	2안	내신 변별력 약화 보완책으로 기능. 상위 모집단위(2합6)와 일반 단위(2합7) 구분하여 우수 학생 선발과 지원 용이성 동시 확보.
A3	2안	성적 상위 모집단위와 일반 단위를 분리 운영하는 것이 우수인재 유치 및 대표 학과 경쟁력 확보에 유리.
B2	2안	통합형 수능 첫 시행 등 변화가 많은 해이므로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임.
B3	2안	기존 수준 유지 및 처음 접하는 수험생의 혼란 줄이기 위해 현행 유지.
B4	2안	경쟁 대학 수준과 비슷하게 유지하되 상위 모집 단위만 별도 설정하여 전형 이해와 준비에 도움.
B1	1안	교과전형은 교과 성취 중심이어야 하므로 최저는 최소 안전장치로 단순화해야 함. 전체 2합 7 평준화가 진학지도 및 학생 부담 완화에 도움.
A4	3안	내신 5등급제 전환으로 상위 10%가 1등급이 되어 변별력 상실. 수능최저가 더욱 날카롭게 반영되어야 함.

2022 대입제도에서 부족한 학생부교과 성적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조정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수능 또한 2028 대입에서 체제 변화가 예고되어 있어 과도한 수능최저학력기준 설정은 수시에서의 학생 선발에 불확실성을 키울 위험도 있다. 이에 2027학년도까지 인천대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설정한 수능최저학력기준(2안)과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한 안(1안), 강화한 안(3안)을 제시하여 자문을 실시하였다.

자문 결과 현장 교사와 입학사정관들은 대부분 현행 유지안을 선호하였다. 수험생 부담이 과도하지 않으면서, 상위 모집 단위와 일반 모집 단위를 구별하여 우수 학생 선발과 지원 용이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로 제시되었다. 1안을 선호하는 경우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수능 최저는 안전장치 정도로 단순화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3안을 선호하는 경우 내신 5등급제로 인한 변별력 상실을 그 이유로 제시하였다.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현행 인천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절 이상으로 본 의견이 70.2%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일반 모집 단위는 2개 영역 등급 합 7 이내, 상위 모집 단위는 2개 영역 등급합 6 이내로 설정한 현행 유지안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10>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 추가 고려 평가요소(안)

1안	2안	3안
수능최저학력기준만 활용	수능최저학력기준 + 출결	수능최저학력기준 + 면접

<표 IV-11>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 추가 고려 평가요소(안)에 대한 자문 결과

구분	선택(안)	공통의견
A2	2안	면접까지는 불필요하나 성실성 판단을 위해 출결 반영 필요. 질병/생리결 등 편법 사용 방지를 위한 고민 필요.
A4	2안	내신 변별력 약화 상황에서 동점자 처리 등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추가 요소 필요. 출결은 성실한 학교생활을 보여주는 지표.
B1	2안	면접 추가는 부담 과중. 출결은 기본 성실성을 보여주는 최소 지표로 적절함.
B2	2안	출결을 통해 학생의 성실성을 알 수 있어 보완적인 평가 방법임.
B3	2안	최근 출결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입시에 반영하여 개선 유도 필요.
B4	2안	출결은 성실성을 반영하는 척도로 긍정적이나, 면접(3안)은 절차가 번거롭고 전형 결과에 부정적일 수 있음.
A1	1안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이미 반영되어 있고, 질병 결석이 많은 현실에서 출결 변별력 낮음. 면접은 경쟁률 하락 우려.
A3	1안	3안은 수험생 부담 가중. 경쟁률 제고 및 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저기준만 활용하는 것이 나음.

수능최저학력기준은 학생부교과 성적 평가에서 간과할 수 있는 학교별 학력 편차를 보정하고 실제로 우수한 학업 역량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28 대입제도의 5등급제에서 학생부교과 성적의 변별력이 매우 약화되고, 수능 출제 범위가 줄어들면서 난이도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입장에서는 현재의 수능최저학력기준만 활용하는 안(1안)에서 출결과 같은 학교생활 성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를 추가하는 안(2안), 학업 역량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면접을 추가하는 안(3안) 또한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문 결과 현장 교사와 입학사정관들은 대부분 수능최저학력기준에 더해 출결을 확인하는 안(2안)을 선호하였다. 상대적으로 현장 교사에 비해 입학 사정관들의 선호도가 높았다는 점이 특징적인데, 여기에는 최근 학교생활 성실성은 떨어지면서 사교육 등을 통해 성적만 높은 학생들에 대한 현장 교사의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안을 선호하는 대입 전문가는 없었고, 1안의 경우 이미 학생 질병 결석이 잦은 것이 학교의 현실이라 이를 기준으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제시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현행 유지안을 선택해도 무방할 것이나, 학생의 학업 성실도를 고려한다면 출결 지표를 추가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출결 점수의 경우 현재 인천대 특기자전형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이 ‘미인정 결석’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는 3회당 결석 1회로 인정)을 기준으로 하여 누적값에 따라 감점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V-12>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 출결점수표(안)

등급	1	2	3	4	5	6
결석일수	0일	1~2일	3~4일	5~6일	7~8일	9일 이상
득점	25	24	23	22	21	20

※ 결석일수 산정은 “미인정 결석” 을 기준으로 하며 미인정 지각·조퇴·결과의 합계 3회는 결석 1회로 산정

<표 IV-13>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 교과 성적 산출(안)

혼합방식 학생부 교과성적 산출방법(※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학생부 교과별 석차등급 = $\frac{\sum(\text{반영과목 등급} \times \text{이수단위(학점)})}{\sum \text{반영과목 이수단위(학점)}}$

□ 학생부 교과성적 최종 산출점수

1) 인문·자연·예체능계열(자유전공학부(인문·자연) 제외)

$$\frac{\sum(\text{교과별 석차등급 환산점수} \times \text{교과별 반영비율}) + \text{*가산점}[\sum(\text{반영교과별 이수과목 이수단위(학점)} \times \text{성취등급가중치}) \times 0.05]}{\text{출결점수}}$$

2) 자유전공학부(인문·자연)

$$\frac{\sum(\text{교과별 석차등급 환산점수} \times \text{교과별 반영비율}) + \text{*가산점}[\sum(\text{반영교과별 이수과목 이수단위(학점)} \times \text{성취등급가중치}) \times 0.2]}{\text{출결점수}}$$

<표 IV-14>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 교과 성적 산출(안)에 대한 자문 결과

구분	평가	공통의견
B3	매우 적절	누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산출식임.
B4	매우 적절	계열별 핵심 과목 가중치를 통해 내신 부풀리기 억제 및 공정성 확보. 자유전공학부 가산점 상향은 취지에 부합.
A1	적절	많은 대학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형태로 수험생 부담 없음.
A3	적절	일반적인 산출 방법이며 출결 포함하여 학교생활 충실도 반영하므로 적절.
A4	적절	출결 가산점 타당하며, 이수단위 가중치가 고교학점제 취지에 부합하여 적극적인 과목 이수 유도.
B2	적절	출결 가산점, 이수단위 반영으로 등급 왜곡 방지 및 전공 특성 반영 가능.
A2	보통	가산점으로 변별력을 보완하려 하나, 학점 높은 과목(공통과목) 위주 반영이 전공 적합성과 맞는지 의문. 자유전공 가산점 과도함.
B1	보통	전체 구조는 예측 가능하나, 자유전공학부 가산점 차이(4배)에 대한 적절성 의문. 이해하기 다소 복잡할 수 있음.

위의 산출식은 2027학년도까지의 인천대 학생부교과 성적 산출식에 성취 등급에 대한 가중치와 출결 지표를 추가한 것이다. 2028 대입제도에서 성취 등급은 1학년 때 이수하는 공통교과와 2~3학년 때 이수하는 진로 선택과목에만 표시되므로 성취 등급에 대한 가중치는 정량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상대 석차의 반영 비중을 높인다는 점에서 학업 역량 변별도를 높이는 요

소에 해당한다. 아울러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다른 계열에 비해 가산점 비율을 4배 높였는데, 이는 자유전공학부를 인문과 자연으로 분리 모집하면서, 해당 계열에 적합한 교과 반영 방식에 가산점 비율을 강화함으로써 모집 계열에 적합성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문 결과 현장 교사와 입학사정관들은 위의 산출식이 대부분 적절 또는 매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이유로 성취 등급 가중치를 통해 내신 부풀리기를 억제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학생 입장에서 예측 가능한 산출 방법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보통으로 평가한 경우 자유전공학부 가산점 차이가 과도하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었다. 이처럼 2028학년도 인천대 학생부교과전형을 성취 등급에 대한 가중치와 출결 점수를 가산점 형식으로 반영하는 안은 대입 전문가들에게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전형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15>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 석차등급별 환산표(안)

학생부교과 석차등급별 환산점수표(제시안)				
A안		B안		학생부교과 (교과성적우수자· 지역균형·사회통합)
28학년도 석차등급 구간	편차 (등간격)	28학년도 석차등급 구간	편차 (불균등)	
1.00 ~ 1.09	0.1	1.00 ~ 1.19	0.2	350.00
1.10 ~ 1.19	0.1	1.20 ~ 1.39	0.2	349.00
1.20 ~ 1.29	0.1	1.40 ~ 1.44	0.05	347.00
1.30 ~ 1.39	0.1	1.45 ~ 1.49	0.05	345.00
1.40 ~ 1.49	0.1	1.50 ~ 1.54	0.05	343.00
1.50 ~ 1.59	0.1	1.55 ~ 1.59	0.05	341.00
1.60 ~ 1.69	0.1	1.60 ~ 1.64	0.05	338.00
1.70 ~ 1.79	0.1	1.65 ~ 1.69	0.05	335.00
1.80 ~ 1.89	0.1	1.70 ~ 1.74	0.05	332.00
1.90 ~ 1.99	0.1	1.75 ~ 1.79	0.05	329.00
2.00 ~ 2.19	0.2	1.80 ~ 1.84	0.05	325.00
2.20 ~ 2.39	0.2	1.85 ~ 1.99	0.05	321.00
2.40 ~ 2.59	0.2	2.00 ~ 2.09	0.1	317.00
2.60 ~ 2.79	0.2	2.10 ~ 2.39	0.3	313.00
2.80 ~ 2.99	0.2	2.40 ~ 2.99	0.5	307.00
3.00 ~ 3.49	0.5	3.00 ~ 3.49	0.5	300.00
3.50 ~ 3.99	0.5	3.50 ~ 3.99	0.5	280.00
4.00 ~ 4.49	0.5	4.00 ~ 4.49	0.5	250.00
4.50 ~ 5.00	-	4.50 ~ 5.00	-	200.00

<표 IV-16>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 석차등급별 환산표(안)에 대한 자문 결과

구분	선택(안)	공통의견
A1	B	석차등급별 편차를 벌려 변별력을 확보하고 있어 적절함.
A3	B	5등급제 개편으로 상위권 밀집 예상되므로 세밀한 편차 필요.
A4	B	B안은 주 지원층 구간(1등급 중후반~2등급 중반)을 촘촘하게 세분화하고 이후 편차를 확대하여 동점자 최소화에 효과적.

구분	선택(안)	공통의견
B2	B	5등급제 환산 시 변별을 위해 B안처럼 구간을 나누는 게 좋음. 극상위 구간 넓히고 주력 구간 세밀화 타당.
B4	B	2.5~3.5등급 지원자 수준 고려 시 적절하게 설계됨. 지원자 몰리는 구간의 촘촘한 편차 설정이 적절함.
A2	A	B안의 특정 구간 점수 하락 폭이 불연속적인 점은 공정성 문제 소지. A안이 일관성 있어 수험생 수용성 높음.
B1	A	상위 등급 세분화는 필요하나, 3~4등급 이후 하락폭이 너무 커서 학교/계열 격차 고려 시 완만하게 조정 필요.
B3	A	A안의 경우 간격이 작성되어 있어 간결하고 이해가 쉬움(표기는 1이나 내용은 A안 선호 의견).

2028 대입에서 학생의 석차 등급이 기존의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간소화되면서 9등급 석차 등급을 0.5등급 구간으로 나누어서 구간별 가산점을 부여하는 기존의 인천대 방식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위의 환산 점수표는 5등급제에서 내신 성적을 기존 9등급제와 유사하게 되도록 세분화한 안(A안)과 5등급제에서 인천대 합격권의 학생들이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급 대의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간별 편차를 설정한 안(B안)을 구성한 것이다.

자문 결과 현장 교사와 입학사정관들은 A안과 B안을 선호하는 비율이 비슷했고 B안을 선호하는 입학사정관이 1명 더 많았다. A안을 선호한 경우는 구간별 편차가 일관성이 있어 이해하기 쉽다는 것을 장점으로 들었고, B안을 선호한 경우는 인천대의 주 지원층 구간의 변별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들었다. 전형 설계와 이해의 편의성만을 고려하면 A안이 효과적일 것이나, 환산점수표를 활용하는 이유가 석차 등급의 효율적 변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B안이 전형 설계의 목적성에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A안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고는 하나 그 자체가 학생 지원율을 유의미하게 견인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인천대의 선발권 학생들을 보다 타당성 있게 평가한다는 점에서 B안의 의의가 좀 더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점수 하락폭이나 편차가 불필요하게 크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선에서 세부 구간 조정은 필요할 것이다.

나.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안에 대한 2차 자문 결과

<표 IV-17>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변경(안)

1안	2안	3안
발전역량 삭제 및 평가요소별 하위 상세화	현행유지	발전역량 평가내용 변경

<표 IV-18>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변경(안)에 대한 자문 결과

구분	선택(안)	공통의견
A1	1안	평가 요소 간결화 추세 및 발전가능성 의미 퇴색. 관점에 따라 평가 달라질 수 있어 삭제가 타당.
A2	1안	평가 요소 간 중복 해소 및 공정성 강화. 발전역량은 학업/진로 역량으로 충분히 평가 가능함.
A3	1안	평가영역 3개 축소로 구조 단순화 및 전달력 제고. 타 대학과 유사하여 혼란 방지.
A4	1안	기재 항목 축소에 맞춰 평가 요소 간소화 필요. 발전역량을 학업/진로 역량 하위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
B2	1안	타 학교와 비슷해 전달력 높고 평가 일관성 제고 가능.
B3	1안	발전역량 중 필요한 부분은 진로역량에서 평가 가능. 대안적 해결책 등은 학생들에게 어렵게 다가옴.
B4	1안	타 주요 대학과 일관성 유지. '성장가능성' 등 익숙한 용어로 변경 포함하여 명확성 제고.
B1	3안	발전역량을 유지하여 단순 성취를 넘어선 성장 가능성 평가 필요. 평가내용을 구체화하여 차별화하면 됨.

2028 대입에서는 학생부에 대한 정량 평가가 이전보다 어려워졌기 때문에 정성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대입전형 설계에서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학업역량’, ‘진로역량’, ‘발전역량’, ‘공동체역량’을 평가하는 현행 인천대학교 안(2안)과 현장 교사 설문에서 개선 필요성이 높은 항목으로 언급되었던 ‘발전역량’을 제외하고, 해당 평가 내용을 다른 역량의 평가 내용과 결합하여 제시한 방안(1안), ‘발전역량’을 유지하되 다른 평가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을 수정하여 차별화한 방안(3안)을 제시하여 자문을 실시하였다.

자문 결과 현장 교사와 입학사정관들은 대부분 1안을 선호하였다. 1안을 선호한 이유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평가 요소가 간소화되는 추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 평가 요소 간 중복 문제를 해소하고 구조를 타 학교와 유사하게 단순화함으로써 현장 전달력이 높아졌다는 것 등이었다. 3안을 선호한 현장 교사 1인은 단순 성취를 넘어선 성장 가능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제시하였다. 대입 전문가들에게 1안으로 제시한 평가 요소 및 평가 내용 간소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표 IV-19>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및 평가내용 개선(안)

평가영역	평가요소	서류평가 평가내용
학업역량	학업수월성	-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기초학업역량 및 학업의 발전정도
	학업주도성	- 학업을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 -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스스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에 대해 해결하려는 노력
진로역량	진로충실성	-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정도 -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 수준 -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경험 및 노력
	성장가능성	-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진로와 관련된 새로운 과제나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고 해결하고자 한 노력
공동체역량	소통능력	-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여 구성원들과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을 위해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태도
	책임감	-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공동체의 기본 윤리와 원칙을 준수하는 태도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요소 및 평가 내용 유지가 51.8%, 평가 내용 상세화가 28.3%, 평가 요소 간소화가 10.5%, 일부 평가 요소 제외가 8.9%였다. 대략적인 개선 방향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는 평가 요소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데 대한 선호가 뚜렷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지만 자문조사 결과와 같이 발전역량을 삭제하여 평가 요소는 간소화하되, 평가 내용은 상세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을 때는 현장에서도 충분히 타당성 있는 방안으로 수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IV-20>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 평가 비율 개선(안)

1안	2안	3안
서류 80%+면접 20%	서류 70%+면접 30%	서류 60%+면접 40%

<표 IV-21>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 평가 비율 개선(안)에 대한 자문 결과

구분	선택(안)	공통의견
A1	2안	면접 변별력 확보를 위해 최소 30% 유지 필요. 경쟁률 제고 측면에서도 면접 비중 담보되어야 함
A2	2안	학종 취지상 서류평가 역할 극대화 필요(60%는 너무 적음). 30%는 서류 검증 및 심화 평가에 충분함
A3	2안	서류형 영향력 유지하면서 면접의 적절한 영향력 부여. 수험생 지원 고려 시 적절한 비율임
A4	2안	기존 비율 타당. 2028 교육과정에서는 서류보다 학생을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이 변별력에 도움

구분	선택(안)	공통의견
B1	2안	서류 중심 원칙 유지(50% 이하 부적절). 30%가 면접 역할 인정하는 적정선
B2	2안	입시제도 급변 시 기존 비율 유지가 안정적인
B3	2안	30%면 충분히 변별되어 순위 변경 가능. 타 대학과 유사한 수준
B4	2안	비교과 축소/내신 변별력 약화로 면접 강화 필요하나, 비중은 현행 30% 유지가 무난함

2028 대입에서 학생부 중심 평가의 변별력 약화에 대한 대응으로 면접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면접 30% 유지(46.1%), 면접 30% 미만(28.3%), 면접 30% 초과(20.4%) 순으로 면접 평가에 대한 기대가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자문에서는 현장 교사와 입학사정관 전원이 면접 반영 비율 30% 유지를 선호하였으며 그 이유는 면접 30% 비율에서도 충분히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고,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서류 평가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표 IV-22>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방식 개선(안)

1안	2안	3안
서류형, 면접형 이원화 예) * 서류형: 서류 100% * 면접형: 서류 60%+면접 40%	모집단위별 권장 이수 과목 제시하여 가산점 부여	수능최저학력기준 도입

<표 IV-23>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방식 개선(안)에 대한 자문 결과

구분	선택(안)	공통의견
A1	1안	학생 수요에 맞춰 면접 선호 그룹과 비선호 그룹 이원화 운영 필요.
A3	1안	학종 취지에 맞음. 인재상과 평가요소를 달리하여 이원화 선발 시 우수 인재 유치 적절.
B2	1안	면접 비율 높여 변별력 강화하되 이원화로 인력 부담 경감 및 공정성 확보.
B3	1안	면접 부담스러워하는 학생에게 서류형 기회 제공.
B4	1안	수시 기회 확대. 서류형에는 약한 최저 도입, 면접형은 면접 강화하는 절충안 제시.
A2	1, 2안 혼합	이원화하되 필요시 권장 이수과목 가산점 부여. 최저는 학종 취지 퇴색.
B1	2안	수능최저는 이중 부담, 이원화는 복잡함. 권장 이수 과목 가산점이 고교학점제 취지에 부합하고 진로 설계 도움.
A4	3안	변별력 확보를 위해 가장 객관적인 수능최저 도입이 현실적. 서류 100%는 위험 부담 큼.

2028 대입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전형 효율성과 학생 지원율을 함께 높이는 방안으로 서류형, 면접형 이원화가 논의되고 있다. 이원화에 대해서는 설문과 자문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현장 교사들보다는 입학사정관들의 선호가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입학사정관의 경우 이

원화가 대학 평가 인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면접을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보았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학생부종합전형 이원화는 전형 복잡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학교 현장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는 못할 수 있지만, 대학의 입장에서는 평가 효율성이나 학생 지원을 확보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학생부종합전형을 이원화할 때 기존의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인원을 분산시킬 경우 면접형의 선발 인원이 특정 모집 단위에서 과도하게 줄어드는 등 실제의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학생 부담을 과도하게 높이는 측면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부교과전형 선발 인원을 일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이전하는 등 수시 전형별 인원 비중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 수능위주전형 개선안에 대한 2차 자문 결과

<표 IV-24>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수능위주전형 전형 평가 방식 개선(안)

1안	2안	3안
수능+면접	수능 100%	수능+학생부교과

<표 IV-25>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수능위주전형 전형 평가 방식 개선(안)에 대한 자문 결과

구분	선택(안)	공통의견
A1	2안	현행처럼 수능 100% 운영해도 문제없음. 통합 수능이어도 변별 가능.
A3	2안	전형 간소화 측면에서 적절. 일부 정성/정량 평가 병행 고려 가능하나 기본은 수능 100%.
B1	2안	정시 성격상 단순 명료해야 함. 면접/교과 추가는 역할 중복 및 부담 가중.
B2	2안	학생 부담 줄이고 공정성 높은 수능 100% 유지가 안정감 제공.
A2	3안	수능만 높고 학교생활 영망인 경우 배제 위해 생기부(교과/출결) 반영 필요. 면접은 사교육 유발 우려.
A4	3안	수능만으로 변별 한계. 내신 불리한 우수고 학생 보완 및 정성평가/출결 반영 필요.
B3	3안	내신 성적 부족 시 수능만으로 상향 지원하는 오판 예방 위해 내신 반영 추천.
B4	3안	통합형 수능/출제범위 축소로 변별력 약화 우려되므로 학생부 정량 지표 추가 활용 적절.

2028 대입에서 수능 체제가 변화함에 따라 변별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2027년까지의 인천대 수능위주전형과 같이 수능 성적 100%로 전형을 설계하는 방안(2안), 면접 평가를 통해 학생의 학업 역량을 추가로 평가하는 방안(1안), 학생부교과 성적을 보완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3안)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다.

자문 결과 현장 교사와 입학사정관들은 현행 유지안(2안)과 학생부교과 성적을 보완 자료로 활

용하는 안(3안)을 선호하였다. 2안의 경우 전형 간소화를 통해 학생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고, 3안의 경우 학교생활 성실도와 더불어 학업 역량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현장 교사 설문 결과 수능 평가에 학생부를 활용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7.1%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학교 현장에 수능 변별력 약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수능 준비에만 매진하고 학교 성실도가 떨어지는 학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수능위주전형의 목적을 학업 역량을 갖춘 학생을 효율적으로 변별하여 선발하는 데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수능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현재의 전형 또한 충분히 그 목적성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8 인천대 대입전형에서는 현행 유지안을 기본으로 두고, 향후의 대입 결과를 보면서 학교생활 성실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출결을, 학업 역량의 면밀한 변별이 필요한 경우 학생부교과 성적을 점진적으로 보완해 가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26>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수능위주전형 전형 점수 반영 개선(안)

1안	2안	3안
계열별로 공통사회, 공통과학 중 1개만 반영	공통사회, 공통과학 모두 반영	계열별로 공통사회, 공통과학 과목 성적에 가산점 부여

<표 IV-27>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수능위주전형 전형 점수 반영 개선(안)에 대한 자문 결과

구분	선택(안)	공통의견
A2	3안	두 과목 모두 학습 유도하며 대학 요구 학업 역량 반영. 가산점으로 계열 적합성 평가 가능.
A3	2안	모두 반영하되 계열별 가산점 부여 방식이 적절(설문 선택은 2안이나 내용상 가산점 부여 언급하여 3안 취지 동조).
A4	2안	교차지원 예방 및 학과 적합성 위해 가산 형태 점수 부여(설문 선택은 2안이나 내용상 3안 취지).
B2	3안	통합형 수능이므로 모두 반영하되 계열 특성에 맞게 가산점 부여하여 적합성 제고.
B3	3안	대부분 학생이 1개 과목에 집중할 것이므로 계열별로 1개 과목 가산점 부여 추천.
A1	2안	통합수능 취지에 맞게 모두 반영. 수험생들이 어차피 모두 준비하므로 유불리 없음.
B4	2안	취지를 살려 모두 반영하되, 변별력 한계 감안하면 가산점 부여는 무의미함.
B1	1안	모두 반영은 부담 과중. 계열별로 한 과목만 반영하여 선택과 집중 유도.

2028 대입의 수능 체제에서는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사회탐구와 과학탐구가 공통사회, 공통과학으로 명칭 변화와 함께 출제 범위가 줄어드는 변화가 있었다. 이로 인해 계열에 상관 없이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선택과목 중 2개 과목을 반영하는 2027학년도까지의 인천대 수능위주전형 또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대해 계열별로 공통사회, 공통과학 성적 중 1개만 반영하는 안(1안), 계열 상관 없이 공통사회와 공통과학 성적을 모두 반영하는 안(2안), 계열별로 인문계열은 공통사회, 자연계열은 공통과학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안(3안)을 제시하여 자문

을 실시하였다.

자문 결과 현장 교사와 입학사정관들은 계열별 전공 적합성을 고려하여 특정 탐구 영역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3안을 선호하였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의 성적을 모두 평가하기 때문에 통합 수능 체제에 부합할뿐더러, 가산점을 통해 비슷한 성적의 학습자들 사이에서 전공 적합도를 조금 더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2안을 선호한 경우 통합 수능의 취지를 원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가산점만으로 전공 적합도를 변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1안을 선호한 경우 학생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현장 교사 설문에서도 수능 성적 반영 시 계열별 필수 과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34%, 수능위주전형 개선 방안으로 계열별 반영 비율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25%를 차지한 것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는 통합형 수능 시행 단계에서 계열별 전공 적합도를 고려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한 평가라는 인식이 좀 더 일반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2028 인천대 수능 전형은 계열에 상관 없이 공통사회와 공통과학을 모두 반영하되, 반영 비율에서 인문계열은 사회탐구, 자연계열은 과학탐구 반영 비율을 높이거나, 등급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학교에서의 계열 통합형 교육 및 통합형 수능 체제가 정착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비율이나 가산점 차이를 줄여 나가는 방향에서 전형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라. 기타 전형 개선안에 대한 2차 자문 결과

<표 IV-28>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논술 전형 도입(안)

1안	2안	3안
논술 전형 신설 반대	자유전공학부 논술 전형 모집	전 계열 논술 전형 모집

<표 IV-29>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논술 전형 도입(안)에 대한 자문 결과

구분	선택(안)	공통의견
A2	3안	전 계열 도입 시 인천대 선택 가능성 및 경쟁률 상승 효과 큼. 자유전공만 도입 시 효과 제한적.
A3	3안	신설도 좋은 방안. 전형 다양화로 다양한 인재 선발 및 균형 맞춤 가능.
B4	3안	교과 성적 한계 학생들에게 기회 제공. 과감한 도입이 경쟁 대학 대비 비교우위 점할 수 있음.
A1	3안	특정 모집단위만 선발은 바람직하지 않음. 1안(미개설) 또는 3안(전계열) 중 고려해야 함.
A4	2안	효율성 고려 시 논술 특성과 맞는 학과(자유전공 등)에 인원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
B2	2안	전 계열 희망하나 인원 문제로 자유전공학부 등 모집단위 큰 곳으로 모집 적절.
B1	1안	사교육 의존도 높고 지역 거점 국립대 취지와 충돌. 신설 지양하고 타 전형 정교화가 나음.
B3	1안	기존 전형으로 충분함. 도입 시 현장 혼란 및 비용 문제 우려.

2028 대입에서 인천대에 신설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기타 전형으로는 논술전형이 있다.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논술전형 도입이 필요하다 이상의 의견이 35%, 필요하지 않다 이하의 의견이 31%, 필요 정도가 보통이라는 의견이 34%로 논술전형의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문조사에서는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논술전형 신설 반대안(1안), 논술전형의 제한적 도입안(2안), 논술전형 전면 도입안(3안)에 관한 의견을 조 회하였다.

자문 결과 입학사정관들은 대체로 논술전형 전면 도입안(3안)이 학생 지원을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으며, 상대적으로 전공 적합도 고려가 적은 자유전공학부 제한 모집과 같은 방법은 지원을 상승 면에서 실효성이 작다고 보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전면 도입안을 선택한 경우에도 아래의 A2 사례와 같이 직원 업무 부담, 고사 준비 관리의 어려움, 교육부와 시민단체의 감독 및 제재 강화 등의 문제를 유념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현장 교사들은 B1 사례와 같이 사교육 부담을 이유로 논술전형에 반대하는 견해가 2명으로 조금 더 우세했지만, 전면 도입 찬성 1명, 제한적 도입 찬성 1명 등 설문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논술 전형에 대한 다양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올해 처음 논술전형을 도입한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경험을 반영한다면 논술전형을 전 계열에 도입하면 학생들의 인천대학교 선택 가능성을 매우 유의미하게 높일 수 있음. 다만 직원들의 업무는 매우 가중됨. 기존의 교과, 학종, 실기, 정시, 편입 외에 추가로 매우 큰 업무의 덩어리가 하나 더 생겨 논술 출제 및 채점 및 고사 준비 관리의 업무가 매우 커짐. 하지만 고등학생의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전형의 추가로 학생들의 인천대학교 선택권이 넓어지고 인천대학교 입장에서는 경쟁률 수직 상승 및 학교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음. 논술전형을 도입한다면 자유전공학부뿐 아니라 전 계열 도입이 되어야 하나의 전형으로서 잘 자리매김할 수 있음. (A2)”

“2028 대입제도 개편과 고교학점제의 큰 방향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평가’와 ‘사교육 의존도 완화’에 있습니다. 논술전형은 현실적으로 사교육 의존도가 높고, 학교 수업만으로 대비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해, 제도 취지와 충돌하는 측면이 큼니다. 특히 인천대학교처럼 지역 거점 국립대의 경우, 논술전형 도입은 지역·계층 간 격차를 확대시키고, 고교 현장에서는 내신·수능·비교과에 더해 논술 대비까지 안내해야 하는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신설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B1)”

설문 조사와 자문 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논술전형 신설의 장점은 인재 선발보다는 새로운 지원 수요 창출로 인한 지원을 상승효과로 수렴된다. 그러나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경기, 인천 지역 학생 수요가 다수인 인천대학교에서 이러한 상승효과가 어느 정도 규모일 것이며 충분히 지속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마다 생각의 편차가 컸다. 반면, 논술전형 신설로 인한 부정적 효과는 지역사회에서의 부정적 이미지 형성, 문항 출제 및 관리 감독 부담, 교육부와 시민단체의 감독 강화 등 보다 구체적이면서 다양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2028 대입 이후 단기적으로 큰 폭의 지원을 하락 징후가 없는 상황이라면, 현재로서는 2028 대입에서 곧바로 논술 전형을 신설하는 방안보다 논술형 고사 출제 방안에 관한 사전 연구, 논술전형을 통한 충원 수요 조사 등의 사전 준비 과정이 뒷받침된 후

에 도입 여부를 타진하는 방안이 좀 더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단기적 지원을 상승을 통한 학교 인지도 제고, 인구 감소에 따른 장기적 지원을 하락 대비라는 목적에서 볼 때, 논술전형을 신설하는 방안 또한 정무적 관점에서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V-30>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논술 전형 운영(안)

1안	2안	3안
단답형, 단문형 답안 중심의 기본 사고력 평가	교과서 수준의 제시문 해석 및 논리적 서술 평가	통합적·융합적 사고력을 묻는 심화형 논술 평가

<표 IV-31>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논술 전형 운영(안)에 대한 자문 결과

구분	선택(안)	공통의견
A1	2안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 고려 시 2안이 필수임.
A2	2안	기본 취지에 맞고 고교생 역량 측정에 충분함. 타 대학 운영 형태와 유사.
A3	2안	우수 대학이 선택하는 일반적 방식. 지원풀 유지 차원에서 타 대학과 유사하게 가야 함.
B1	2안	학교 수업만으로 대비 가능한 구조여야 함. 1안은 논술 아니고 3안은 사교육 유발.
B2	2안	약술형 논술. 부담 크지 않고 수능 연계 시 학생 선호도 높음.
A4	3안	선행학습 영향평가 내에서 융합적 사고력 측정해야 함. 논리적 생각 전개 학생 발굴 취지.
B3	1안	사교육 없이 대비 가능하도록 1안 수준 출제 희망.
B4	1안	수험생 부담 완화 및 고교 현장 대비 가능 수준. 타 대학 성공 사례 참고.

논술전형 신설을 전제로 하였을 때, 현장 교사 대상 설문에서 가장 선호된 의견은 교과서 수준의 제시문 종합형 논술(38%), 약술형 논술(27%), 주요 교과목의 통합형 논술(20%) 순이었다. 이를 구체화하여 단답형, 단문형 답안 중심의 기본 사고력 평가(1안), 교과서 수준의 제시문 해석 및 논리적 서술 평가(2안), 통합적, 융합적 사고력을 묻는 심화형 논술 평가(3안)의 세 가지 방안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다.

자문 결과 현장 교사와 입학사정관은 대부분 2안이 선행학습 영향평가에서 자유롭고 타 대학의 운영 방식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학생 지원을 상승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전망하였다. 현장 교사들의 경우 2안과 1안 선호 비율이 같았는데, 1안을 선호한 이유로는 사교육 부담이 적어서 수험생 부담이 완화된다는 점을 들었다. 3안을 선호한 경우 논리적 사고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한다는 전형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상의 결과를 고려할 때 현장 교사와 입학사정관들은 논술전형의 목적을 학업 역량이나 논리적 사고력이 우수한 학생을 뽑는 것보다는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인천대학교에 지원하기 어렵거나 합격을 확신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좀 더 부담이 적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런 기준에서 2안이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는 2028학년도 대학입학제도의 개편 취지와 내용을 고려하여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대학입학전형의 구체적인 설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의 대입전형 설계에 관여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2028 대입제도 개편 확정안은 고교 내신 체제의 절대평가 비중 확대 및 상대평가 비중 약화를 통한 학생의 과목 선택권 강화, 통합형·융합형 수능 체계를 핵심으로 하며 이로 인해 대입전형 설계에서 학생부 정량 지표 및 계열별 전공 적합성 중심의 변별력이 약화되어 이를 보완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 되었다. 최근 인천대학교의 대입전형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학생의 과목 이수 정도에 따른 가산점 부여,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탐구 영역 성적 반영 유연화 등을 전형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나 경쟁 대상인 수도권 주요 대학의 다양한 전형 변화 예고와 2028 대입제도하에서 새롭게 마련해야 할 평가 요소로 인해 전형 개선의 방향과 변화폭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 요인을 고려할 때,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의 대입전형 설계에서 학생부교과전형은 정량 지표 정교화, 정성평가 부분 도입, 정량 평가 대상 과목, 수능최저학력기준 설정 등이 전형의 주요 설계 요인이 되고,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 정성평가의 요소와 내용 선정, 학생 지원을 확보를 위한 전형 이원화 등이 전형의 주요 설계 요인이 된다. 수능 전형은 전형 비율 조정, 계열별 수능 과목 반영 비율, 학생부교과 성적 혼합 여부, 정성평가 요소 도입 등이 주요 설계 요인이 되며, 기타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전형 설계 요인으로는 논술전형의 신설이 있다.

이상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현장 교사와 입학 사정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및 자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도출된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대입전형 설계의 세부 방향은 다음과 같다.

<표 V-1>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 세부 설계 방안

공통 설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별로 반영 교과와 반영 비율을 다르게 평가 - 수능최저학력기준 현행 유지 - 반영교과별 이수과목 이수단위와 성취등급에 따른 가산점을 일반 계열과 자유전공학부 다르게 설정 			
선택 설계 방안		지원을 중시	현행 유지	변별력 중시
	반영 교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과목 + 진로·융합선택과목 중 상위 N개 선택 ▶ 장점: 학교별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과목 + 계열별 반영 교과의 진로·융합선택과목 ▶ 장점: 계열별 과목 	

선택 설계 방안		<p>차이에 대한 고려가 적고, 학생의 장점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할 수 있어 학생 지원 부담 경감</p> <p>▶ 단점: 계열별 과목 이수 정도나 수준에 따른 전공 적합성을 평가에 반영하기 어려움</p>	<p>이수 정도나 수준에 따른 전공 적합성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p> <p>▶ 단점: 사회와 과학 과목 융합선택과목의 경우 학생들의 실제 학업 역량 차이를 면밀하게 평가에 반영하기 어려움</p>	
	활용 정량 지표		<p>- 석차등급 환산점수, 석차등급 병기 과목 이수 단위, 계열별 반영 교과 이수 단위를 고려한 가산점을 정량 지표로 활용</p> <p>▶ 장점: 학생의 계열별 과목 이수 정도를 변별적으로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p> <p>▶ 단점: 사회 및 과학 융합선택과목 이수 정도를 평가에 반영하기 어려움</p>	<p>- 석차등급 환산점수, 석차등급 병기 과목 이수 단위, 계열별 반영 교과 이수 단위를 고려한 가산점, 융합선택과목 성취도 환산 점수, 융합선택과목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정량 지표로 활용</p> <p>▶ 장점: 학생의 전체 과목 이수 정도를 변별적으로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p> <p>▶ 단점: 성적 산출방식이 복잡하여 학생 지원 부담 증가</p>
	추가 평가 요소		<p>- 수능최저학력기준</p> <p>▶ 장점: 대다수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학생의 전형 접근성이 높음</p> <p>▶ 단점: 수능 변별력 약화 시 실질 학업 역량이 낮은 학생이 선발될 수 있음.</p>	<p>- 수능최저학력기준, 출결</p> <p>▶ 장점: 학업 역량과 학교 생활 성실도를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p> <p>▶ 단점: 출결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요새 학생들 특성상 지원 부담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음</p>

<표 V-2>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세부 설계 방안

공통 설계 방안	-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 비율 70:30 유지			
선택 설계 방안		지원을 중시	현행 유지	변별력 중시
	평가 요소 및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 역량 삭제 후 해당 내용 다른 역량에 통합 ▶ 장점: 타 학교와 평가 요소가 유사하여 학생 지원 부담 경감 ▶ 단점: 인천대 특화형 인재 선발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 역량 포함 ▶ 장점: 인천대 특화형 인재 선발 가능 ▶ 단점: 발전 역량의 의미가 모호하여 학생 지원 부담 증가 	
	전형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형과 면접형 이원화 모집 ▶ 장점: 면접 평가에 대한 부담이 높은 학생을 포함하여 다양한 학생 지원 가능, 서류형의 경우 전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단점: 학생부교과 전형과 변별 어려움,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인원 조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형만 모집 ▶ 장점: 모든 학생 면접 평가를 통해 전공 적합도를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음 ▶ 단점: 낮은 전형 효율성, 선발 불확실성으로 인해 학생 지원을 상승요인이 부족함 	

<표 V-3> 2028학년도 인천대학교 수능위주전형 세부 설계 방안

공통 설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 상관 없이 공통사회, 공통과학 모두 반영 - 계열별 교과 반영 비율 다르게 설정 			
선택 설계 방안		지원을 중시	현행 유지	변별력 중시
	전형 평가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능 100% ▶ 장점: 전형 효율성이 높고, 현장에서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 학생 지원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능 + 학생부 교과 성적 ▶ 장점: 학교 생활 성실도를 포함하여 학생의 실질

선택 설계 방안			유지 가능 ▶ 단점: 수능 변별력 약화 시 실질 학업 역량이 낮은 학생 선발 가능	학업 역량을 고려할 수 있음. ▶ 단점: 전형 복잡성 증대로 학생 지원 부담 증가
----------	--	--	--	--

<표 V-4> 기타 전형 설계 방안

		지원을 중시	현행 유지	변별력 중시
선택 설계 방안	전형 신설	논술 전형 신설 ▶ 장점: 학생부 중심 전형에 지원하기 어려운 학생 대상으로 신규 지원 수요 창출 가능 ▶ 단점: 인천대 지원 학생 특성상 논술 전형 지원 수요 불분명, 전형 관리 부담과 비용 증가, 교육부 및 시민단체 관리 감독 강화	기타 전형 없음 ▶ 장점: 학생부 중심 평가 강화라는 최근 대입 기조에 부합, 지역사회에서의 국립대학교 이미지 유지 ▶ 단점: 경쟁 대학 대비 지원을 상승 요인 부족, 학령 인구 감소 시기에 지속적인 지원을 유지 어려울 수 있음	

2. 제언

이 연구는 2028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 취지를 고려하여 인천대학교의 구체적인 대입전형 설계 방안을 제안하고자 현장 교사와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설문 및 자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2028학년도 대입전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학생부교과전형의 변별력 확보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5등급제 대신 체제로 인한 변별력 약화에 대응하여, 석차등급 환산점수 구간을 세분화하고 계열별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평가 반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앞선 연구 결과에서 언급하였다. 이와 더불어 향후 연구에서는 출결 지표 활용 등을 검토하여 학교생활의 성실도를 평가에 반영하고, 교과 성취도 이외의 평가 요소를 활용하여 지원자 간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효율성과 고교 현장에서의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요소는 간소화하고, 평가 내용은 상세화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향후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이원화 등의 평가 형식의 변화에서는 반영 요소 및 내용, 선발 형태의 특성을 고려한 심도있는 고민이 요구된다.

셋째, 수능위주전형에서는 통합형 수능 도입 후 대입 결과 추이를 분석하여 지속보완하여 안정적인 전형 운영을 수행하고 개선점을 탐색해야 한다. 공통사회·과학로 운영되는 변화된 수능제도를 충분한 검토 후, 수능위주전형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전형개선에 반영하는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논술전형의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전형 신설에 따른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신설 전형 운영에 따른 전형 운영 부담과 더불어 수험생에게는 사교육 유발 등의 부정적 요소가 추가될 수 있다. 대학과 수험생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은 논술 전형 신설에서 반드시 고민해야 하는 요인이다. 앞선 자문의 결과를 살펴보면 논술전형을 운영하는 많은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은 논술전형 운영으로 인한 부담이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인천대에서 논술전형을 운영한다면 전형 신설 효과로 인한 지원을 상승폭이 예상보다 적거나, 학업역량이 부족한 입학생이 발생할 가능성에 관한 염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까지 국립대학 중 논술전형을 운영하는 곳은 과거부터 진행하였던 극소수의 대학뿐이며, 교육부의 논술전형 폐지 및 축소 정책 영향에 따라 국립대학에서 논술전형을 신설한 경우는 없었다. 이로 인해 논술 전형 신설이 학생 선택권의 확대라는 긍정 요소로 받아들여지기보다 지원을 집중을 통해 전형료 수입을 올리려는 행태로 비추일 위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논술전형이 도입되었을 때 그에 수반되는 결과가 과연 우수인재선발이라는 대학의 명분과 실리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고주환, 박진서, 김명중, 황현진, 박정근(2025), 「2028 대입제도 개편을 반영한 전형 개선 연구」, 가톨릭관동대학교.
- 교육부(2019),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교육부(2019. 11. 28.)
- 교육부(2021),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안)(2022-2024)」, 교육부(2021. 08. 23.)
- 교육부(2023a),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 교육부(2023. 12. 27.)
- 교육부(2023b),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안)」(2023. 04. 12.)
- 김영록, 유진희, 조기연, 신종원, 김양희, 조희권, 구자연, 손선열, 김민자, 김민경(2024), 「학생 선택형 고교 교육과정에 따른 대입전형 평가 반영 연구」, 전남대학교 입학본부.
- 박주형, 문지현, 남수진(2024), 「대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전형 개선 연구」, 인천대학교.
- 박수미, 김도형, 김수영, 홍다현(2024), 「건국대학교 입학전형 합격자 종단연구: 15차년도」, 건국대학교.
- 안양준, 강지영, 김재원(2025), 「전형유형별 입학생의 학업성취도 종단연구」, 성신여자대학교.
- 염상길, 남지수(2025), 「전형유형별 입학생 학업성취도 및 적응 분석 연구」, 가톨릭대학교 입학처.
- 오은주, 이정훈, 정지희, 이성욱(2024), 「전형 유형별 학생의 대학 내 학업성과 등 비교분석 -입학전형에 따른 대학생의 대학생활에 대한 종단연구」, 단국대학교.
- 우신영, 최용걸, 김진원(2023), 「대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전형 개선 연구」, 인천대학교.
- 이규민, 고동현, 김성일, 김지연, 김현지(2025),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입시전형 개선 연구」, 연세대학교.
- 이정림, 배정운, 박해정, 안광훈, 김하연, 진하경, 백은영, 장현경, 장자현, 장윤지(2025), 「2028 대입전형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 건국대학교.
- 임연규, 고수연, 김수현(2024), 「2024년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생 종단연구」, 광운대학교.
- 정낙원, 김태현, 김민영(2024), 「2024 서울여자대학교 입학생 종단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입학팀.
- 조윤형, 최철, 고은애, 김혜원(2025),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른 학생부위주전형 평가방법 개선연구: C대학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입학처 입학관리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25),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RM 2025-21-113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8 대입제도 개편 확정안에 따른 대입 전형 개선 방향에 관한 설문]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입학관리과입니다.

인천대학교에서는 2028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 확정안 발표에 따른 고교교육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인천대학교에 적합한 인재 선발을 위하여 「대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전형개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인천대학교의 2028학년도 대입전형계획의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공정하고 타당한 방향으로 인천대학교의 대학입학전형을 개선하고자 하오니 선생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4년 9월

「인천대학교 입학관리과」

< 설문 참여자 정보 >

1. 소속: ① 고교 교사 ② 대학 입학관계자 ③ 기타()
2. 교육 경력: ① 5년 이하 ② 6~15년 ③ 16~25년 ④ 26년 이상
3. 대입 지도 경력: ① 3년 이하 ② 4~6년 (③ 6~9년 ④ 10년 이상)
4. 소속 기관 소재지: ① 서울 ② 경기 ③ 인천 ④ 기타()
5. 고등학교 유형: ① 공립 ② 사립 ③ 기타()
6. 고등학교 세부 유형: ① 일반고/자율고 ② 특목고(과고/외고/국제고) ③ 특목고(미스터고/예고/체고) ④ 기타()

I.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의 과목별 성적 산출 및 대학 제공 방식은 '보통교과'에 해당하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성적에 대하여 5단계의 성취도와 5등급의 석차등급을 병기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아래의 설문에 답해 주십시오.

1. 2028 대입제도 개편 확정안에 가장 적합한 학생부교과전형의 평가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과 100%
- ② 교과 + 서류정성평가
- ③ 교과 + 수능최저학력기준
- ④ 교과 + 면접
- ⑤ 기타 ()

2. 2028 대입제도 개편 확정안에 가장 적합한 학생부교과전형의 정량평가 반영 교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교과
- ② 국영수사과
- ③ 계열에 따라 국영수사 또는 국영수과
- ④ 석차등급 상위의 일부 과목
- ⑤ 기타 ()

3. 2028 대입제도 개편 확정안에 가장 적합한 학생부교과전형의 정량평가 반영 과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통과목 + 일반선택과목 + 진로선택과목 + 융합선택과목
- ② 공통과목 + 일반선택과목 + 진로선택과목
- ③ 공통과목 + 일반선택과목
- ④ 공통과목
- ⑤ 기타 ()

4. 2026학년도 인천대학교 대학입시전형의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반영 방법 및 산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반영학년 : 고등학교 전소 학년 100%
※ 학년별 가중치 없으며 고교 졸업자 및 예정자 모두 3학년 1학기 성적까지만 반영
- 활용지표 : 과목별 석차등급 및 이수단위(학점)
- 반영방법
 - 계열·모집단위별 반영교과에 속한 모든 교과목을 해당 비율로 반영(아래 표 참고)
 - 검정고시출신자는 검정고시 합격시험의 전 과목 평균점수를 비교내신으로 환산, 반영

전형명	계열 및 모집단위	반영교과 및 반영비율(%)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 포함)	* 사회 (한국사 포함) 또는 과학	과학
교과성적우수자 지역균형 사회통합	인문계열, 패션산업학과, 디자인학부	30%	20%	30%	20%	-	-
	자연계열(패션산업학과 제외)	20%	30%	30%	-	-	20%
실기우수자	조형예술학부, 디자인학부, 공연예술학과, 스포츠과학부, 체육교육과	40%	-	30%	30%	-	-
실기우수자	운동건강학부	40%	-	30%	-	30%	-
특기자	예체능계열	40%	-	30%	30%	-	-

※ 실기우수자전형 운동건강학부는 사회(한국사 포함) 또는 과학 중 상위 교과군 반영

- 산출방법 ※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교과별 석차등급 = $\frac{\sum(\text{반영과목 등급} \times \text{이수단위(학점)})}{\sum \text{반영과목 이수단위(학점)}}$
 - 교과성적 최종 산출점수

$$\sum(\text{교과별 석차등급 환산점수} \times \text{교과별 반영비율}) + \text{가산점}[\sum(\text{반영교과별 이수과목 이수단위(학점)}) \times 0.05]$$

4-1. 2028 대입제도 개편 확정안을 고려할 때, 위 반영 방법과 산출 방법의 적절성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하지 않다 ② 적절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적절하다 ⑤ 매우 적절하다

4-2. 2028 대입제도 개편 확정안을 고려할 때, 위 반영 방법과 산출 방법의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5. 2026학년도 인천대학교의 수시 전형 중 학생부교과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열 및 모집단위	수능 최저학력기준	수능 반영 및 지정영역
인문계열, 자연계열 디자인학부 (동북아국제통상전공 제외)	2개 영역 등급합 7 이내	<전 계열, 전 모집단위>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탐구(상위1과목)
동북아국제통상전공	2개 영역 등급합 6 이내	

- 한국사 응시 필수
- 최저기준을 충족하는 영역에 관계없이 4개 영역에 모두 응시하여야 함
- 탐구영역은 상위 1개 과목 반영(단, 직업탐구 또는 제2외국어/한문 영역 인정하지 않음)

5-1. 2028 대입의 수능 체제를 고려할 때, 위 기준의 적절성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하지 않다 ② 적절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적절하다 ⑤ 매우 적절하다

5-2. 2028 대입의 수능 체제를 고려할 때, 수능최저학력기준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II.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1.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가장 적합한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서류 100%
 ② 서류 + 면접(30% 미만)
 ③ 서류 + 면접(30%)
 ④ 서류 + 면접(30% 초과)
 ⑤ 기타 ()

2.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려할 때, 고교 정상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개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성평가 요소의 기술 상세화
 ② 다른 대학 대비 정성평가 요소의 차별화
 ③ 정성평가 방식의 사례 공개
 ④ 교과와 비교과 평가의 평가 요소 이원화
 ⑤ 기타 ()

3. 2026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의 정성평가 요소 및 평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요소	비율	서류평가 평가내용
학업역량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와 기초학업역량 및 학업의 발전정도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진로역량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정도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 수준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경험 및 노력
발전역량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에 대한 대안적 해결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과제나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고 해결하고자 한 노력 자기주도적인 학업 노력
공동체역량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며 구성원들과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을 위해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공동체의 기본 윤리와 원칙을 준수하는 태도

3-1.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려할 때, 위 정성평가 요소 및 평가 내용의 적절성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하지 않다 ② 적절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적절하다 ⑤ 매우 적절하다

3-2.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려할 때, 대학에서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성평가 요소의 간소화
 ② 정성평가 요소의 다양화
 ③ 정성평가 인원의 증가
 ④ 교과 평가의 비중 확대
 ⑤ 기타 ()

3-3.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려할 때, 위 정성평가 요소 및 평가 내용의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4.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려할 때,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과영역에서 가장 비중 있게 살펴야 할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동아리활동
 ② 봉사활동
 ③ 진로활동
 ④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⑤ 기타 ()

Ⅲ. 정시모집

1. 2028 대입 개편 확정안을 고려할 때, 수능 위주 전형의 적정 비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30% 미만
- ② 30%
- ③ 31~39%
- ④ 40% 이상
- ⑤ 기타 ()

2. 2026학년도 인천대학교 정시모집의 수능 반영 영역 및 반영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능 성적은 백분위점수(국어, 수학, 탐구)와 등급(영어)을 활용하여 반영함
- 탐구영역은 2개 과목을 반영하며, 제2외국어/한문 과목으로 대체 불가
- 한국사는 필수 응시영역으로 응시 여부만 확인하며 점수는 반영하지 않음
- 전형·계열·모집단위별 수능 반영영역 중 1개의 영역이라도 성적이 없거나 미응시할 경우 지원 불가(아래 표 참고)

전형구분 [가/다/러]	계열 및 모집단위	수능 성적 영역별 반영비율(%)						수능 총점	
		국어	수학	탐구(2개 과목)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직업			
일반학생 기회균형 농어촌학생	인문계열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제외) 패션산업학과	35	30	25		-	10	응시 필수	1,000
	자연계열 (패션산업학과 제외)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25	35	30		-			1,000
	디자인학부	45	15	30		-			1,000
	운동건강학부	40	-	40		-	20		600
	체육교육과	45	-	45		-	10		500
	스포츠과학부								400
	조형예술학부 공연예술학과								300
특성화고출신자	인문계열 패션산업학과	35	30	25		10	1,000		
	자연계열 (패션산업학과 제외)	25	35	30			1,000		

○ 영어영역 등급별 점수표

등급	1	2	3	4	5	6	7	8	9
점수	100	98	95	80	70	60	30	10	0

인천대학교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전형 개선 연구」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대입제도 개편 방안, 고교학점제 도입,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비하여 전형 개선 방향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고견을 들어 **공정하고 타당한 인천대학교의 대학입학전형 정착과 고교 교육에 기여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오니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조사의 내용과 결과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철저히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025년 11월

인천대학교 입학관리과

※ 문의: 032-835-9273, 9289

1 기본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보조금시스템증빙용)

1-1. 개인정보 수집 내역

소속		성명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본인명의)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제2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수집, 이용, 제공) 내역을 안내해드리오니 자세히 읽은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필수정보]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동의 필수)

수집 및 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소속, 성명,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본인명의) 계좌번호	보조금 중복 부정수급 검증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까지

※ 위 동의 안내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 거부할 경우 자문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3. 기타 고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3)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가 처리(수집, 이용, 제공 등)됩니다.

개인정보 항목	처리사유	수집근거
주민등록번호	보조금 중복 부정수급 검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3

2025년 11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2 학생부교과전형 개선방향

2-1. 다음은 '학생부교과 5등급제'관련 질문입니다. 1차 설문 결과와 함께 검토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분	질문 내용		
1차 설문 결과	Q. 2028학년도 5등급 체제하에서 학생부교과전형의 공정성과 변별력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용	N	%
	석차등급의 환산점수 구간 세분화	63	33.0
	성취도(A~E)를 활용한 평가 보완	23	12.0
	과목 이수 세부 정보(원점수, 과목 평균, 이수자 수)를 활용한 평가 보완	66	34.6
	교과 이수 현황 및 과목 선택의 적절성을 활용한 평가 보완	34	17.8
	기타	5	2.6
	합계	191	100
질문	<p><기타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수과목 및 교과세부특기사항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정량60 서류40 - 위의 4개로 보완하면 5등급체제의 취지와 맞지않음 - 대학이 직접 면접을 통해 선발해야 함. - 비교과 영역 추가(교과세특, 출결 등) - 수능 최저 		
	<p>위의 교사들의 1차 설문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대학 관계자로서 2028학년도 5등급 체제하에서 학생부교과전형의 공정성과 변별력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서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p>		
의견			

2-2. 다음은 '학생부교과 변별력확보'관련 질문입니다. 1차 설문결과와 함께 검토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분	질문 내용		
1차 설문 결과	Q. 학생부교과전형에서 공정성과 변별력 확보를 위해 수능 최저학력기준 외에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평가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용	N	%
	출결 현황	51	26.7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성평가 활용	52	27.2
	지원 계열/전공 관련 교과 이수, 성취도, 석차등급, 원점수, 분포비율 등 가능한 지표 병합 활용	73	38.2
	상위 N개 과목의 성취도, 석차 등급, 원점수, 성취도 분포 비율 환산 점수	13	6.8
	기타	2	1.1
	합계	191	100
질문	<p><기타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결현황+세번째 문항 - 계열별 관련교과 이수 단위수, 필수/권장과목 이수 여부 <p>위의 교사들의 1차 설문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대학 관계자로서 학생부교과전형에서 공정성과 변별력 확보를 위해 수능 최저학력기준 외에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평가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서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p>		
	의견		

2-3. 다음은 '학생부교과 성적계산'관련 질문입니다. 1차 설문결과와 함께 검토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분	질문 내용																																																																									
1차 설문 결과	<p>Q.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려할 때, 아래 반영 방법과 산출 방법의 적절성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p>○ 반영학년 : 고등학교 전소 학년 100% <small>※ 학년별 가중치 없으며 고교 졸업자 및 예정자 모두 3학년 1학기 성적까지만 반영</small></p> <p>○ 활용지표 : 과목별 석차등급 및 이수단위(학점)</p> <p>○ 반영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모집단위별 반영교과에 속한 모든 교과목을 해당 비율로 반영(아래 표 참고) • 검정고시출신자는 검정고시 합격시험의 전 과목 평균점수를 비교내신으로 환산, 반영 <table border="1" data-bbox="296 663 1305 1055"> <thead> <tr> <th rowspan="2">전형명</th> <th rowspan="2">계열 및 모집단위</th> <th colspan="5">반영교과 및 반영비율(%)</th> <th rowspan="2">과학</th> </tr> <tr> <th>국어</th> <th>수학</th> <th>영어</th> <th>사회 (한국사 포함)</th> <th>* 사회 (한국사 포함) 또는 과학</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교과성적우수자 지역균형 사회통합</td> <td>인문계열, 패션산업학과, 디자인학부</td> <td>30%</td> <td>20%</td> <td>30%</td> <td>20%</td> <td>-</td> <td>-</td> </tr> <tr> <td>자연계열(패션산업학과 제외)</td> <td>20%</td> <td>30%</td> <td>30%</td> <td>-</td> <td>-</td> <td>20%</td> </tr> <tr> <td>실기우수자</td> <td>조형예술학부, 디자인학부, 공연예술학과, 스포츠과학부, 체육교육과</td> <td>40%</td> <td>-</td> <td>30%</td> <td>30%</td> <td>-</td> <td>-</td> </tr> <tr> <td>실기우수자</td> <td>운동건강학부</td> <td>40%</td> <td>-</td> <td>30%</td> <td>-</td> <td>30%</td> <td>-</td> </tr> <tr> <td>특기자</td> <td>예체능계열</td> <td>40%</td> <td>-</td> <td>30%</td> <td>30%</td> <td>-</td> <td>-</td> </tr> </tbody> </table> <p><small>※ 실기우수자전형 운동건강학부는 사회(한국사 포함) 또는 과학 중 상위 교과군 반영</small></p> <p>○ 산출방법 <small>※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smal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별 석차등급 = $\frac{\sum(\text{반영과목 등급} \times \text{이수단위(학점)})}{\sum \text{반영과목 이수단위(학점)}}$ • 교과성적 최종 산출점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 $\sum(\text{교과별 석차등급 환산점수} \times \text{교과별 반영비율}) + \text{가산점}[\sum(\text{반영교과별 이수과목 이수단위(학점)}) \times 0.05]$ </div> <table border="1" data-bbox="264 1391 1430 1736"> <thead> <tr> <th>내용</th> <th>N</th> <th>%</th> </tr> </thead> <tbody> <tr> <td>매우 적절하다</td> <td>33</td> <td>17.3</td> </tr> <tr> <td>적절하다</td> <td>87</td> <td>45.5</td> </tr> <tr> <td>보통이다</td> <td>46</td> <td>24.1</td> </tr> <tr> <td>적절하지 않다</td> <td>24</td> <td>12.6</td> </tr> <tr> <td>매우 적절하지 않다</td> <td>1</td> <td>0.5</td> </tr> <tr> <td>합계</td> <td>191</td> <td>100</td> </tr> </tbody> </table>	전형명	계열 및 모집단위	반영교과 및 반영비율(%)					과학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 포함)	* 사회 (한국사 포함) 또는 과학	교과성적우수자 지역균형 사회통합	인문계열, 패션산업학과, 디자인학부	30%	20%	30%	20%	-	-	자연계열(패션산업학과 제외)	20%	30%	30%	-	-	20%	실기우수자	조형예술학부, 디자인학부, 공연예술학과, 스포츠과학부, 체육교육과	40%	-	30%	30%	-	-	실기우수자	운동건강학부	40%	-	30%	-	30%	-	특기자	예체능계열	40%	-	30%	30%	-	-	내용	N	%	매우 적절하다	33	17.3	적절하다	87	45.5	보통이다	46	24.1	적절하지 않다	24	12.6	매우 적절하지 않다	1	0.5	합계	191	100
	전형명			계열 및 모집단위	반영교과 및 반영비율(%)					과학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 포함)	* 사회 (한국사 포함) 또는 과학																																																																				
교과성적우수자 지역균형 사회통합	인문계열, 패션산업학과, 디자인학부	30%	20%	30%	20%	-	-																																																																			
	자연계열(패션산업학과 제외)	20%	30%	30%	-	-	20%																																																																			
실기우수자	조형예술학부, 디자인학부, 공연예술학과, 스포츠과학부, 체육교육과	40%	-	30%	30%	-	-																																																																			
실기우수자	운동건강학부	40%	-	30%	-	30%	-																																																																			
특기자	예체능계열	40%	-	30%	30%	-	-																																																																			
내용	N	%																																																																								
매우 적절하다	33	17.3																																																																								
적절하다	87	45.5																																																																								
보통이다	46	24.1																																																																								
적절하지 않다	24	12.6																																																																								
매우 적절하지 않다	1	0.5																																																																								
합계	191	100																																																																								
질문	<p>위의 교사들의 1차 설문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대학 관계자로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려할 때, 아래 반영 방법과 산출 방법의 적절성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서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p>																																																																									
의견																																																																										

2-4. 다음은 '학생부교과 변별력확보'관련 질문입니다. 1차 설문결과와 함께 검토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분	질문 내용							
1차 설문 결과	Q. 아래 정성평가 반영 요소 중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정량평가를 보완하는 데 효과적인 것을 우선 순위대로 5가지 선택해 주세요							
	내용	출결 사항	교과목 선택 및 교과 이수 현황	교과 성적 추이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 활동	교내 봉사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순위	46	61	14	61	3	0	6
	2순위	17	62	33	54	10	3	12
	3순위	28	27	47	43	22	2	22
	4순위	32	24	39	18	38	8	32
	5순위	30	9	21	11	54	20	46
	합계	153	183	154	187	127	33	118
질문	위의 교사들의 1차 설문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대학 관계자로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정량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변별력 확보)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서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								

3 학생부종합전형 개선방향

3-1. 다음은 '학생부종합' 관련 질문입니다. 1차 설문결과와 함께 검토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분	질문 내용		
1차 설문 결과	Q.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려할 때, 고교 정상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개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N	%
	정성평가 요소의 기술 상세화	79	41.4
	다른 대학 대비 정성평가 요소의 차별화	20	10.5
	정성평가 방식의 사례 공개	74	38.7
	교과와 비교과 평가의 평가 요소 이원화	18	9.4
	기타	0	0
합계	191	100	
질문	위의 교사들의 1차 설문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대학 관계자로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려할 때, 고교 정상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개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서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			

3-2. 다음은 '학생부종합 평가요소'관련 질문입니다. 1차 설문결과와 함께 검토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분	질문 내용																									
1차 설문 결과	Q.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려할 때, 아래 정성평가 요소 및 평가 내용(학업역량, 진로역량, 발전역량, 공동체역량)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요소	비율																								
	서류평가 평가내용																									
	학업역량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 기초학업역량 및 학업의 발전정도 •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 •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진로역량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정도 •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 수준 •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경험 및 노력 																									
	발전역량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에 대한 대안적 해결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 •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과제나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고 해결하고자 한 노력 • 자기주도적인 학업 노력 																									
	공동체역량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며 구성원들과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을 위해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태도와 •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공동체의 기본 윤리와 원칙을 준수하는 태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내용</th> <th style="width: 25%;">N</th> <th style="width: 25%;">%</th> </tr> </thead> <tbody> <tr> <td>현행 유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99</td> <td style="text-align: center;">51.8</td> </tr> <tr> <td>평가 내용 상세화</td> <td style="text-align: center;">54</td> <td style="text-align: center;">28.3</td> </tr> <tr> <td>평가 내용 간소화</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5</td> </tr> <tr> <td>일부 평가요소 제외</td> <td style="text-align: center;">17</td> <td style="text-align: center;">8.9</td> </tr> <tr> <td>새로운 평가요소 추가</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0.5</td> </tr> <tr> <td>역량 명칭 변경</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r> <tr> <td>합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91</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r> </tbody> </table>			내용	N	%	현행 유지	99	51.8	평가 내용 상세화	54	28.3	평가 내용 간소화	20	10.5	일부 평가요소 제외	17	8.9	새로운 평가요소 추가	1	0.5	역량 명칭 변경	0	0	합계	191	100
내용	N	%																								
현행 유지	99	51.8																								
평가 내용 상세화	54	28.3																								
평가 내용 간소화	20	10.5																								
일부 평가요소 제외	17	8.9																								
새로운 평가요소 추가	1	0.5																								
역량 명칭 변경	0	0																								
합계	191	100																								
(1차설문) (간소화/제외)를 선택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내용																									
평가내용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 역량이란 발전 역량을 통합해도 좋을거 같습니다. 타 대학들도 합쳐서 평가중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이 적어질 것 같습니다. - 평가기준이 탐구력, 발전가능성 등 추상적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영역3가지로 단순화 필요. - 진로역량과 성장역량 등 너무 세분화되어 있음. 거의 비슷함. - 발전 역량이라는 것이 매우 모호한 기준이라 생각되어짐. - 기초학업, 진로역량, 공동체 역량 세개 영역으로 -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으로 간소화 																									
일부평가 요소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가능성의 경우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평가 점수에 영향을 받는 항목으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에 포함되는 항목이기에 제외 시켜도 된다고 생각함. - 발전역량에 대한 부분은 나머지 3가지 역량으로 충분히 포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발전역량을 빼서 진로역량이나 공동체 역량에 포함해도 될 것으로 생각함. - 발전역량이 학업역량, 진로역량에 충분히 포함된다고 생각함. - 발전 역량: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에서 평가 가능 - 발전역량이 다른 요소와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됨 																									

	구분	내용
질문	위의 교사들의 1차 설문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대학 관계자로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려할 때, 인천대학교의 정성평가 요소 및 평가 내용 중 “발전역량”에 대한 개선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포함하여 응답 부탁드립니다.	
의견		

3-3. 다음은 '학생부종합 이원화'관련 질문입니다. 1차 설문결과와 함께 검토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분	질문 내용	
1차 설문 결과	Q. 2026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의 자기추천전형은 다단계전형으로 서류평가를 통해 1단계 합격자를 선발하고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대학교 학생부종합(자기추천전형)을 면접형(서류+면접전형)과 서류형(서류100% 전형)으로 이원화 선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내용
	긍정	- 학교 측에서 그렇게 하는 게 실효성 있다고 판단한다면 해도 좋을 듯. 요즘 상위권 학교들을 중심으로 이원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듯. - 다양한 기회의 제공 측면에서 이원화 선발도 나쁘지 않으나 면접형과 서류형에서 뽑고자 하는 인재상의 차이가 명확해야 한다고 봅니다.
긍정	- 면접전형이 성적이 조금 부족하나 학교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충실히 기능한다면 이원화 선발에 동의한다. - 좋다고 생각함. 많은 학교에서 두 전형을 구분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 학생들도	

구분	내용
	<p>선택의 폭이 넓어 긍정적으로 생각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 장점이 다른 친구들을 모두 포용할 수 있도록 이원화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지원자의 특성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트랙을 나누어 주어 우수 입학 자원 선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함. - 각 전형의 차이점 및 취지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잘 설명된다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함. - 학생의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고 학교의 입장에서 학생선발이 용이할 것으로 보임 - 진로역량 중심의 면접형과 학업역량 중심의 서류평가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본인이 강점인 부분을 드러낼 수 있는 유형을 선택하도록 만든점이 잘되었다고 생각함 - 발표에 특화되지 않은 역량있는 학생들을 골고루 뽑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이원화 선발을 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성향에 맞게 지원가능하기에 좋습니다. - 학생의 장점에 따라 지원할 수 있기에 도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적합한 방식이라 생각됩니다. - 좋습니다. 면접에 강한 학생이 있고 약한 학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 학생 선발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한다면 이원화도 괜찮을 듯합니다. - 서류평가의 경우 수능 최저 등을 통해 학생의 학업역량 확인 필요 - 서류를 강화하는 방안이나 면접 등으로 대신한다면 좋을거 같아요 - 학생들이 요구하는 전형이 다를 것이니 이원화 선발이 좋습니다. - 서류+면접. 그러나 학교엔 서류형이 지원자수가 늘어 좋을듯 - 전형별 목적과 그 결과가 부합한다면 반대할 필요는 없다 - 좀 더 효율적인 입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 인원수를 적절히 안배한다면 긍정적임 -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하대 포함 타학교들이 이원화를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서류100보다는 면접을 통한 단계별 선발이 좀 더 학생선발의 유의미성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서류100의 경우는 학생 입장에서 별다르게 준비할 게 없어서 보험용 처럼 생각하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음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한 대리 탐구 보고서 작성, 활동 방향 설정 등) -> 해당 활동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기에 면접을 통해 선발하는 것이 실제 학생들의 역량을 확인하는데 좋을 것이라 생각함. - 하나로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 전형을 나누면서 인원이 나뉘지면서 전형별 인원이 적어 학생들이 무척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이 있다 - 서류형 신설이 학교 면접 심사인원의 부족이라면 어쩔수 없으나 면접으로 기회를 호가대해 주는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 상향 평준화된 학생부 및 5등급 체제, 블라인드 학생부 등으로 인해 서류만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가 써온 보고서를 AI를 돌려 만든 생기부를 걸러내기 위한 면접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서류 100 전형에서는 타대학 중복 합격이 많을 것이고 인천대에는 이월 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염려된다. - 해당 모집 단위의 모집 인원이 줄어들 수 있기에 학생들이 지원을 망설일 수도 있

구분	내용
	<p>을거 같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형을 통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 서류 내용을 검증할 평가 방법이 면접입니다. - 학종은 면접형으로 서류를 보완하고 지원동기와 의지를 직접 표현하고 확인이 필요하다. - 이원화보다는 면접형으로 진행하여 학생의 참된 능력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일원화시켜서 면접형만 존재해도 학생부종합전형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hr/> <p>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대는 교과전형을 두개로 운영하고 있음. 학종도 2개로 운영하면 전형이 너무 많아 전형별 모집인원이 크게 줄어들을 우려가 있음. 서류형의 경우 인원을 적게하고 단과대학별 통합선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아무래도 면접은 자원을 많이 투입해야 하는 전형이므로 어쩔수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국립대로서 면접을 안 한다면 수능 최저라도 넣는 것을 넣어 주었으면 하다. 학교현장에서 끝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 학생들마다 다르겠지만 면접에 약한 아이들에겐 유리, 그게 아닌 아이들에게는 고민의 가중
질문	<p>위의 교사들의 1차 설문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대학 관계자로서 인천대학교 학생부종합(자기추천전형)을 면접형(서류+면접전형)과 서류형(서류100% 전형)으로 이원화 선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단점을 고려하여 응답 부탁드립니다.</p>
의견	

4 수능위주전형 개선방향

4-1. 다음은 '수능위주 일반학생전형' 관련 질문입니다. 1차 설문결과와 함께 검토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분	질문 내용		
1차 설문 결과	Q.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고려할 때, 수능 위주 전형에서 수능 성적 반영 방식과 관련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내용	N	%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의 반영 비율 확대	55	28.8
	계열별 필수 반영 과목 지정	65	34.0
	전 과목 균등 반영	27	14.1
	선택 과목에 따른 가중치 부여	41	21.5
	기타	3	1.6
	합계	191	100
질문	<p><기타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별 반영 비율 적용(예: 자연공학계열 수학 비중 높게) - 계열별로 반영 비율 차별화 - 출결 학생부 일부반영 <p>위의 교사들의 1차 설문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대학 관계자로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고려할 때, 수능 위주 전형에서 수능 성적 반영 방식과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포함하여 응답 부탁드립니다.</p>		
	의견		

5 논술 전형 도입방향

5-1. 다음은 '논술 전형 도입'관련 질문입니다. 1차 설문결과와 함께 검토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분	질문 내용		
1차 설문 결과	Q.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서·논술형 평가 도입 검토를 고려할 때, 인천대학교에 논술 전형의 도입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	N	%
	매우 필요하다	18	9.4
	필요하다	49	25.7
	보통이다	65	34.0
	필요하지 않다	30	15.7
	전혀 필요하지 않다	29	15.2
	합계	191	100
	Q. 논술 전형이 도입될 경우, 최저학력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	N	%
	필요하지 않다(최저학력기준 X)	37	19.4
	필요하다(최저학력기준 O)	154	80.6
	합계	191	100
Q. 논술 전형이 도입될 경우, 어떤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	N	%	
교과서 수준의 제시문 종합형 논술	72	37.7	
시사 이슈와 교과 내용 결합형 논술	24	12.6	
전체 주요 교과(인문/사회/수리)의 통합형 논술	39	20.4	
약술형 논술	51	26.7	
기타	5	2.6	
합계	191	100	
질문	위의 교사들의 1차 설문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대학 관계자로서 인천대학교에 논술전형의 도입에 따른 장단점을 고려하여(소속 대학의 경험 등) 인천대학교 논술전형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응답 부탁드립니다.		
의견			

인천대학교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전형 개선 연구」 2차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대입제도 개편 방안, 고교학점제 도입,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비하여 전형 개선 방향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고견을 들어 **공정하고 타당한 인천대학교의 대학입학전형 정착과 고교 교육에 기여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오니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조사의 내용과 결과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철저하게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025년 11월

인천대학교 입학관리과

※ 문의: 032-835-9273, 9289

1 자문위원 정보

1. 성별: ① 남 ② 여
2. 학력: ① 학사 ② 석사 ③ 박사 ④ 박사 수료
3. 업무 유형: ① 교사 ② 입학사정관
4. 업무 경력 : ① 2년 미만 ② 2년 이상~5년 미만 ③ 5년 이상~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5. 귀하가 근무하는 학교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국립 ② 공립 ③ 사립 ④ 기타()

2 기본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보조금시스템증빙용)

2-1. 개인정보 수집 내역

소속		성명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본인명의)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제2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수집, 이용, 제공) 내역을 안내해드리오니 자세히 읽은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필수정보]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동의 필수)

수집 및 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소속, 성명,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본인명의) 계좌번호	보조금 중복 부정수급 검증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까지

※ 위 동의 안내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 거부할 경우 자문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3. 기타 고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3)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가 처리(수집, 이용, 제공 등)됩니다.

개인정보 항목	처리사유	수집근거
주민등록번호	보조금 중복 부정수급 검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3

2025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3 학생부교과전형 개선방향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비한 인천대학교에서 '학생부교과전형' 설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의 내용을 살펴봐 주시고 근거를 포함한 의견을 작성 부탁드립니다.

구분	내용							
질의	3-1. 학생부교과전형 개선 시 과목별 반영 비율은 어떻게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table border="1"> <thead> <tr> <th>1안</th> <th>2안</th> <th>3안</th> </tr> </thead> <tbody> <tr> <td> 계열 상관없이 전체 교과를 동일 비율로 평가하는 방안 예) 인문계열, 자연계열 : 국어 25%, 수학 25%, 영어 25%, 사회 15%, 과학 15% </td> <td> 계열별로 반영 교과와 반영 비율을 다르게 평가하는 방안 예) 인문계열 : 국어 30%, 수학 20%, 영어 30%, 사회 20% 자연계열 : 국어 20%, 수학 30%, 영어 30%, 과학 20% </td> <td> 계열별 전공 적합도가 높은 과목의 평가 비중을 확연히 높이는 방안 예) 인문계열 : 국어 30%, 수학 15%, 영어 30%, 사회 25% 자연계열 : 국어 20%, 수학 35%, 영어 25%, 과학 25% </td> </tr> </tbody> </table>	1안	2안	3안	계열 상관없이 전체 교과를 동일 비율로 평가하는 방안 예) 인문계열, 자연계열 : 국어 25%, 수학 25%, 영어 25%, 사회 15%, 과학 15%	계열별로 반영 교과와 반영 비율을 다르게 평가하는 방안 예) 인문계열 : 국어 30%, 수학 20%, 영어 30%, 사회 20% 자연계열 : 국어 20%, 수학 30%, 영어 30%, 과학 20%	계열별 전공 적합도가 높은 과목의 평가 비중을 확연히 높이는 방안 예) 인문계열 : 국어 30%, 수학 15%, 영어 30%, 사회 25% 자연계열 : 국어 20%, 수학 35%, 영어 25%, 과학 25%	
1안	2안	3안						
계열 상관없이 전체 교과를 동일 비율로 평가하는 방안 예) 인문계열, 자연계열 : 국어 25%, 수학 25%, 영어 25%, 사회 15%, 과학 15%	계열별로 반영 교과와 반영 비율을 다르게 평가하는 방안 예) 인문계열 : 국어 30%, 수학 20%, 영어 30%, 사회 20% 자연계열 : 국어 20%, 수학 30%, 영어 30%, 과학 20%	계열별 전공 적합도가 높은 과목의 평가 비중을 확연히 높이는 방안 예) 인문계열 : 국어 30%, 수학 15%, 영어 30%, 사회 25% 자연계열 : 국어 20%, 수학 35%, 영어 25%, 과학 25%						
답변	- 해당 방안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학생부교과전형에서 과목별 반영 비율에 대해 기타 의견이나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는 점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질의	3-2. 학생부교과전형 개선 시 반영해야 할 교과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table border="1"> <thead> <tr> <th>1안</th> <th>2안</th> <th>3안</th> </tr> </thead> <tbody> <tr> <td> 공통과목 + 진로·융합선택 과목 중 상위 N개 </td> <td> 공통과목 + 계열별 반영 교과의 진로·융합선택과목 </td> <td> 공통과목 + 진로·융합선택 과목(전체) </td> </tr> </tbody> </table>	1안	2안	3안	공통과목 + 진로·융합선택 과목 중 상위 N개	공통과목 + 계열별 반영 교과의 진로·융합선택과목	공통과목 + 진로·융합선택 과목(전체)	
1안	2안	3안						
공통과목 + 진로·융합선택 과목 중 상위 N개	공통과목 + 계열별 반영 교과의 진로·융합선택과목	공통과목 + 진로·융합선택 과목(전체)						
답변	- 해당 방안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학생부교과전형에서 반영해야 하는 교과목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나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는 점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구분	내용							
질의	3-3. 학생부교과전형 개선 시 반영해야 할 정량 지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264 282 651 338">1안</th> <th data-bbox="651 282 1037 338">2안</th> <th data-bbox="1037 282 1426 338">3안</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64 338 651 629">교과별 석차등급 환산점수, 석차등급 병기 과목 이수 단위</td> <td data-bbox="651 338 1037 629">교과별 석차등급 환산점수, 석차등급 병기 과목 이수 단위, 계열별 반영 교과 이수 단위를 고려한 가산점</td> <td data-bbox="1037 338 1426 629">교과별 석차등급 환산점수, 석차등급 병기 과목 이수 단위, 계열별 반영 교과 이수 단위를 고려한 가산점, 융합선택과목 성취도 환산 점수, 융합선택과목 성취도별 분포 비율</td> </tr> </tbody> </table>	1안	2안	3안	교과별 석차등급 환산점수, 석차등급 병기 과목 이수 단위	교과별 석차등급 환산점수, 석차등급 병기 과목 이수 단위, 계열별 반영 교과 이수 단위를 고려한 가산점	교과별 석차등급 환산점수, 석차등급 병기 과목 이수 단위, 계열별 반영 교과 이수 단위를 고려한 가산점, 융합선택과목 성취도 환산 점수, 융합선택과목 성취도별 분포 비율	
1안	2안	3안						
교과별 석차등급 환산점수, 석차등급 병기 과목 이수 단위	교과별 석차등급 환산점수, 석차등급 병기 과목 이수 단위, 계열별 반영 교과 이수 단위를 고려한 가산점	교과별 석차등급 환산점수, 석차등급 병기 과목 이수 단위, 계열별 반영 교과 이수 단위를 고려한 가산점, 융합선택과목 성취도 환산 점수, 융합선택과목 성취도별 분포 비율						
답변	<p>- 해당 방안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p> <p>- 학생부교과전형에서 반영해야 하는 정량지표와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나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는 점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p>							
질의	3-4. 학생부교과전형 개선 시 적정 수능최저학력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p>※ 인천대학교 2027학년도 수능최저학력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국제통상전공: 2개합 6이내 - 인문계열, 자연계열, 디자인학부(동북아국제통상전공 제외): 2개합 7이내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264 1155 651 1234">1안</th> <th data-bbox="651 1155 1037 1234">2안</th> <th data-bbox="1037 1155 1426 1234">3안</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64 1234 651 1391">수능최저학력기준(평준화) 전체 2개 영역 등급합 7이내</td> <td data-bbox="651 1234 1037 1391">수능최저학력기준(현행유지) · 기본: 2개 영역 등급합 7이내 · 성적 상위 모집 단위 : 2개 영역 등급합 6이내</td> <td data-bbox="1037 1234 1426 1391">수능최저학력기준(강화) 전체 2개 영역 등급합 6이내</td> </tr> </tbody> </table>	1안	2안	3안	수능최저학력기준(평준화) 전체 2개 영역 등급합 7이내	수능최저학력기준(현행유지) · 기본: 2개 영역 등급합 7이내 · 성적 상위 모집 단위 : 2개 영역 등급합 6이내	수능최저학력기준(강화) 전체 2개 영역 등급합 6이내		
1안	2안	3안						
수능최저학력기준(평준화) 전체 2개 영역 등급합 7이내	수능최저학력기준(현행유지) · 기본: 2개 영역 등급합 7이내 · 성적 상위 모집 단위 : 2개 영역 등급합 6이내	수능최저학력기준(강화) 전체 2개 영역 등급합 6이내						
답변	<p>- 해당 방안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p> <p>-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설정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나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는 점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p>							
질의	3-5. 학생부교과전형 개선 시 추가로 반영할 평가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264 1805 651 1861">1안</th> <th data-bbox="651 1805 1037 1861">2안</th> <th data-bbox="1037 1805 1426 1861">3안</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64 1861 651 1984">수능최저학력기준만 활용</td> <td data-bbox="651 1861 1037 1984">수능최저학력기준 + 출결</td> <td data-bbox="1037 1861 1426 1984">수능최저학력기준 + 면접</td> </tr> </tbody> </table>	1안	2안	3안	수능최저학력기준만 활용	수능최저학력기준 + 출결	수능최저학력기준 + 면접	
1안	2안	3안						
수능최저학력기준만 활용	수능최저학력기준 + 출결	수능최저학력기준 + 면접						

구분	내용																	
답변	<p>- 해당 방안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p> <p>-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평가 요소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p>																	
질의	<p>3-6. 학생부교과전형 개선 시 다음의 교과 성적 산출 방법의 적절성에 대하여 어떻게 보십니까?</p> <table border="1" data-bbox="264 595 1414 712"> <thead> <tr> <th colspan="5">적절성 평가를 해주세요.</th> </tr> <tr> <th>매우 적절하다</th> <th>적절하다</th> <th>보통이다</th> <th>적절하지 않다</th> <th>매우 적절하지 않다</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혼합방식 학생부 교과성적 산출방법(※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p> <p><input type="checkbox"/> 학생부 교과별 석차등급 = $\frac{\sum(\text{반영과목 등급} \times \text{이수단위(학점)})}{\sum \text{반영과목 이수단위(학점)}}$</p> <p><input type="checkbox"/> 학생부 교과성적 최종 산출점수</p> <p>1) 인문·자연·예체능계열(자유전공학부(인문·자연) 제외)</p> <table border="1" data-bbox="344 981 1366 1057"> <tr> <td>$\frac{\sum(\text{교과별 석차등급 환산점수} \times \text{교과별 반영비율})}{\text{가산점}} + \sum(\text{반영교과별 이수과목 이수단위(학점)} \times \text{성취등급가중치}) \times 0.05 + \text{출결점수}$</td> </tr> </table> <p>2) 자유전공학부(인문·자연)</p> <table border="1" data-bbox="344 1124 1366 1200"> <tr> <td>$\frac{\sum(\text{교과별 석차등급 환산점수} \times \text{교과별 반영비율})}{\text{가산점}} + \sum(\text{반영교과별 이수과목 이수단위(학점)} \times \text{성취등급가중치}) \times 0.2 + \text{출결점수}$</td> </tr> </table>	적절성 평가를 해주세요.					매우 적절하다	적절하다	보통이다	적절하지 않다	매우 적절하지 않다						$\frac{\sum(\text{교과별 석차등급 환산점수} \times \text{교과별 반영비율})}{\text{가산점}} + \sum(\text{반영교과별 이수과목 이수단위(학점)} \times \text{성취등급가중치}) \times 0.05 + \text{출결점수}$	$\frac{\sum(\text{교과별 석차등급 환산점수} \times \text{교과별 반영비율})}{\text{가산점}} + \sum(\text{반영교과별 이수과목 이수단위(학점)} \times \text{성취등급가중치}) \times 0.2 + \text{출결점수}$
적절성 평가를 해주세요.																		
매우 적절하다	적절하다	보통이다	적절하지 않다	매우 적절하지 않다														
$\frac{\sum(\text{교과별 석차등급 환산점수} \times \text{교과별 반영비율})}{\text{가산점}} + \sum(\text{반영교과별 이수과목 이수단위(학점)} \times \text{성취등급가중치}) \times 0.05 + \text{출결점수}$																		
$\frac{\sum(\text{교과별 석차등급 환산점수} \times \text{교과별 반영비율})}{\text{가산점}} + \sum(\text{반영교과별 이수과목 이수단위(학점)} \times \text{성취등급가중치}) \times 0.2 + \text{출결점수}$																		
답변	<p>- 해당 방안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p> <p>- 학생부교과전형에서 교과 성적 산출식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나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는 점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p>																	
질의	<p>3-7. 학생부교과전형 개선 시 다음의 석차등급별 환산점수표의 적절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p> <table border="1" data-bbox="264 1827 1414 1957"> <thead> <tr> <th colspan="5">적절성 평가를 해주세요.</th> </tr> <tr> <th>매우 적절하다</th> <th>적절하다</th> <th>보통이다</th> <th>적절하지 않다</th> <th>매우 적절하지 않다</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적절성 평가를 해주세요.					매우 적절하다	적절하다	보통이다	적절하지 않다	매우 적절하지 않다							
적절성 평가를 해주세요.																		
매우 적절하다	적절하다	보통이다	적절하지 않다	매우 적절하지 않다														

구분	내용
----	----

학생부교과 석차등급별 환산점수표(제시안)				
학생부교과 석차등급별 환산점수표				
28학년도 석차등급 구간(A안)	A안 편차	28학년도 석차등급 구간(B안)	B안 편차	학생부교과 (교과성적우수자· 지역균형·사회통합)
1.00 ~ 1.09	0.1	1.00 ~ 1.19	0.2	350.00
1.10 ~ 1.19	0.1	1.20 ~ 1.39	0.2	349.00
1.20 ~ 1.29	0.1	1.40 ~ 1.44	0.05	347.00
1.30 ~ 1.39	0.1	1.45 ~ 1.49	0.05	345.00
1.40 ~ 1.49	0.1	1.50 ~ 1.54	0.05	343.00
1.50 ~ 1.59	0.1	1.55 ~ 1.59	0.05	341.00
1.60 ~ 1.69	0.1	1.60 ~ 1.64	0.05	338.00
1.70 ~ 1.79	0.1	1.65 ~ 1.69	0.05	335.00
1.80 ~ 1.89	0.1	1.70 ~ 1.74	0.05	332.00
1.90 ~ 1.99	0.1	1.75 ~ 1.79	0.05	329.00
2.00 ~ 2.19	0.2	1.80 ~ 1.84	0.05	325.00
2.20 ~ 2.39	0.2	1.85 ~ 1.99	0.05	321.00
2.40 ~ 2.59	0.2	2.00 ~ 2.09	0.1	317.00
2.60 ~ 2.79	0.2	2.10 ~ 2.39	0.3	313.00
2.80 ~ 2.99	0.2	2.40 ~ 2.99	0.5	307.00
3.00 ~ 3.49	0.5	3.00 ~ 3.49	0.5	300.00
3.50 ~ 3.99	0.5	3.50 ~ 3.99	0.5	280.00
4.00 ~ 4.49	0.5	4.00 ~ 4.49	0.5	250.00
4.50 ~ 5.00	-	4.50 ~ 5.00	-	200.00

답변 - 해당 방안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활용할 환산점수표와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나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는 점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4 학생부종합전형 개선방향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비한 인천대학교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설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의 내용을 살펴봐 주시고 근거를 포함한 의견을 작성 부탁드립니다.

구분	내용																			
질의	<p>4-1.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시 다음 평가요소 및 평가내용 중 어떤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p><1안: 발전역량 삭제></p>																			
	<p>1안</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36 696 501 741">평가영역</th> <th data-bbox="501 696 671 741">평가요소</th> <th data-bbox="671 696 1439 741">서류평가 평가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36 741 501 1014" rowspan="2">학업역량</td> <td data-bbox="501 741 671 835">학업수월성</td> <td data-bbox="671 741 1439 835">-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와 기초학업역량 및 학업의 발전정도</td> </tr> <tr> <td data-bbox="501 835 671 1014">학업주도성</td> <td data-bbox="671 835 1439 1014">- 학업을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 -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스스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에 대해 해결하려는 노력</td> </tr> <tr> <td data-bbox="336 1014 501 1368" rowspan="2">진로역량</td> <td data-bbox="501 1014 671 1279">진로충실성</td> <td data-bbox="671 1014 1439 1279">-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정도 -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 수준 -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경험 및 노력</td> </tr> <tr> <td data-bbox="501 1279 671 1368">성장가능성</td> <td data-bbox="671 1279 1439 1368">-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진로와 관련된 새로운 과제나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고 해결하고자 한 노력</td> </tr> <tr> <td data-bbox="336 1368 501 1635" rowspan="2">공동체역량</td> <td data-bbox="501 1368 671 1547">소통능력</td> <td data-bbox="671 1368 1439 1547">-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여 구성원들과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을 위해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태도</td> </tr> <tr> <td data-bbox="501 1547 671 1635">책임감</td> <td data-bbox="671 1547 1439 1635">-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공동체의 기본 윤리와 원칙을 준수하는 태도</td> </tr> </tbody> </table>	평가영역	평가요소	서류평가 평가내용	학업역량	학업수월성	-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와 기초학업역량 및 학업의 발전정도	학업주도성	- 학업을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 -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스스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에 대해 해결하려는 노력	진로역량	진로충실성	-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정도 -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 수준 -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경험 및 노력	성장가능성	-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진로와 관련된 새로운 과제나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고 해결하고자 한 노력	공동체역량	소통능력	-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여 구성원들과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을 위해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태도	책임감	-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공동체의 기본 윤리와 원칙을 준수하는 태도
평가영역	평가요소	서류평가 평가내용																		
학업역량	학업수월성	-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와 기초학업역량 및 학업의 발전정도																		
	학업주도성	- 학업을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 -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스스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에 대해 해결하려는 노력																		
진로역량	진로충실성	-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정도 -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 수준 -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경험 및 노력																		
	성장가능성	-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진로와 관련된 새로운 과제나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고 해결하고자 한 노력																		
공동체역량	소통능력	-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여 구성원들과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을 위해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태도																		
	책임감	-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공동체의 기본 윤리와 원칙을 준수하는 태도																		

<2안: 현행 유지>

2안	평가요소	서류평가 평가내용
	학업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기초학업역량 및 학업의 발전정도 -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 -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진로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정도 -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 수준 -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경험 및 노력 	
발전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에 대한 대안적 해결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 -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과제나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고 해결하고자 한 노력 - 자기주도적인 학업 노력 	
공동체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여 구성원들과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을 위해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태도 -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공동체의 기본 윤리와 원칙을 준수하는 태도 	

<3안: 발전역량 평가내용 변경>

3안	평가요소	서류평가 평가내용
	학업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기초학업역량 및 학업의 발전정도 -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 -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진로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정도 -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 수준 -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경험 및 노력 	
발전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경험 -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 교내 다양한 교육활동에서 주도적이고 진취적으로 활동을 수행한 정도 - 학교교육의 다양한 영역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얻는 성장 과정 	
공동체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여 구성원들과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을 위해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태도 -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공동체의 기본 윤리와 원칙을 준수하는 태도 	

<p>답변</p>	<p>- 해당 방안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p> <p>-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평가요소 및 평가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나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는 점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p>						
<p>질의</p>	<p>4-2.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시 서류와 면접평가 비중은 어떤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data-bbox="263 645 1428 761"> <thead> <tr> <th>1안</th> <th>2안</th> <th>3안</th> </tr> </thead> <tbody> <tr> <td>서류 80%+면접 20%</td> <td>서류 70%+면접 30%</td> <td>서류 60%+면접 40%</td> </tr> </tbody> </table>	1안	2안	3안	서류 80%+면접 20%	서류 70%+면접 30%	서류 60%+면접 40%
1안	2안	3안					
서류 80%+면접 20%	서류 70%+면접 30%	서류 60%+면접 40%					
<p>답변</p>	<p>- 해당 방안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p> <p>-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서류와 면접평가의 비율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나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는 점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p>						
<p>질의</p>	<p>4-3.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시 전형 평가 방식으로 어떤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data-bbox="263 1182 1428 1406"> <thead> <tr> <th>1안</th> <th>2안</th> <th>3안</th> </tr> </thead> <tbody> <tr> <td> 서류형, 면접형 이원화 예) * 서류형: 서류 100% * 면접형: 서류 60%+면접 40% </td> <td> 모집단위별 권장 이수 과목 제시하여 가산점 부여 </td> <td> 수능최저학력기준 도입 </td> </tr> </tbody> </table>	1안	2안	3안	서류형, 면접형 이원화 예) * 서류형: 서류 100% * 면접형: 서류 60%+면접 40%	모집단위별 권장 이수 과목 제시하여 가산점 부여	수능최저학력기준 도입
1안	2안	3안					
서류형, 면접형 이원화 예) * 서류형: 서류 100% * 면접형: 서류 60%+면접 40%	모집단위별 권장 이수 과목 제시하여 가산점 부여	수능최저학력기준 도입					
<p>답변</p>	<p>- 해당 방안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p> <p>-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전형 평가 방식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나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는 점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p>						

5 수능위주전형 개선방향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비한 인천대학교에서 '수능위주전형' 설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의 내용을 살펴봐 주시고 근거를 포함한 의견을 작성 부탁드립니다.

구분	내용		
질의	5-1. 수능위주전형 개선 시 전형 평가 방식으로 어떤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안 수능+면접	2안 수능 100%	3안 수능+학생부교과
답변	<p>- 해당 방안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p> <p>- 수능위주전형 전형 평가 방식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나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는 점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p>		
질의	5-2. 수능 점수 반영 시 개선 방향으로 어떤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안 계열별로 공통사회, 공통과학 중 1개만 반영	2안 공통사회, 공통과학 모두 반영	3안 계열별로 공통사회, 공통과학 과목 성적에 가산점 부여
답변	<p>- 해당 방안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p> <p>- 수능위주전형에서 수능 점수 반영 방식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나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는 점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p>		

6 논술 전형 도입여부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비한 인천대학교에서 '논술 전형' 도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의 내용을 살펴봐 주시고 근거를 포함한 의견을 작성 부탁드립니다.

구분	내용		
질의	6-1. 논술 전형 도입 시 어떤 방안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안	2안	3안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방안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논술 전형 도입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나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는 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질의	6-2. 논술 전형 신설 시 평가 방안으로 어떤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안	2안	3안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방안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논술 전형 평가 방식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나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는 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질의	6-3. 논술 전형 신설 시 평가 방안으로 어떤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안	2안	3안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방안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논술 전형 평가 방안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나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는 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전형 개선 연구

2025년 12월 31일 인쇄

2025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처 인천대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032)835-0000

※ 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 없이 변경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